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

碩士論文

‘이다’句和‘是’字句對比及使用情況研究

A Study on the Comparison and Usage of Sentences in Korean copula 'ida' and Chinese copula 'shi'

研 究 生：崔 美 羅 撰
指導教授：朴 炳 善 博士

中華民國 一一〇 年 一 月

DOI:10.6814/NCCU202100335

中文摘要

繫詞在大部分的語言中基本上都表示"確認"和"屬性"的意思，並具有連接主詞和補語的語法功能。"이다"和"是"有共同點，就是在韓文和中文中起到連接主詞和補語的繫詞作用。但是，由於韓文和中文屬於不同的語言系統，因此作爲繫詞的語意功能和語法結構不同。這些差異會引起學習者的混亂。因此，爲了正確理解和使用"이다"和"是"字句，需要分析兩句的語意上的、語法上的對照和使用情況。 本研究的目的是透過對比方式確認"이다"和"是"的特性和功能。

本篇論文將"이다"句的語意功能分爲確認句、屬性句、存在及領有句、數量及時間句、分裂句、習用語句、模態句、提示句、隱含語意句等共 9 種功能，以瞭解與"是"字句的應對關係。通過這樣的語意對照可以看出，"이다"句和"是"字句如果表示繫詞的基本類型確認和屬性敘述，大體上會表現出相互對應的關係。相反，模態語意、習用語意等與基本類型有距離的句子則很難形成相互對應關係。

爲了瞭解"이다"句和"是"字句的語法特性，對照主詞和補語位置上可以結合的成分了。以"이다"的句子爲例，主詞位置只能接名詞性成分，但"是"字句的話，主詞位置除了名詞性成分之外，也可以接動詞短語、形容詞短語、小句等非名詞性成分。
"이다"句的補語位置上名詞性成分之外， 也可以使用副詞、助詞、詞尾、成語等更多的成分。"是"字句的補語位置，可以接比"이다"句更多樣的成分，例如，動詞短語，形容詞短語、小句、連接詞、介詞短語、成語、 “的”字句等。

這種語意功能及語法功能實際上如何出現，爲了確認實際使用情況，韓國國立國語院的世宗 21 語料庫和臺灣中央研究院的 sinica 語料庫書面資料（新聞報道-社會）中選取了 1,000 個例子進行了分析。分析結果顯示，確認、屬性等繫詞的基本語意功能的分佈率在兩個句子中都顯示出 75%以上的高使用頻率，這代表韓文"이다"句和中文"是"字句的主要功能是繫詞功能。

觀察了"이다"和"是"的前後位置可以結合的成分，發現這兩個句子都是結合名詞性成分的分佈率最高，這證明了至今爲止兩個句子的基本句型被討論爲" ‘NP1 이 NP2 이다"和"NP1 是 NP2"的合理性。

以"이다"爲例 ， 與名詞性成分的結合高達 98% ， 從這一點來看 ， "이다"句在 Pustet(2003)中提出的 4 種繫詞結合類型中屬於只結合名詞的類型。 "是"字句是除名詞性成分外，與動詞（短語）、形容詞（短語）、介詞短語、連接詞、小句等非名詞性成分結合的佔 43.4%，幾乎佔了一半。由此，可以解釋爲"是"字句是 Pustet（2003）的繫詞結合類型中，與名詞、形容詞、動詞都可以結合的類型。

關鍵字: 繫辭、 ‘이다’句、‘是’字句、語料庫、語意功能、語法功能、使用情況

DOI:10.6814/NCCU202100335

Abstract

Copula basically means "identificational" and "ascriptive" has grammatical functions that connect the subject and complement in many languages, "ida" and "shi" have the same meaning as a copula that connects the subject and complement words in Korean and Chinese. However, since Korean and Chinese are different languages, the meaning and grammar of a copula are different. These differences can cause confusion among the learners.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and use the words "ida" and "shi" correc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mantic, grammatical contrast and use of the two sentences, and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each sentence.

In this paper, the semantic functions of "ida" sentence are divided into nine functions: identificational, ascriptive, existence and possessional, quantity and temporal, cleft sentence, idioms, modality, thetic and illogical, so as to understand. As a result, the sentences "ida" and "shi" represent the basic type "identificational" and "ascriptive" description of Copula, and generally show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Conversely, it has tended to be difficult to form correspondence with each other in cases such as modality and idiomatic meanings that are distant from the underlying typ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ida" and "shi" sentences, compared the elements of the complement position. In addition to, the noun elements of the complement of the sentence "ida", more complicated elements such as adverbs, auxiliary words, suffixes and idioms can be used. In the sentence "shi", the complement can be used more than the sentence 'ida', e.g., verb phrase, adjective phrase, clause, conjunction word, preposition phrase, idiom, `de' sentence, etc.

In order to confirm the actual usage, I selected 1,000 examples from Sejong 21 Corpus of the Korea and Sinica Corpus of the Taiwa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stribution rate of basic semantic functions of the determinants of "identificational" and "ascriptive" was more than 75 % in both sentences. It means that the main function of "ida" in Korean and "shi" in Chinese is the copula.

Finally, the analysis of complement components of "ida" and "shi" showed that the ratio of "ida" to nominal components was as high as 98%. The ratio of "shi" to non-noun components such as verbs and adjectives is 43.4%. Therefore, in the conjunctive type of Pustet (2003), the sentence "ida" can be interpreted as the binding type of conjunction with "noun" and the "shi" sentence can be interpreted as the binding type of conjunction with "noun, adjective, verb".

Key words: copula, ‘ida’ sentence, ‘shi’ sentence, corpus, semantic functions, grammatical functions, usage

DOI:10.6814/NCCU202100335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7

Ⅱ. 이론적 배경 16

1. 계사의 기능 및 유형 16

2. 계사의 결합 및 생략 24

3. ‘이다’와 ‘是’의 문법 범주 논의 29

Ⅲ. '이다'와 '是' 구문의 의미 기능별 특성 대조 38

1. 확인 구문 41

2. 속성 구문 44

3. 존재 및 소유 구문 55

4. 수량 및 시간 구문 58

5. 분열 구문 60

6. 양상적 구문 65

7. 관용 구문 72

8. 제시 구문 74

DOI:10.6814/NCCU202100335

9. 상황의존적 구문 76

10 소결 77

Ⅳ. ‘이다’와 '是' 구문의 사용 양상 81

1. ‘이다’ 구문의 사용 양상 81

2. '是' 구문의 사용 양상 98

3. 소결 110

Ⅴ. 결론 111

참고 문헌 114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DOI:10.6814/NCCU202100335

표 목차

<표> 1 세종 21 말뭉치 및 sinica 말뭉치 구분 4

<표> 2 NP1 be NP2 의 유형 [Dikken, 2006:297] 20

<표> 3 Higgins(1979:264)의 계사 구문 4 분류 21

<표> 4 기존의 품사 3 분류[이슬기 2019:184] 25

<표> 5 Croft(1991:67)의 품사 및 화용적 기능 분류 25

<표> 6 계사와 결합 가능한 품사 유형 26

<표> 7 계사 및 '이다' 구문의 유형 분류 39

<표> 8 '이다' 구문 하위 유형 40

<표> 9 '이다' 속성 구문 하위 유형 46

<표> 10 '이다'와 '是' 구문 대응 양상 78

<표> 11 '이다'와 '是' 구문 결합 양상 79

<표> 12 '이다' 구문의 속성 의미 기능 사용 양상 89

<표> 13 '의존명사+ 이다' 구문의 선 • 후행 요소와 양태 의미 94

<표> 14 '이다' 구문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 95

<표> 15 '이다'의 선행 요소 분포율 97

<표> 16 '是' 구문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 108

<표> 17 '是'의 후행요소 분포율 109

DOI:10.6814/NCCU202100335

그림 목차

<그림> 1 등가: 石綿敏雄・高田誠(1990:18)..... 5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DOI:10.6814/NCCU202100335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계사로 분류되는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의 의미적 기능과 통사적 구조를 대조하고 말뭉치 용례를 활용하여 두 구문의 실제적인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두 구문의 의미적·통사적 특성 및 사용 분포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은 실제 담화 상황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1] 초급부터 교육 및 학습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문 중 하나이다. 두 구문 모두 문법적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문법 범주 설정에 있어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며 구문의 유형 및 의미 기능도 다양하다. '이다'와 '是'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각각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계사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Pustet(2003:5)에서는 계사(copulas)란, 어떤 언어에서 술어 핵의 기능을 하는 특정 어휘소와 함께 나타나는 요소로서 계사가 포함된 술어구에 어떠한 의미론적 내용도 추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대부분의 언어에 이러한 계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계사는 자체적 의미가 없이 문장에서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를 뜻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영어의 be 동사를 들 수 있다. 계사 구문의 의미는 계사 자체보다 보어인 계사의 선후행 요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2]

---

[1]서상규(1998)에서 4,200 여만 어절 규모의 연세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의 낱말 순위에 '이다'가 '를, 가, 은, 었, 다, 는, 의'에 이어 8 위를 차지하였으며, 세종 형태소 분석 말뭉치(150 만어절)에 나타난 전체 형태소 빈도에서 긍정지정사로 분류된 '-이-'의 빈도는 6 위로 나타났다(강범모, 2011:167). 북경대학교 현대한어말뭉치 자료에서는 '是'가 총 10,645 개의 한자 중에서 '的, 一, 國'에 이어 빈도 4 위를 차지하였고, HSK 동태작문말뭉치 ver2.0 에서도 '是'가 '的, 我'에 이어 빈도 3 위를 차지하였다. 徐開妍(2014)에서는 현대 중국어를 대표하는 중요성이 높은 25 종의 특수구문을 선별하여 그 사용빈도를 통계하였는데 '是' 구문의 사용 빈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홍재성(2010:6-7)에서 계사 구문의 'is'는 의미적으로 허사와 같이 서술어 기능만 담당할 뿐이며 의미 층위에서 술어는 동사 'is'가 아니라 뒤에 오는 보어 자리의 'student'와 'intelligent'라고 하였다. 최현배(1956:216)에서도 잡음씨 '이다'는 바탕이 없는 꼴풀이씨(형식용언)로써 임자말에

DOI:10.6814/NCCU202100335

홍재성(2010:5)에서는 계사 구문이 범언어적으로 부류 귀속 서술 (class membership predication)과 속성 서술(property predication)의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한국어의 '이다'와 중국어의 '是' 역시 영어의 'be 동사'와 같이 이러한 기능을 지니며 각 언어에서 계사로 분류되어 왔다.

(1) 가. Peter's brother is a student.
나. Mary is intelligent. [홍재성 2010:5]

(2) 가. 나는 학생**이다**.
나. 我**是**學生。

(3) 가. 그녀는 긴머리**(이)다**
나. 她是個長髮。

(1 가)의 'is'는 주어가 뒤의 명사항인 'student'의 구성원임을 나타내고 (1 나)에서 'is'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낸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예문인 (2), (3)에서도 '이다'와 '是'가 각각 'is'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계사는 기본적인 계사 구문의 구성과 기능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확장 양상을 보인다.

(4) 가. 나 도서관**이다**.
가'. 我**在**圖書館. (*我**是**圖書館。)
나. 커피를 마시**기는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나'. 咖啡喝**是**喝, 但是不喜歡.
다. 시험결과는 아직**이다**. (考試結果還沒出來.)
다'. 這個人**是**很熱情. (이 사람은 매우 열정적이다.)

(4 가)에서 '이다'는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국어의 '是'와 서로 대응되지 않으며 (4 나')에서 '是'는 양보문의 기능을 하지만 한국어의 '이다'와 서로 대응되지 않는다. (4 나'), (4 다')에서 보어의 자리인 '是'의 후행 요소로 동사 '喝'와 형용사(구) '很熱情'이 올 수 있고 (4 다)에서 '이다'의 선행 요소로 부사 '아직'이 올 수 있는 등 계사의 선후행 요소 범위 및 의미 기능 확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다'와 '是'는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계사의 역할을 하고 통사적

대한 풀이말이 되며 그 빈 내용은 기움말임자씨(보어체언)로 기워 채우는 것이라 하였다.

DOI:10.6814/NCCU202100335

분포와 의미 기능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의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는 각각 교착어와 고립어로서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하는 만큼 통사적 구조 및 의미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인해 중국어 모어 학습자가 한국어 '이다' 구문을 학습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다' 구문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 두 구문의 의미적·통사적 대조 및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각 구문의 특성과 기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상이하게 나타나는 목표어의 구조와 의미 기능은 학습자의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대조의 작업이 꼭 필요하다. 본 연구는 두 구문의 이러한 의미적 기능 및 통사적 구조의 차이가 한국어 학습자들의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하는 교육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의 전 단계로서 먼저 한국어 계사의 대표 구문인 '이다' 구문과 중국어 계사의 대표 구문인 '是' 구문을 계사라는 비교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한·중 언어의 계사가 각각의 언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조하고 두 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이다' 구문을 중심으로 '이다' 구문이 중국어로 실현될 때 '是'와 대응이 되는지, '是' 구문 외에 어떤 구문으로 실현되는지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번 연구와 유사한 기존의 연구로는 탄나나(2015)가 대표적인데 탄나나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이다'와 '是'를 계사로 보고 두 구문의 통사적 결합 양상을 확인한 후 '이다'의 의미적 기능을 9가지로 분류하여 '是' 구문과 대조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두 구문의 의미적 기능과 통사적 구조의 특징들을 참고하여 재정리하고 한국인과 대만인의 실제 구문 사용에서 이러한 특징과 기능이 어떠한 분포로 나타나는지 실제적 자료인 말뭉치를 활용해서 확인하려는 것이다. 각 문형의 실현 빈도는 어떤 문형을 먼저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신서인, 2006:213). 실제 사용되는 기능의 빈도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중요도를 측정하고 실제 교육에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이다' 구문의 교수·학습의 적용을 연구하는 데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고 교재의 구성 배열에 참고 가능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의 '이다' 구문과 중국어의 '是' 구문이다. 구체적인

DOI:10.6814/NCCU202100335

대상은 한국 국립국어원과 대만 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한 '이다' 구문 및 '是' 구문에 대한 말뭉치 자료이다. 한국어 '이다' 구문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립 국어원의 '세종 21 말뭉치 현대 문어' 중에서 '신문보도해설-사회'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문어 말뭉치는 대부분 문법적인 문장으로 구성되므로 문법적 구조 확인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 '是' 구문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만 중앙연구원의 Sinica corpus 4.0 문어 자료 중 '신문보도-사회'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3] '신문보도-사회'는 두 말뭉치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는 범위와 주제에 속하며 내용면에서도 실제 생활과 밀접하고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판단되어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구분	세종 21 corpus('이다')	Sinica corpus 4.0('是')
말뭉치 구축 기관	한국 국립국어원	대만 중앙연구원
구축 기간	1998~2007	1981~2007
'이다'와 '是' 전체 Token 수	422,306	20,000
신문보도(사회)부문 Token 수	5,547	3,048

<표> 1 세종 21 말뭉치 및 sinica 말뭉치 구분

세종 21 말뭉치에서 신문보도(사회)의 '이다' 구문은 5,547 토큰, 'Sinica 말뭉치'에서 '是' 구문은 3,048 토큰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1000 토큰을 대상으로 보어의 통사적 결합 양상과 의미적 기능을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까지 대만의 언어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만 중앙 연구원의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대만의 중국어 말뭉치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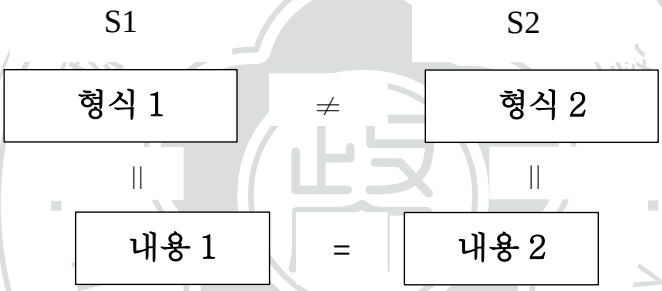
본 연구의 주 연구 방법은 대조분석과 말뭉치 분석이다. 대조분석은 각 개별언어가 가지는 공통적인 언어보편적 특성을 규명하는 이론 언어학적 성격과 모국어의 간섭현상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응용 언어학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육준철, 2005). 즉, 둘 이상의 개별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적인 차원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개별 언어들의 보편소를 추구하거나 개별언어의 차이점을 통해 오류를 예측하여 정확한 언어적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3] 세종 21 말뭉치 사이트(국립국어원 언어정보 나눔터) : https://ithub.korean.go.kr
Sinica corpus 4.0 사이트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 : asbc.iis.sinica.edu.tw

DOI:10.6814/NCCU202100335

모든 언어는 각기 고유의 언어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내용들이 상이한 언어에서는 여러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조언어학에서는 보통 학습자의 목표언어와 모국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언어 습득상의 어려움은 크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대조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자 한다(신자영, 2009). 대조분석의 이러한 응용언어학적 성격에 따라 지금까지 목표언어와 모국어의 대조분석은 외국어 교습을 위한 교안 작성과 실제적인 교습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 과정이었다(이기용, 2001).

대조분석은 두 언어가 서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두 언어의 구조를 대조할 때, 우선 무엇과 무엇이 서로 대응하는 요소인가,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등가인가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石綿敏雄・高田誠 저, 오미령 역, 2004:17). 등가(equivalent)란 언어들 간의 의미나 지시가 상호 대등하거나 대응되는 표현을 의미한다(신자영, 2009).



<그림> 1 등가: 石綿敏雄・高田誠(1990:18)

서로 다른 두 언어의 언어기호를 S1 과 S2 로 나타냈을 때, S1 의 형식 1 과 S2 의 형식 2 는 보기에 전혀 달라도 각각의 형식이 담보하는 내용 1 과 내용 2 가 서로 같으면, S1 과 S2 는 서로 대응하는 언어기호라 할 수 있다. 이 때 형식 1 과 형식 2 는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두 개의 등가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石綿敏雄・高田誠저, 오미령 역, 2004:18).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다'와 '是'는 형식은 다르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각각 계사의 의미기능을 하고 있고 유형론적 관점에서 의미상 계사라는 '등가성'을 지니므로 대조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구문의 의미적 기능을 대조하여 개별적 언어에서 계사의 기능이 각각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다'와 '是' 구문이 가지는 특수 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구문과 결합하는 보어의 자리에 결합 가능한 범주를 정리하고 두 구문의 공통된 기능 및 특수 기능이 실제 신문보도 자료 말뭉치에서 그

DOI:10.6814/NCCU202100335

양상이 어떠한 분포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말뭉치(Corpus)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코퍼스 언어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들(Sinclair 1991, Stubbs 1996, Biber et al. 1998, Hunston 2002)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에 의해 수집된 구어 또는 문어의 진정한 언어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다(Lynne, 2012:3). 즉, 코퍼스는 특정한 언어 분석의 목적을 가지고 모아 놓은 구어 또는 문어로 구성된 실제 사용하는 언어 모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코퍼스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면 그 상대 언어의 다양한 사용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서정목(2009)에 의하면, 두 개별언어의 전산화된 말뭉치를 분석자의 의도에 따른 가공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에 이것이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이 정보가 번역의 용도, 외국어 교육 등의 의도대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양한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면 능숙도와 학습 요구가 상이한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학습을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도 '이다' 구문을 학습하는 학습자와 지도하는 교사에게 언어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실제적 언어 자료인 말뭉치의 이해를 통해 외국어 교육에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5 장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 장 서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대상과 방법,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 등을 다룬다.

2 장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계사의 기능과 유형, 계사의 결합 및 생략 양상을 정리하여 범언어적 계사의 기능과 통사적 구조를 이해한다. 또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의 기능과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구문의 문법적 범주 특성에 대해 정리한다.

3 장에서는 '이다' 구문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그에 대응되는 '是'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보어 자리인 '이다'의 선행 요소와 '是' 구문의 후행 요소의 결합 양상도 함께 대조한다. 대조를 통해 두 구문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결합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4 장에서는 한국의 국립국어원의 세종 21 말뭉치와 대만 중앙 연구원의 Sinica 4.0 말뭉치를 활용하여 각각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의 의미 기능 사용 및 보어 결합 양상 사용을 분석한다. 3 장에서 제시한 의미 기능과 보어 결합 양상이 말뭉치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DOI:10.6814/NCCU202100335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3 장과 4 장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전체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본 논문의 의의 및 한계를 밝힌 후 후속 과제를 제안하고 마무리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이다’와 ‘是’ 구문 모두 문법적 범주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각각 통사론적 고찰, 의미론적 고찰, 화용론적 고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각 언어의 독립적인 연구 성과에 비해 두 구문을 함께 대조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이다’와 ‘是’ 구문의 개별연구 중에서 계사와 관련된 연구와 ‘이다’와 ‘是’ 구문의 한•중 대조에 관한 연구, 그리고 두 구문의 말뭉치를 활용한 선행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의 ‘이다’ 구문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문법 범주에 관한 연구와 ‘이다’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기능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문법 범주에 관한 논의는 다시 용언으로 보는 견해, 조사로 보는 견해, 접사로 보는 견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법 범주 설정에 관한 전체적인 논의는 2 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다’ 구문을 계사로 본 연구만 정리하고자 한다.

‘이다’를 용언으로 보는 견해로는 ‘이’를 용언의 어간으로 보는 지정사설과 계사설이 대표적이다. 최현배(1956)는 ‘이다’를 ‘아니다’와 함께 독립된 품사인 지정사(잡음씨)로 설정하였는데 사실 지정사는 서양 문법에서 도입된 계사(copula)를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다.[4] 최현배(1963)에서 ‘이다’를 지정사로 세운 근거는 ‘이다’가 풀이힘을 가지고 끝바꿈(활용)을 하며 시간적 표현과 독립성을 가진 낱말이기 때문이다. 또 ‘이다’와 ‘아니다’가 동사나 형용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정사라는 독립적인 품사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5]

김광해(1983)는 계사란 범언어적으로 기저의 추상적 존재[6]이며 계사가 표면에

---

[4] 최현배(1956:216)에서 잡음씨 ‘이다’는 영어의 be 쓰임 중 Copulative Verb(맺는 움직씨)와 같은 것이며 이것은 내용이 없는 형식용언으로써 주어에 대하여 풀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5] 송창선(2007:129)은 최현배(1937:749-772)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다’와 ‘아니다’는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가 붙지 않고,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쓰이지 못하는 등 활용면에서는 동사보다는 형용사에 더 가깝다고 했다. 또한 서술형 어미에 ‘-라, -로구나, -올시다’ 등이 있고, 연결 어미에 ‘-라야, -라야만, -라도’ 등의 독특한 어미가 쓰이는 점을 중시하여 ‘이다’와 ‘아니다’를 지정사라는 독립된 품사로 설정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6] 표면의 계사는 ‘의미상으로 무의미한’, ‘명목상의 동사’이며 구체적인 어휘 형태를 지니지 않는

DOI:10.6814/NCCU202100335

나타나는 경우는 시제, 서법, 상 등의 문법 요소의 표시를 위한 '장소'로서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다'를 be 동사와 중국어의 '是'와 함께 계사의 예로 들어 각 언어들 간의 계사 의미 및 기능이 일치하지 않으나 공통적으로 'A=B'라는 동일성 개념을 전제로 '지정(identifying)의 구문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남길임(2006a), 박진호(2012), 홍재성(2010), 목정수(2010)는 '이다'를 범언적 계사의 특성과 비교하여 계사의 영역에서 그 통사적·의미적 기능을 연구하였다.

남길임(2006a)은 계사의 대표적인 예인 be 동사(copula)는 'linking verb'라고도 하며 동사의 범주로 인정되고 있고, 정체성 지정, 부류의 일원, 속성 서술을 나타내는데 국어의 '이다' 역시 영어 be 동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다'의 대표적 기능은 두 명사항을 연결하는 것이며 의미 기능상의 특성으로 보더라도 계사라는 범주를 부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수많은 언어에서 계사가 여러 문법 범주에 속해 있으므로 계사로 보는 것과 '이다'의 품사 설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다'를 용언의 범주로 정리하고 말뭉치에 나타난 '이다'의 양상을 분석하여 그 형태·통사적 특성 및 어휘·의미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박진호(2012)에서 계사는 기본적으로 주부와 술부를 연결하는 의미가 거의 비어있는 요소라고 정의하며 계사와 관련된 요소가 이루는 개념공간의 의미(etic)범주들을 정리하였다. 집합소속, 동일, 처소서술, 존재, 제시, 시간, 수량, 부사적(사격, 부치사구) 서술 , belong – type 술어적 소유, 처소소유, 주제소유, with 소유, 형용사 서술, 동사서술, 분열문, 관련성 등 16 가지 범주이다. 그 중 한국어의 '이다'는 중국어 계사 '是'와 비슷하지만 '是'에는 '이다'와 달리 처소서술과 관련성[7]의 기능이 없다고 하였다.

홍재성(2010) 또한 유형론적 관점에서 계사를 다루고 있는데 계사(繫辭)는 '연결', '연합'을 의미하는 라틴어 copula 가 차용된 것이고 계사 구문을 특징짓는 특정 형태 음운적 표지라고 정의하였다. 프랑스어의 계사 'être'와 '이다'를 대조하였는데 그 중 '이다'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어 '-이-'는 기능적으로는 형용사로 범주화되지만 독립적인 단어의 지위를 갖기보다는 접사의 성격을 보이는 요소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또 한국어 계사 구문은 소재 서술의 구성 방책으로의 기능 확장은 극히 제한적이고, 계사가 동사와 연쇄되지는 않지만 명사 서술 방책의 확장

경우가 흔한 이론상 심층에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하였다(김광해, 1983:3).

[7] 박진호(2012)는 관련성이란 주어의 지시대상과 술어 NP 의 지시 대상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본고에서 상황 의존적 구문으로 분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철수는 짬뽕이야"와 같은 예문이 있다.

DOI:10.6814/NCCU202100335

을 통해 속성, 소재 및 사건 서술 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사 생략에 있어서 '-이-'는 동일한 통사적 맥락에서 음운적 조건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복합적 요인에 의해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목정수(2010)는 '이다'를 명사서술을 술어화하는 서술화소(predicator)로서 '이다'의 선행요소와 통사적 결합 단위성, '아니다' 와의 상관성[8] 등을 감안하면 인구어(印歐語)의 'be'계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적 계사에 속한다고 하였다. 계사의 기능은 언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계사 'be'는 전형적인 계사의 기능과 존재의 의미가 함께 나타나며 소유의 의미는 다른 형태인 'have'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이다'의 경우는 존재와 소유의 의미가 같은 형태인 '있다'로 표현되고, 전형적인 계사의 기능과 존재의 의미가 다른 형태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보면 '이다'는 문법 범주의 논쟁과는 별개로 한국어에서 계사로서 존재하고 또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중국어 '是' 구문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중국 최초의 서구식 문법 저서인 『馬氏文通』(1898)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是' 구문에 대한 연구는 '是'의 기원, '是'의 문법 범주 설정, '是' 구문의 유형 및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기능 분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是'의 개별 연구 중에서 계사로서의 '是' 연구와 '是' 구문의 유형 및 기능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是'의 문법 범주 설정에 관해서는 크게 일원론적 견해, 이원론적 견해, 다원론적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품사로 보는 일원론으로 馬建忠(2007), 黎錦熙(1925), 王力(1937, 1947)가 대표적이고 두 개의 품사로 보는 이원론으로 胡裕樹(1995), 黃伯荣・廖序東(1991)가 있다. 그 외 소수의 학자들이 다원론적 견해를 보이는데 삼원론의 謝永玲(1999), 사원론의 趙元任(2010), 오원론의 徐泰明(1989) 등이 있다. 이러한 품사 설정에 관한 논의는 2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是'를 계사로 설정한 연구만 살펴보고자 한다.

馬建忠(2007:325)은 '是'를 '斷詞(단사)'로 명명하였다. 단사[9]란 起詞(주어)와 表

[8] 목정수(1998)에서 '이다'의 부정형 '아니다'를 '안+이다'의 구조로 보았는데 이럴 경우 '이'를 접사로 볼 수 없다. '이'가 접사라면 'X 이다'를 한 단어로 봐야 하고, 부정부사 '안'은 피수식어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철수는 안 학생이야'라는 문장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다'를 기능 동사로 본다면 '철수는 학생이 안이야'와 같은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9] 凡決斷口氣概以 '是，非，為，即，乃' 諸字參與起詞表詞之間，而謂之斷詞. (馬建忠, 2007:325)

DOI:10.6814/NCCU202100335

詞(표사)[10] 사이에 들어가서 결단의 어조를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며 '是', '非', '為', '即', '乃' 등의 단어가 있다. 후에 이 단사를 계사나 판단 동사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馬文熙・張歸璧(1996)은 단사를 '斷辭(단사)'라고도 하며 대체로 '계사(繫詞)'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漢語知識辭典》에서는 '斷辭(단사), 決辭(결사)'라고도 하며 오늘날의 판단 동사(判斷動詞)에 해당된다고 하였다(邵靄吉, 2000).

王力(1947:232)는 계사(繫辭)란 主位(주위)와 表位(표위)를 연결하는 품사이며 이러한 계사로 구성되는 문장은 주어에 대한 판단의 내용을 나타내는 판단문이라고 하였다. 현대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사는 '是'뿐이며 '是'가 원래 계사의 기능을 벗어나 부사나 처소사의 기능을 하는 것은 '是'가 활용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어떤 사실에 대한 긍정과 부정, 원인 설명, 부사 뒤에서 부호로 사용, 실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경우 등 총 4 가지를 활용의 예로 제시하였다.

趙元任(2010:318)에서도 '是'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주어와 목적어(賓語)가 동등함을 나타내는 계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高名凱(1992:91)도 중국어에서 계사 '是' 는 동사가 아닌 지시사[11]에서 유래되었으며 고대문서[12]에는 '是'외에도 '乃, 其, 為, 係' 등의 계사가 더 있기 때문에 서양의 'verb to be' 나 '同動詞(동동사)'처럼 동사의 한 종류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를 보면 '是' 구문 역시 한국어의 '이다'처럼 중국어에서 계사로 분류되고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是' 구문의 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是' 구문의 통사 구조를 기준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丁聲樹(1979)는 '是'가 동사로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은 설명과 분류라고 하였다. 의미 없이 주어와 목적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할 때도 있고 동일, 존재, 처소, 강조, '어떠한' 또는 '비록~기는 하지

---

[10] 馬建忠(2007)의 '表詞'나 王力(1947)의 '表位'는 따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나 呂叔湘(1979:80)의 '表語'와 같은 성분으로 보인다. 呂叔湘은 계사 '是'뒤에 위치하는 명사를 보어(補足語) 또는 表語라고 정의하였다.

[11] 王力(1958), Li&Tompson(1977), 石毓智・李讷(2001)에 의하면 '是'가 계사의 기능을 하기 전인 고대 중국어(B.C.5-2 세기)에서는 현대중국어의 '這'에 해당하는 지시대명사와 '옳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양세욱, 2006:133).

지시사 용법 예문 : 是, 不為也, 非不能也. (孟子, 梁惠王上)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양세욱:2006]

[12] 고대 초나라 언어인《楚語》, 중국 동한 시대 학자 허신(許愼)이 저술한 최초의 사전《說文》, 중국고대 백과사전인《廣雅》, 명대 이도전(李道傳)이 지은 철학저서《朱子語錄》등을 고문의 예로 들고 있다.

DOI:10.6814/NCCU202100335

만’ 등의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呂叔湘(2007)은 ‘是’의 전후 성분, 특히 ‘是’의 후행 요소에 따라 총 8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의미 기능을 분석하였는데 동등, 분류, 존재, 특성, 주어와 술어와의 관계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范曉(1996)는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동등, 분류, 존재, 비유의 의미가 있고 기타 의미로 소유, 존재, 발생, 동작, 착용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劉月華・潘文娛・故韡(2001)에서는 ‘是’의 기본 의미는 긍정과 판단이며 ‘是’의 후행요소로 명사(구), 대명사, 수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처소사, 시간사, 절, ‘的’ 구 등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의미는 동등과 분류, 주어에 대한 설명, 존재, 긍정, 강조, 양보 등 총 9 가지로 상세히 분류하였다. 또 石毓智(2005)에서는 판단사[13]‘是’의 주요 문법 기능을 판단(copula), 초점(focus), 강조(emphasis), 대비(contrast)로 나누고 4 가지 기능을 기준으로 ‘是’ 구문의 구조와 의미, 사용 조건을 정리하였다.

다음은 ‘이다’와 ‘是’ 구문의 대조 연구이다. 두 구문의 대조 연구는 문법 범주적 성격을 대조하는 연구보다 ‘이다’ 구문을 기준으로 ‘是’ 구문이 어떻게 대응되는지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일언(1996)은 ‘A.좌측이 객실이다. B.객실이 좌측이다 C.좌측에 객실이 있다 D.객실이 좌측에 있다.’ 등 4 가지 유형의 구문에 대한 통사적 조건을 제시하고 의미 및 화용론적 기능을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4 구문 모두 존재를 나타내지만 화자의 의식 속에서는 서로 다른 도상으로 존재하며, A 구문은 중국어 ‘是’ 구문과, B 구문과 D 구문은 ‘在’ 구문과, C 구문은 ‘有’ 구문에 대응된다고 하였다.

반대로 최홍수(1991)는 ‘是’가 동사, 부사, 접속사로 쓰일 때 한국어의 어떠한 표현으로 대응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동사일 때는 해설, 비유, 존재, 소속의 의미기능을 하며, 부사일 때는 강조와 긍정의 의미, 접속사로 쓰일 때는 ‘就是’, ‘或是’처럼 다른 단어와 합성어로 쓰이며 주로 선택, 전환, 점층, 가설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두 연구는 각각 특정한 기능 내에서 ‘이다’와 ‘是’ 구문에 대응되는 중국어 및 한국어 표현만 다루었을 뿐 두 구문의 체계적인 대조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열(2012)은 ‘이다’ 구문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다’ 구문의 다양한 양상을

[13] 고대 중국어 ‘是’ 용법에 대한 학자들의 용어는 크게 ‘판단사’와 ‘계사’로 나뉘지만, 사실상 이들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개념과 기능을 나타낸다(이슬기, 2019). 呂叔湘(1979)에서도 判斷詞(繫辭)로 표현하고 王力(1947)에서도 계사와 表位의 결합은 주어에 있어서 판단사가 될 수 있고 판단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DOI:10.6814/NCCU202100335

분류·분석하고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형식을 고찰하였다. ‘이다’ 구문을 'NP+이다', '부사+이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주로 의미론적 대조를 통해 ‘是’ 구문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장욱(2015)은 ‘이다’와 '是' 구문의 사전적 의미를 기술하고 문법 범주 및 구문의 유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정리하고 취합하여 두 구문을 대조하였다. 구문의 유형은 'Y 이다', 'X 가 Y 이다', 'Y 이다 Y’이다’로 분류하고 의미 관계를 정리한 후 한국어 구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대조하였다.

주유(2019)는 ‘이다’의 통사적 결합 양상을 명사와 비명사 용언(구)로 나누어 대조하였으며 의미적으로는 지시, 속성, 중의, 양태, 상적, 관용적, 상황 의존적, 현장 발화적 구문으로 나눠 대조하였다. 두 구문이 지시적, 속성적 구문에서 대응이 되지만 양태적, 상적, 관용적 구문과 같은 경우 서로 대응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다’와 ‘是’를 각각 계사로 분류하고 범언어적 계사의 기능에 기초하여 두 구문을 대조한 선행 연구이다. 탄나나·남길임(2013)은 한·중 계사 구문의 존재 유무 및 계사의 범주적 지위에 대해 논의한 후 ‘이다’와 '是'의 통사적 결합 양상 및 의미 기능을 대조하였다. ‘이다’의 통사적 구문을 [1]부류 귀속 서술 구문, [2] 속성 서술 구문, [3] 소재 서술 구문, [4]기타 구문으로 구분하여 두 언어의 계사 구문의 대응관계를 확인하였다.

탄나나(2015)는 한·중 계사 구문인 ‘이다’와 '是' 구문을 유형론적 관점에서 대조하여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계사의 의미 기능 유형을 확인 서술 구문, 속성 서술 구문, 존재 구문, 관련성 구문, 분열문, 수량 및 시간 구문, 제시 구문, 양상적 구문, 관용 구문 등 9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조하고 한·중 계사 생략 현상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Jin Huihui·이선웅(2015)은 ‘이다’와 '是'의 용법과 통사적 결합 양상을 살피고 의미 대조를 통해 두 계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이-'보다 '是'가 더 다양한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두 계사가 공통적으로 '분열문', '동일', '집합 소속', '관련성', '수량', '시간', '존재',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관련성', '도입문', '처소 서술'에 있어서 두 구문의 의미적 차이점으로 인해 '-이-'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 밖에 ‘이다’와 ‘是’ 구문의 대조를 통해 ‘이다’ 구문의 범주적 성격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 동뢰(2005)는 ‘이다’의 범주적 성격을 용언으로 규정하고 ‘이다’와 ‘是’ 구문을 음운•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성격을 기준으로 대조하였다. 음

DOI:10.6814/NCCU202100335

운•형태론적 대조에서 '-이-'의 탈락과 관련해 '是'의 생략을 논의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대부분 두 구문의 통사론적, 의미론적 대조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어는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형태소를 이루는 고립어로서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이유로 음운 변동이 많지 않다(이석재,김정아,장재웅, 2007:20). 따라서 '是' 구문은 '이다'와 같은 음운론적인 생략이 없기 때문에 두 구문의 음운론적 대조에 대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뢰(2005)는 '이다'와 '是'를 음운 • 형태적 대조에서도 다루었지만 이는 '이다'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是'의 생략 가능 여부는 음운론적 요인이 아니라 의미론적 요인이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14]. 또 대부분의 연구가 문법의 제약 및 의미적 기능을 설명적으로만 제시하여 실제로 이러한 기능의 사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말뭉치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두 구문의 실제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도 실용적 기능을 위주로 교재 또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다'의 이론적 연구만큼 활발하진 않지만 말뭉치를 이용하여 실제적 텍스트에 나타난 '이다'의 쓰임을 다루고자 한 연구도 있다. '이다' 관련 말뭉치 연구는 주로 남길임(2003a, 2004, 2006b, 2009, 2015)에 의해 진행되었다.

남길임(2003a)은 실제 말뭉치에 나타난 '이다'의 문법적 기능과 구문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국어 사전에서의 표제어 '이다'에 대한 기술의 문제점을 논하고 사전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단일 의미 항목에 품사 설정이 다양하게 나타났던 '이다'를 실제 용례 분석을 통해 언어의 현실을 반영하여 8 가지 다의 항목으로 기술하였다.

남길임(2004)에서는 '연세 한국어 말뭉치 5'에 나타난 '이다' 구문 전체를 대상으로 의미적으로 크게 명제적 구문과 양상적 구문으로 나누고 그 정의와 한계 및 통사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기타 구문으로 관용 구문, 상황의존적 구문, 현장 발화적 구문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남길임(2015)에서는 '21 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서 '긍정지정사 (VCP)'로 분

[14] 이슬기(2019)는 '是'의 생략에 있어서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인가 조건이 모두 작용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하였다. 통사적으로는 '是'가 순계사로 기능할 때 생략이 가능하고 판단이나 초점 표지를 할 때 생략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의미적으로는 정의 구문(defining sentence)일 때 생략이 불가능하고 속성이나 상황 묘사 구문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화용적으로 존재 구문에서 불가산 명사가 쓰일수록 계사와의 공기성이 높고, 자연히 계사 생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DOI:10.6814/NCCU202100335

석된 총 432,707 개의 ‘이다’ 구문을 활용하여 ‘이다’ 및 이와 인접한 선후행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다’의 선행요소는 97% 이상이 체언이며, 나머지는 연결어미, 조사가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술성 의존명사와 결합하여 ‘양상적 구문’을 형성하는 ‘이다’는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다’와 결합하는 고빈도 명사와 연어성[15]이 높은 명사류를 살펴볼 때, ‘이다’의 주된 기능은 확인 구문과 속성 구문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연구 주제가 ‘이다’는 아니지만 분열문의 ‘[관형절+것]SBJ ~이다’나 ‘-적이다’와 같이 ‘이다’ 구문의 유형과 관련된 연구도 있다. 남길임(2006b)에서는 ‘21 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21 만 어절을 대상으로 분열문의 빈도 및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순수 분열문은 총 237 어절로 실제 국어에서 많이 쓰인 편이 아니며 특히 구어의 경우 18 어절로 사용 빈도의 수가 훨씬 적었다.

또 남길임(2009)에서는 ‘21 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 20 만어절에서 ‘-적’과 ‘-적’ 파생어를 중심으로 접미사 사용 양상과 빈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적’ 파생어가 명사로 쓰여 ‘-이다, 으로’와 결합하는 경우가 관형사로 쓰인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이다’ 구문이 ‘적’파생 명사와 결합하는 구조가 실제 사용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말뭉치 연구에서 실제적 텍스트에 나타난 ‘이다’의 의미적 기능 쓰임에 관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사용 빈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다’의 선후행 요소 분석 연구를 통해 구조와 의미적 기능의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역시 의미적 기능의 사용 빈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是’ 구문의 말뭉치 관련 연구는 金海英(2009)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습자가 산출한 ‘是’ 구문 말뭉치를 활용하여 중국어 학습자의 오류나 중간 언어를 다룬 연구는 있으나 원어민의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金海英(2009)은 북경대학 중국어언어학 연구센터의 ‘현대 중국어 말뭉치’와 ‘21 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자료 등을 용례로 이용하여 ‘이다’와 '是' 구문의 문법적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고 대조하였다. 의미론적 대조를 통해 두 구문이 공통적으로 사물, 처소, 시간, 사건과 수량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15] 단어들(어형들)은 무작위로 텍스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는 다른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단어들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연어(collocation)라고 한다. Sinclair(1991)는 연어가 나타나는 공간을 최대한 앞 뒤의 네 단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 범위를 한 문장, 한 문단, 한 문서로 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넓은 범위의 연어 현상을 보통 공기(co-ocurrence)라고 부른다(강범모, 2011:112).

DOI:10.6814/NCCU202100335

연구는 말뭉치 자료를 용례로 활용했을 뿐 그러한 의미 기능의 분포는 집계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 ‘이다’와 ‘是’ 구문을 함께 대조 분석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으며 실제 원어민의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의 사용 양상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가 없다. 서로 대응되는 구문의 실제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언어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가능하며 사용 양상과 분포에 따라 더 실용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DOI:10.6814/NCCU202100335

II. 이론적 배경

1. 계사의 기능 및 유형

1.1. 계사의 통사적 기능

계사의 기능 및 문법적 범주가 언어별로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연구자마다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 계사에 대해 보편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계사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5) 계사의 정의

1) 계사는 어떤 언어에서 술어 핵의 기능을 하는 특정 어휘소와 함께 나타나는 요소로서 계사가 포함된 술어구에 어떠한 의미론적 내용도 추가하지 않는 것이다. (Pustet 2003:5)

2) 불완전한 술어 동사를 계사(copula), 즉 연결 동사라고 한다. 계사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이 단지 주어와 술어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Curme 1931:26)

3) 계사는 '연결 동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절 구조 안의 다른 요소들, 특히 주어와 보어의 연결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동사다. (Crystal, 2008:116)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계사는 계사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Pustet 2003: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계사에 대한 정의는 의미론적 접근보다 형태·통사론적 접근 방법의 시도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Hengeveld(1992:32)는 계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의미적으로 비어 있는 것이고 계사는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며, 계사의 '통사적 기능'이 계사의 존재를 이끈다고 보았다. 계사의 통사적 기능 중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기능을 Pustet(2003:2)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6) 계사의 통사적 기능

1) 주제와 술어 사이의 연결어(linker) 기능.

2) 동사 굴절 범주에 부착할 수 있는 통사적 'hitching post'의 기능.

3) 스스로 술어가 될 수 없는 어휘소에 술어 기능을 부여.

DOI:10.6814/NCCU202100335

이러한 계사의 형태·통사적 기능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가설을 따르는데 바로 연결어 가설(Linker hypothesis)과 더미 가설(Dummy hypothesis)이다. 먼저 연결어 가설에 따르면 계사는 '연결 동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절 구조 안의 다른 요소들, 특히 주어와 보어의 연결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성분을 뜻한다(Crystal, 2008). 이 가설은 연결 동사를 통해 주어와 술어의 일정한 연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 구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에서 특정 유형의 어휘소가 술어 구문의 핵으로 인식될 때만 계사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계사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명사와 형용사가 술어핵으로 기능할 때 계사가 필요한 반면에 동사가 술어핵으로 기능할 때는 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7) 가. This is a cup. 이것은 컵이다.
나. This cup is full. 이 컵은 가득찼다.
다. This cup broke. 이 컵은 깨졌다. [Pustet 2003:2]

예문(7)에서 보면, 영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술어핵으로 기능할 때 모두 계사가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와 한국어의 경우 명사가 술어핵으로 기능할 때만 계사를 필요로 한다.

(8) 가.大明是老師。 대명은 선생님이다. -명사-
나.大明很高。 대명은 키가 크다. -형용사-
다.大明在跑。 대명은 달리고 있다. -동사- [Pustet 2003:3]

(7), (8)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술어핵의 어휘소에 따라 언어마다 계사의 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 타갈로그(Tagalog)어와 같이 계사를 포함하지 않는 언어들도 존재한다. 이에 Pustet(2003:2)은 연결동사의 출현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연결어 가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더미 가설은 연결어 가설과 달리 계사의 출현을 수의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계사가 언어 형태학 범주의 해트랙(hat-rack)이라는 것인데 이는 계사가 의미적으로 비어 있는 추상적 연결 형태소이며, 통사적 자리를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Stassen, 1997:65). Lyons(1968:322)는 계사의 문법적 기능이 시제(tense), 서법(mood), 상(aspect)

DOI:10.6814/NCCU202100335

표시를 위한 표면 구조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어, 그리스어, 라틴어를 그 예로 들었다. 더미 가설은 이렇게 계사를 표층 구조에서 문법적인 표지가 실현되는 장소로 보기 때문에 문법적 요소가 없거나 무표적(unmarked)일 때 계사는 영(∅)으로 나타날 수 있다(Stassen, 1997:66)는 입장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고립어인 중국어에는 동사 굴절이 없으므로 계사가 존재할 수 없으나 실제 중국어에는 '是'라는 계사가 존재한다. 또 터키어와 같이 술어 굴절이 계사가 아니라 술어핵에서 직접 나타나는 언어도 존재하므로 더미 가설 또한 만족스런 설명이 될 수 없다(Pustet, 2003:4). 이렇게 두 가설 모두 계사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특정한 통사적 기능만 수행하는 요소로 간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연결어 가설은 계사의 출현을 필수적으로 보고 더미 가설은 계사의 출현을 수의적으로 본다는 차이점이 있다(탄나나, 2015:4).

계사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능 외에도 술어 위치에 적합한 특정 유형의 어휘소를 만드는 통사적 기능도 한다. 쉽게 말하면, 계사는 스스로 술어 기능을 할 수 없는 비동사 술어(non-verbal predicate)를 주요 술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Hengeveld, 1992:32). 그러나 이 기능 역시 문제점이 존재한다. 영어와 같은 경우 형용사가 술어핵 기능을 할 경우 계사를 필요로 하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 형용사 술어에 계사가 필요 없다. 또 고전 나후아틀어(nāhuatl)에서 의미상 등가를 나타낼 경우 명사 스스로가 술어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영어는 명사 술어일 경우 계사를 반드시 요한다. 즉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 목록이 계사와의 실현과 관련하여 언어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사의 형태·통사적 기능은 개별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계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듯 하다.

1.2. 계사의 의미적 기능 및 유형

계사의 통사적 기능이 다양한 만큼 계사의 의미적 기능 또한 언어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계사는 일반적으로 자체적 의미가 없는 요소로 인식되지만 계사 구문에서 계사는 다양한 의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범언어적 계사의 의미적 기능은 기본적으로 서술구(predicate phrases)에 따라 크게 확인(identificational)과 속성(ascriptive)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Pustet (2003:29)은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하는 기준이 담화 세계에서 언어외적 지시대상의 유일성(uniqueness) 대 비유일성(non-uniqueness)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확인 서술은 어떤

DOI:10.6814/NCCU202100335

특정한 담화 세계에서 오직 하나의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유일성의 개념은 담화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실체에도 적용된다.

(9) 가. This is Sally.
나. This is Alpha Centauri. [Pustet 2003:29]

(9 가)의 술어핵은 'Sally'라는 고유 명사로 구성되어 담화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술어에 해당되는 언어외적 지시 대상이 한 가지 뿐임을 알려주며 청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9 나)의 Alpha Centauri 는 별의 이름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고유 명사는 자주 확인 술어의 핵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속성 술어는 유일성의 개념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측면에서 확인 술어보다 덜 표지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첫째, 속성 술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적으로 단순하다. 그것은 특정한 담화 세계에서 언어외적 지시대상을 확인할 필요없이 단지 특정 상황의 상태를 서술하기 때문이다. 둘째, 속성 술어는 확인 술어보다 덜 복잡한 구조적 장치를 사용한다. 아래의 영어 예문을 보면 속성 술어의 구조가 덜 복잡함을 알 수 있다.

(10)

	명사	형용사	동사
속성술어	가. He is a teacher.	나. It is red.	다. He bought my car.
확인술어	가'.This is John.	나'.It is the red one.	다'.He is the one who bought my car.

[Pustet 2003:30]

(10 가)와 같이 명사핵(nominal nucleus)을 가진 속성 술어는 주어 명사항이 보어 명사항의 일원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0 나)와 같이 형용사적 핵(adjectival nucleus)을 가진 속성 서술은 절의 주어가 술어핵이 표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10 다)와 같이 동사핵(verbal nucleus)을 가진 속성 서술은 전형적으로 특정한 사건을 나타낸다. 또 속성 술어가 덜 표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속성 술어의 전체 담화 빈도가 확인 술어의 담화 빈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담화 빈도는 언어 표지의 복잡한 개념과 관계된 것 중 하나인데 사용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덜 복잡한 언어 형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DOI:10.6814/NCCU202100335

이와 같이 계사 구문의 유형을 확인과 속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NP1 be NP2' 구문에서 NP2 의 지시성(Referential)에 따라 계사 구문을 아래의 표와 같이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학자명	A 유형	B 유형.
	NP2=비지시 (non-referential)	NP2=지시 (referential)
Kruisinga & Erades(1953)	분류(classifiying)	확인(identifying)
Halliday(1967), Huddleston(1971)	내연(intensive)	외연(extensive)/ 동등(equative)
Bolinger(1972b)	비동등(non-equational)	동등(equational)
Lyons(1977)	귀속(ascriptive)	동등(equative)
Gundel(1977)	속성(attributive)	확인(identificational)
Akmajian(1979)	서술(predicational)	명시(specificational)
Declerck(1988)	서술(predicational)	명시(specificational)/ 확인(identifying)

<표> 2 NP1 be NP2 의 유형 [Dikken, 2006:297]

A 유형은 NP2 가 NP1 의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 구문이며 B 유형은 NP2 가 NP1 과 동일한 개체임을 나타내는 확인 구문이다. <표 2>를 보면 계사 구문의 유형 구분에 사용하는 용어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행하는 명사구 NP2 의 지시성에 따라 구문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NP2 의 지시성에 따라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곧 계사 구문이 중의성(ambiguous)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16] 아래 예

[16] Higgins (1979:266-267)는 계사 구문에 나타나는 3 가지 유형의 중의성을 제시하였다.
예) The girl who helps us on Friday is my sister. (금요일에 우리를 돕는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
가. 확인 : 주어와 지시대상, 두 개의 개체를 완전히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서술 :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화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즉, 주어의 지시대상이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를 설명한다.
다. 명시 : 금요일에 당신을 돕는 소녀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나타낸다.

DOI:10.6814/NCCU202100335

문에서도 계사 구문의 중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11) His supper is food for the dog. (그의 저녁 식사는 개를 위한 음식이다.)

가. predicational : His supper serves as food for the dog.

나. specificational: He eats food for the dog for his supper.

[Dikken, 2006:296]

(11)예문은 속성과 확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11 가)와 같이 'food for the dog'이 그의 저녁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11 나)와 같이 그의 저녁식사가 개를 위한 음식으로 구성되었음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Higgins(1979:264)는 상기와 같은 기존의 두 분류의 계사 구문을 의미적 관점에서 특히 주어와 술어의 '지시성'에 따라 다시 4 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지시성이란 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을 가리키며 지시사구, 인칭 대명사, 고유 명사, 한정 명사구 등을 사용하여 지시성을 나타낼 수 있다.

계사 구문 유형		NP1	NP2
a.	Indentificational(확인문)	Referential(지시)	Identificational(확인)
b.	Identity (등가문)	Referential(지시)	Referential(지시)
c.	Predicational(서술문)	Referential(지시)	Predicational(서술)
d.	Specificational(명시문)	Superscriptional(표제)	Specificational(명시)

<표> 3 Higgins(1979:264)의 계사 구문 4 분류

위의 표에서 제시한 계사 구문의 각 유형별 예문은 아래와 같다.

(12) Indentificational(확인문)

가. That（man）is John's brother.

나. That（place）is Boston.

(13) Identity (등가문)

가. 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

나. Dr Jekyll is Mr Hyde.

DOI:10.6814/NCCU202100335

(14) Predicational(서술문)

가. John is a teacher

나. Mary is a pretty girl.

(15) Specificational(명시문)

가. The bank robber is John Thomas.

나. The only people that can help you are the Prime Minister and the Queen herself.

[Dikken, 2006:296]

(12)확인문(Indentificational sentences)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으며 술어 명사구는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박정섭, 2014).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며 (12가, 나)처럼 주어는 지시성 있는 요소로 술어는 고유 명사와 같은 식별성이 있는 요소로 구성된다(Higgins, 1979). 문장의 술어 명사구가 한정 명사구일 경우 확인문과 서술문으로 둘 다 가능하다. 예를 들어 'That woman is the Mayor of Cambridge.'에서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라면 확인문이 되며 그 여자의 직책이나 직업을 기술하는 것이라면 서술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관사 'the'를 삭제할 경우 확인문이 아닌 서술문만 가능하게 된다. 확인문은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교체할 경우 'John's brother is that (man) '과 같이 비문이 된다.

(13)등가문(Identity sentences)은 문장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명사구 사이에 'is' 또는 '='가 있어야 한다. 완전히 개별적인 두 명사구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같은 개체를 지시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는 진정한 지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Higgins 1979:262). 주어 및 술어 명사구 모두 지시성을 지닌 요소로 고유 명사, 대명사 또는 특정 종류의 한정적 명사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등가문은 두 명사구 중에 하나가 이름이고 다른 하나가 대명사인 경우와 둘 다 이름인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cf. 'Sylvia Obernauer is HER.') 청자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대명사로 지칭되는 인물과 동일인임을 알려주고 후자의 경우(cf. 'Dr Jekyll is Mr Hyde.) 대체로 '당신이 NP1 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NP2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박정섭, 2014). 등가문은 'The Evening Star is the Morning Star.'와 같이 주어와 술어의 위치 교체가 가능하다(Dikken, 2006).

(14)서술문(Predicational sentences)은 계사 구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DOI:10.6814/NCCU202100335

유형으로 술어가 정도(degree)로 기술될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며(cf. ‘He is more of a hero than Kelly.’), 명령문(cf. ‘Be a hero!’)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박정섭, 2014). 주어에 지시적 표현이 오고 술어에는 비지시적인 형용사구, 명사구 또는 대부분의 동사구가 올 수 있다(Higgins, 1979:219). 서술문은 확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며 주어와 술어의 위치를 교체할 경우 ‘A teacher is John.’과 같이 비문이 된다.

(15)명시문(Specificational sentences)에서 주어는 어떤 개념 또는 영역을 나타내고 술어는 그 개념과 영역에 부합하는 개체가 무엇인지를 명시한다(박정섭, 2014; Higgins, 1979:213). 즉, 술어는 변항(variable)인 주어의 가치 (values) 를 나타내는데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 혹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어는 표제(superscriptional)[17]로 지시(referential)가 아닌 모든 한정 명사구가 올 수 있고, 술어로는 명사구, 형용사구, 동사구가 올 수 있다. 명시문에서 대상지시어(Deictics)와 고유 이름(proper names)과 같은 지시적 요소는 표제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없다. 명시문은 주어와 술어의 위치 교체가 가능하나(Dikken, 2006) 교체할 경우 ‘John Thomas is the bank robber.’과 같이 표제가 될 수 없는 지시적 요소인 ‘John Thomas’가 주어에 위치하게 되므로 명시문이 아닌 게 된다.

이처럼 Higgins 는 계사 구문을 4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지만, 주어의 지시성 여부만을 고려한다면 지시적인 유형(a, b, c)과 비지시적인 유형(d)으로 양분할 수 있다. 실제로 Moro(2006), Verheugd(1990), Heggie(1988)와 같은 학자들은 계사 구문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서술문’과 ‘명시문’으로 나누고 있다(박정섭, 2014).

그 밖에 보다 많은 계사 구문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Declerck(1988)는 지시에 대한 보다 미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지시 명사구 집합 내에서 약하게 지시하는 명사구와 강력하게 지시하는 명사구를 구분하였다. 그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계사 구문을 서술문(Predicational sentences), 명시적 확인문 (Specificational(ly) identifying sentences), 설명적 확인문(Descriptiona

[17] Higgins(1976)는 명시문의 주어가 지시가 아니라 '표제' 즉, 목록의 제목(heading of a list)과 닮았다고 주장한다. 목록의 제목은 목록이나 목록 안의 항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적이라고 할 수 없다. 명시문의 주어는 속성 지시 주어로서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사구는 어떤 특정한 설명을 나타내고 술어는 그 특정 설명에 맞는 사람이나 대상을 나타낸다. (15)예문에서 ‘The bank robber(은행 강도)’라는 속성 명사구인 변항이 ‘John Thomas’라는 특정 대상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DOI:10.6814/NCCU202100335

lly-identifying sentencees), 등가문(Identity statement), 정의문(definitional sentences), 기타 유형(Other typ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Dixon(2002:29)은 계사 구문이 계사 주어(Copula Subject)와 계사 보어(Copula Complement)라는 두 개의 핵심 논항(core arguments)을 가지며 계사 보어의 성분에 따라 식별(Identity)/등치(Equation), 속성(Attribution), 처소(Location), 소유(Possession), 목적(Wanting), 수혜(benefaction)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Pustet(2003)에서도 계사는 지시와 속성의 두 가지 유형 외에 존재적 술어(Existential predicates), 수량적 술어(Quantificational predicates), 부사적 술어(Adverbial Predicates), 시간적 술어(Temporal Predicates)의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본 바 계사 구문은 범언어적으로 지시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크게 확인과 속성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계사가 확인과 속성의 의미에서 더 확장되어 '존재, 처소, 소유, 목적, 시간, 부사' 등 더 다양한 유형의 계사 구문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계사 '이다'와 중국어 계사 '是' 역시 확인과 속성이라는 기본적인 계사의 기능은 물론 확장된 각각의 독자적인 의미 기능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한·중 계사 구문을 확인과 속성, 두 가지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대조하고 그 외에 어떠한 독자적인 의미 기능이 있는지, 독자적인 의미 기능이 서로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계사의 결합 및 생략

2.1. 계사의 결합

계사가 술어 자리에서 다른 어휘 요소와 결합하여 공기되는 것을 계사화(Copularization)라고 한다(Pustet 2003:7). 계사와 다른 품사의 상호 연계성을 확인하려면 먼저 품사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언어별 품사 부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적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계사의 사용 유무이기 때문이다(Stassen, 1997). 기존의 품사 분류를 보면 통사적 구조와 화용적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DOI:10.6814/NCCU202100335

품사 유형	의미 기능	화용 기능
명사	대상(object)	논항(argument)
형용사	속성(properties)	수식(attribute)
동사	사건(event)	서술(predicate)

<표> 4 기존의 품사 3 분류[이슬기 2019:184]

Croft(1991)의 담화 분석에 따르면 모든 언어에서 세 가지 주요 품사가 각각 특정 모형의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보통 명사는 논항으로, 동사는 술어로, 형용사는 수식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그는 기존의 단순한 품사 분류를 유표성 원리[18]를 이용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의 형태•통사론적 작용의 차이를 설명하고, 품사 구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래 Croft 의 모형에서 제시된 통사적 범주의 분석은 어휘 의미 계층과 화용적 기능의 다양한 조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성의 유형과 구조적 유표성을 예측할 수 있다.

기능 / 의미	Reference(지시) [=argument function, R.P.]	Modification(수식) [=attribution, R.P.]	Predication (서술)
Objects (대상)	UNMARKED NOUNS	genitive, adjectivalizations, PPS on nouns	predicate nominals
Properties (속성)	deadjectival nouns	UNMARKED ADJECTIVES	predicate adjectives
Actions (행위)	action nominals, complements, infinitives, gerunds	participles, relative clauses	UNMARKED VERBS

<표> 5 Croft(1991:67)의 품사 및 화용적 기능 분류

그의 논리에 의하면, 어휘 항목이 전형적인 화용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우, 그것들이 내재된 문법 구조의 복잡성은 낮아지고 어휘 항목이 비전형적인 환경에서 사용될 때 각각의 문법 구조는 복잡해진다. 다시 말해서 명사가 논항 기능을, 형

[18] 유표성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기본 요소는 빈도(Frequency) 원칙과 수량(Quantity) 원칙이다. 빈도수가 높고 구조적으로 덜 복잡한 언어 항목을 무표지(UNMARKED)라고 하며 빈도수가 낮고 더 복잡한 언어 항목을 유표지(MARKED)라고 한다(Pustet2003:17).

DOI:10.6814/NCCU202100335

용사가 수식 기능을, 동사가 술어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품사가 가지는 전형적인 기능이므로 그 구조의 복잡성이 낮아 무표적이라는 것이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품사로서 기본적으로 지시성을 가진다. 따라서 명사가 지시적(Reference)으로 사용될 때 가장 무표적이며 술어로 사용될 때 가장 유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가 술어로 쓰일 경우 계사가 삽입되면서 구문의 구조가 더 복잡해진다.

반면에 동사는 서술어로 쓰일 경우 가장 무표적이므로 계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계사를 포함하는 술어는 계사를 포함하지 않는 술어보다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며 명사 술어는 구조적으로 형용사 술어보다 계사와 표기될 가능성이 더 높다. Croft 는 형용사의 문법적 특성이 명사와 동사의 중간에 속하며 형용사가 술어로 기능할 때도 구조적 유표성에서 명사와 동사 사이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계사와 각각의 품사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명사>형용사>동사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Pustet(2003)은 154 종 언어 용례를 대상으로 계사와 결합 가능한 품사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논리적으로 출현 가능한 총 8 가지 유형 중에서 아래의 4 가지 유형만이 표본에서 입증되었다.

	NOMINALS	ADJECTIVALS	VERBALS
Tagalog	–	–	–
Burmese	+	–	–
German	+	+	–
Bambara	+	+	+

<표> 6 계사와 결합 가능한 품사 유형

(+:술어 위치에서 사용되는 코풀라)Pustet[2003:63]

표본에서 입증된 유형은 타갈로그어(Tagalog)와 같이 계사를 포함하지 않는 유형과 명사만 결합하는 유형, 명사・형용사와 결합하는 유형, 명사・형용사・동사와 모두 결합하는 유형 이렇게 총 4 가지 유형이다. Pustet(2003)은 다수의 표본 언어에서 계사화(copularizing)와 비계사화(non-copularizing) 어휘소 사이의 구분점이 어휘의 의미적 특성에 의한 것이며 '의미(semantics)'는 범언어적 계사의 분포적 다양성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또 계사와 어휘 항목의 공기성은 하나의 보편원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계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명사>형용사>동사

DOI:10.6814/NCCU202100335

의 위계가 있다고 하였다. 구분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모든 어휘는 계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어휘는 계사와 결합될 수 없다. 즉 어떤 언어에서 계사가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면 왼쪽에 있는 형용사, 명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며, 만약 계사가 명사와 결합할 수 없는 언어라면 오른쪽에 있는 형용사, 동사와도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Croft(1991)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사와 다른 어휘의 결합 양상은 범언어적으로 명사>형용사>동사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이다' 구문과 중국어 '是' 구문은 실제 계사와 결합 가능한 보어의 범주가 기존의 3 대 품사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중 계사 구문과 결합 가능한 보어의 확장 양상은 3 장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2.2. 계사의 생략

다음은 계사의 생략에 대한 논의이다. Pustet(2003:34)은 많은 언어에서 계사를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고, 어떤 언어에서는 특정한 문법 환경에서 수의적 또는 필수적으로 생략된다고 하였다. 계사 생략(copula dropping)은 다양한 문법 범주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보통은 현재 시제의 문법적 맥락과 결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러시아어(Russian)의 경우 현재 시제에서 계사는 모두 필수적으로 생략되고 헝가리어(Hungarian)의 경우 과거 시제에서 명사와 형용사 술어는 모두 계사화된다.

현재 시제 외에도 3 인칭 단수가 계사 생략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타르마 케추아어(Tarma Quechuan)의 경우 제 3 인칭 현재 시제 형태에서 계사가 거의 생략되며, 제 3 인칭 과거 시제 형태에서는 흔히 생략되므로 과거 시제 또한 코풀라 생략을 유발할 수 있는 문법 범주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Pustet, 2003:35).

그 외 스와힐리어(Swahili)는 주어가 독립 대명사 또는 지시사일 경우 계사가 생략될 수 있고 펀자브어(Punjabi) 같은 경우 현재 부정어에서 계사가 필수적으로 생략된다고 설명하였다(Bhatia, 1993:83). 모하비어(Mojave)의 경우 절의 복잡성이 계사 생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경향은 만다린어와 인도네시아어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Pustet, 2003:36).

Pustet 은 사실상 모든 형용사가 계사 및 제로 계사와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DOI:10.6814/NCCU202100335

(Macaulay 1996:86) 명사와 형용사가 계사화될 수 있는 몇몇 언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보다 계사를 삭제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설명하였다.

Stassen(1997)은 명사 술어(Presticate Nomal) 표현의 전략을 완전한 계사(Full copula)전략과 제로 계사(Zero copula)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통적으로 명사 술어의 구조는 계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 계사는 명사 술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어휘 항목인데 이러한 계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완전한 계사라고 정의하고 주어와 명사 술어 사이를 연결하는 어휘 표지가 없는 경우를 제로 계사라고 한다. 그는 언어 표본의 관찰을 통해 제로 계사의 최소 분포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어떤 언어가 제로 계사를 허용하는 경우 최소한 3 인칭 주어가 있는 현재 시제의 명사 술어 문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tassen1997:65). 일반적으로 제로 계사는 현재 시제에서만 허용되며, 추가적으로 현재 시제의 3 인칭 심지어는 3 인칭 단수로 제한하기도 한다.

Dryer(2007)는 계사의 생략을 수의적 생략과 필수적 생략으로 나누어 보았다. 일부 언어에서 비동사 술어(non-verbal predicate)일 경우 계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어떤 언어에서는 계사의 사용이 문법적으로 조건화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그는 시제와 인칭 변수 외에도 술어의 종류에 따라 계사의 실현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멕시코 남부에서 사용되는 찰카통고 믹스텍어(Chalcatongo Mixtec)의 경우 계사가 명사 술어에는 필수적이지만, 형용사 술어에서는 선택적이다.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Irian Jaya)에서 사용되는 아유어(Awyu)인 콤바이(Kombai)에는 여러 종류의 비-동사 술어에 붙는 합성 접미사 “-a”가 있는데 명사 술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이며 술어가 ‘This is mine’처럼 소유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인 경우 계사는 필수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외에 극성(polarity), 절의 지위(독립절/종속절)와 같은 통사・의미적 변수, 화계(話階)[19]나 담화 유형과 같은 화용적 변수에 따라서도 계사의 생략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홍재성, 2010). 극성(polarity)이란 긍정과 부정의 대칭을 뜻하는데 앞에 언급한 펀자브어(Punjabi)는 현재 부정어에서 계사가 필수적으로 생략되므로 극성이 계사 생략의 변수로 작용한 경우이다.

또 많은 언어에서 독립절 내의 변수에 따라 계사가 수의적으로 생략되는 것을

[19] 화계(Speech level)는 화자(speaker)가 문장의 종결형에 의해서 청자(hearer)에 대하여 표현하는 대우상(待遇上)의 등급(等級)을 의미한다. 일찍이 Underwood(1980:110)에서는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및 아주 낮춤 등 4 개의 화계로 구분하였다(성지철, 1985).

DOI:10.6814/NCCU202100335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웡키어의 경우 독립절에서 계사가 생략되어도 정문이지만 영어의 경우 계사가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John's father teacher.) 음운적 조건 역시 계사의 생략과 관련되는데 켈트어파(Celtic languages)는 계사에 후행되는 요소의 첫 음운의 성격(자음/모음)에 따른 형태 변이가 있으며 한국어의 경우 계사 '이다'에 선행하는 요소의 종성 유무에 따라 '-이-'가 생략될 수 있다.

이상에서 계사 생략의 조건을 살펴본 바 그 조건이 범언어적으로 다양한 변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문장에 나타나는 한국어와 중국어 계사의 기능과 그 사용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계사의 생략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3. '이다'와 '是'의 문법 범주 논의

3.1. '이다'의 문법 범주 논의

'이다'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이다'의 형태적·통사적 특성으로 인하여 연구자마다 견해가 달라 여전히 학문적 논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한국어 '이다' 구문의 문법 범주는 크게 용언, 조사, 접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용언으로 보는 견해는 지정사설과 계사설이 대표적인데 이는 모두 '-이-'를 용언의 어간으로 보는 관점이다.

최현배(1956)는 '이다'를 '아니다'와 함께 독립된 품사인 지정사로 보았고, 김광해(1983)는 '이다'를 계사로 보았다. 지정사설은 '이다'가 '아니다'와 같이 '무엇이 무엇이다.'와 같이 어떠한 사실을 지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지정사로 따로 분류하자는 주장이다. 최현배(1956)는 핀란드, 벨기에, 몽고, 만주, 일본어의 계사 등 한국어 '이다'에 대응하는 단어를 분석함으로써 비교언어학적으로 '이다'가 선행하는 명사와 함께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실례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독자적인 서술어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람만이다, 선생부터이다.'처럼 선행 명사와 '이다' 사이에 조사가 삽입될 수 있고 '이다'는 '있다'의 변한 꼴이니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최현배,1963).

이에 엄정호(1993:331)는 '이다'가 형태론적으로 접어[20](Clitic)에 속하나 통사

[20] 접어(clitic)라는 용어는 '기울어 짐(leaning)'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음운론적으로 주변 단어(host:주사)에 의존하여 주사(主辭)와 접어가 하나의 형태음소론적 단어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Crystal 1980:80). 예를 들면 "I'm/he's"와 같이 be 의 축약형에서 'I'와 'he'는 주사

DOI:10.6814/NCCU202100335

론적으로는 하나의 동사로 기능하는 것을 보이며 '이다'를 하나의 독립된 단어 즉 지정사로 보아 온 전통적인 견해가 타당하다며 최현배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반면 양정호(2003:256)는 내용면에서 형용사로 보는 입장과 차이가 없으면서도 '이다' 하나만을 위해 지정사를 따로 설정하는 것은 별 이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순조(2001:349) 역시 '이다'가 용언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부정부사 '아니'와 용언 '이다'의 결합에서 '-이-'가 탈락하여 '아니다'가 되었다고 설명한 엄정호(1989:115)의 주장에 '아니다'를 '아니+이다'로 분석할 만한 독립적인 경험적 동기가 없으며 '이다'의 '-이-'가 탈락한 것에 대한 명철한 논증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생략에 있어서 일찍이 이석린(1960)은 독립 품사에는 '어간+어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가 생략되면 '-이-'는 어간일 수 없으므로 독립적 품사로 보기 힘들다며 용언설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다'의 형태적 의존성과 관련하여 목정수(2006)는 '이다'를 용언으로 보면서도 그 의존적 특성 때문에 실질 동사가 아닌 기능 동사로 규정하였다. 즉, '-이-'가 범주적으로 동사 차원의 형식적 어간자리를 차지하는 요소이지만 독립적인 의미 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음운적 환경으로 '-이-'를 생략하더라도 의미 변화가 없고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선행하는 요소 즉, 명사(구)와 통사적 구성으로 결합하고 선행 명사(구)에 따라 하나의 어휘 단위 즉 연어(collocation)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기능 동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와 유사한 견해로 김의수(2002)는 '이다'가 실질 용언이나 접사가 아닌 문장의 서술양식 구현을 위해 동원된 형식 동사(dummy verb)라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이-'가 실질적 의미나 논항 구조를 가지지 않는 점, 선행하는 NP 에 격이 할당되지 않는 점, 그리고 '-이-'가 접사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21] 백봉자

이고 '-m'과 '-s'가 접어이다. 즉, '이다'는 통사론적으로 하나의 단어이지만, 형태론적으로 의존성을 띤 접어로서 형태음소론적으로는 선행 명사구와 더불어 하나의 단어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21] 김의수(2002)는 '-이'가 실질적인 의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선행 명사구에 의해 범주 속성이 좌우되며 그 자체로서는 범주 중립적인 용언이라고 하였다. 또 '학이 두루미이다'에서 '-이'에 선행하는 두 명사 학(NP1)과 두루미(NP2)는 서로 주술 관계를 이루는 소절(SC)이며 이 소절을 '-이'가 보어로 취하는 구조로 '-이'는 논항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다'가 실질동사나 접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어에서 실질동사는 '나는 영희가 좋다'처럼 의미역 배당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어에도 격이 허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다' 구문은 '나는 학생이다' 처럼 선행하는 NP2(학생)에 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는 독자적으로 의미적·음운론적 단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LF(논리형식부, 의미적)접사 혹은

DOI:10.6814/NCCU202100335

(1999) 역시 ‘이다’를 명사나 명사 기능을 가진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동사로 정의하였는데 ‘이다’의 활용은 상태동사(형용사)의 활용과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다’의 활용 형태와 형용사 ‘아니다’와의 연관성 때문에 ‘이다’를 형용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송창선(2007)은 품사를 설정하는 기준이 ‘의미, 기능, 형태’의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볼 때 ‘이다’와 ‘아니다’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이다’를 ‘아니다’와 같은 품사, 즉 형용사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형태적 관련성을 보면 ‘이다’와 ‘아니다’는 모든 활용면에 있어서 일치하고 동사보다는 형용사에 가깝게 활용한다. 또 ‘이다’와 ‘아니다’ 모두 두 자리 서술어[22]이며, 그 앞에 명사구 외에 격조사나 보조사에도 같이 쓰일 수 있으며, 연결어미 뒤나 의문문 뒤에도 함께 쓰이는 등 통사적 환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낱말의 의미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다’를 형용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다’를 용언으로 보는 관점은 ‘이다’가 활용을 하고 통사론적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정곤(2005)에서 지적했듯이 용언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이-’의 선행 명사구에 격표지[23]가 나타날 수 없고 선행 요소와 ‘이다’ 사이에 어떠한 요소도 삽입할 수 없다. 또 조사나 접미사 연결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24]이 일어나고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다’의 어간인 ‘-이-’가 생략된다. ‘이

PF(음성형식부)접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F 와 PF 에서 가지는 의존성이 모두 본질적으로 형식동사 ‘이다’의 의미론적 의존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즉 ‘-이’는 형식동사로서 외현적인 통사부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자격을 지니지만 PF 와 LF 에서는 임시적으로 ‘접사’ 혹은 ‘의존어’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개음화 현상은 ‘이’가 접사라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를 결여한 형식동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2] ‘이다’와 ‘아니다’는 모두 두 개의 논항이 필요한 서술어, 즉 선행하는 명사구 두 개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23] 격표지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어서 굴절어미, 격조사, 어순, 구조적 형상 관계 등이 모두 격표지가 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격조사가 격표지의 기능을 한다. 한국어에서 격조사가 없는 명사구는 격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법 관계’나 ‘의미역’ 등의 개념을 통해서 해당 명사구의 통사적·의미적 위치를 알 수 있다(이호승, 2006). ‘이다’ 구문에서 ‘나는 학생이다’ 처럼 선행 명사 ‘학생’ 뒤에 ‘이/가’,’을/를’ 등의 격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격’이란 ‘명사구가 서술어 혹은 타 명사구에 대해 가지는 문법 관계를 형태적으로 표시하는 체계’를 나타내며 이때 주격과 목적격, 부사격 등은 서술어에 대해 가지는 문법 관계에 해당되고 속격은 타 명사구에 대해 가지는 문법 관계에 해당된다(이선웅, 2012).

[24] 표준발음법 제 5 장 음의 동화에서 보면 구개음화를 ‘받침 ‘ㄷ,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 ‘ㅈ,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라고 설명하고

DOI:10.6814/NCCU202100335

다'를 용언으로 볼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

일부 학자들은 '이다'를 접사로 본다면 용언설의 이 모든 문제점이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접사는 의존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생략도 가능하며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행하는 명사(구)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에 시정곤(2005)은 '이다'를 단어로 보지 않고 통사 구조적으로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통사적 접사로 설정하였다.

안명철(1995)과 고창수(1992)도 '이다'를 단어나 어근 뿐만 아니라 구절 단위에도 접미가 가능한 접사로 보았다. 이석린(1960:48-49)은 조사와 접사는 이름만 다른 동일한 성분으로 보면서 '이다'를 '이, 가, 을, 를, 에'와 같이 선행하는 명사에는 품사적 영향을 주지 않는 술격 접미사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양정호(2003:256)에서 지적했듯이 접사라고 하는 술어가 '이다'의 형태론적 의존성을 잘 포착해 준다하더라도 통사 범주의 명칭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 선행명사가 확대되어 구를 이루고 거기에 '-이-'가 접사화되는 것을 통사적 접사로 본다면 한국어의 모든 조사와 어미가 통사적 접사에 속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목정수, 1998:253). 한정한(2009:119 -120)도 이러한 통사적 파생 접사설에 대해 7 가지의 문제점[25]을 제기하면서 '이다'의 '-이-' 는 파생접사도 될 수 없고 단지 선행 성분에 교착해야 하는 [+의존성] 자질을 가지는 교착접사라고 정의하였다.

그 밖에도 이희승(1959)의 활용 어미설과 장하일(1956:68)의 서술격 어미(임자리 말끝)설이 있는데, 활용 어미설은 '이다' 전체를 어미로 보고 체언이 서술어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면 'ㅣ'는 조사나 접미사가 되어야 한다.

[25] (통사적) 파생 접사설의 문제점(한정한 2009:119-120).

가. '이'는 의미가 있다. 또 '이'의 의미 차이가 격조사 생략의 원인이 된다(남길임 2001:17)

나. '이'와 선행성분 사이에 보조사 '들', '뿐', '만' 등이 파생어 사이에 삽입될 수 있다.

→ 어기와 파생접사 사이에 보조사가 삽입될 수 없으므로 접사설이 문제가 된다.

다. 핵이동에 위배되는 예들이 보인다.→'내가 산 것은 [나무 한 그루]이다'에서 '이'는 핵인[나무]가 아닌 비핵인 분류사 '그루'와 결합된다.

라. 핵이동에 의한 통사적 단어 형성은 단어 형성이 아니라 어절 형성이다. 어절은 통사부의 단위가 아니라 형태부의 단위이다.

마. 파생어의 내부 성분을 다른 통사 성분이 수식할 수 없다. 즉 통사부의 최소 단위(단어)를 통사부에서 생성할 수는 없다(오미라 1991:707).

바. 왜 파생접사가 생략 가능한가?

사. '반대(들)이다'와 같이, 선행어가 NP 가 아니고 N 이면서 보조사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

DOI:10.6814/NCCU202100335

로 쓰일 경우 조사가 아니라 어미가 붙어서 활용한다는 주장이다. 서술격 어미설은 체언에 서술격 어미 '-이-'가 붙으면 서술격이 되고 서술격은 용언의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활용이어서 체언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령형과 진행형, 완료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동사와 형용사처럼 어미만 붙여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라는 서술격 어미를 붙이고 난 후에 어미를 붙여 활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다'를 조사로 보는 견해이다. 우순조(2006)는 '활용'이라는 개념에 따라 형태론적 단위로 간주되었던 한국어의 어미가 실제로는 통사적 단위라고 주장하였다. 즉, 어미란 용언 어간의 뒤가 아니라 서술어 뒤에 온다는 가정을 전제한 것이다(김의수, 2002:882). '이다' 구문에서 명사(구)인 선행 요소가 핵어로서 술어구를 형성하고 '-이-'는 주격조사와 마찬가지로 명사구에 부여되는 시제와 서법 등 문법적 관념을 표상하는 표지가 된다는 주장이다.

최기용(2001:105)은 특수 조사와의 결합 양상에 있어서 주격 조사와 같다는 점을 근거로 '이다'가 주격 조사임을 주장하였다. 주격 조사는 '-만'과 공기될 수 있으나 '-는'과는 공기될 수 없는데 '이다'도 그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26]

정인승(1959)은 '이다'가 내용상으로 실질어가 아닌 형식어라는 점과 기능상으로 어떤 말에 덧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에서 조사와 같은 범주라고 하였다. 김승곤(1986)도 '이다'가 파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접사일 수 없고 체언과 조사, 어미, 부사 뒤에 쓸 수 있는 점을 들어 서술격 조사로 보았으며 현행 학교 문법에서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이다'를 조사로 보는 학자들은 '이다'가 음운론적으로 조사처럼 구개음화가 적용되고 '이'의 생략이 가능하며 체언과 붙여 쓰는 형식형태소라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시정곤(2002:342)은 '이다'를 주격 조사로 볼 경우 '철수가 바보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음운론적 환경으로 인해 '철수가 바보가다'와 같이 '-가'가 실현되야 하지만 '-가'로 실현되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다'의 범주에 관한 견해가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이다'가 형태적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통사적으로 선행하는 체언에 붙어 의존적으로 쓰인다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다'의 문법적 범주를 규정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견해를 정리하면서 '이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

---

[26] (1) 가. 철수만이 영이를 좋아한다. 나. *철수는이 영이를 좋아한다.

(2) 가. 영이를 좋아하는 것은 철수만이다. 나. *영이를 좋아하는 것은 철수는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것이며 '이다'를 한국어의 계사로서 그 확장된 기능 및 형태를 보는 것이므로 '이다'를 용언의 범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2. '是'의 문법 범주 논의

다음은 '是'의 문법 범주 설정에 관한 논의이다. '是'의 문법 범주 설정은 크게 일원론적 견해, 이원론적 견해, 다원론적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일원론적 견해는 '是'의 후행하는 단어의 품사에 관계없이 '是'를 동사로 보거나 부사로 보는 등 하나의 품사로만 보는 견해이며 黎錦熙(1925), 王力(1937, 1947), 高名凱(1992), 丁聲樹(1979), 朱德熙(2007), 呂叔湘(1979), 姚亞平(1981), 陳天福(1995) 등이 이 견해에 속한다.

呂叔湘(1979:90)은 '是'가 판단사(判斷詞)이고 일종의 특수 동사로서 명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술어를 이룬다고 하였다. '是'가 동사, 형용사 앞에서 강조의 기능을 할 때는 부사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그는 '是'의 용법을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是'의 기본 기능은 긍정이고, 연결, 판단, 강조 모두 긍정의 작용으로 보았으며 단지 긍정의 정도 차이일 뿐이라고 하였다. 또 '是'를 전술어(前謂語)라고 정의하였는데 전술어란 술어의 주요부분이 아닌 술어의 일부분으로서 각종 술어 구문에서 실현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전술어는 특히 명사 술어문에서 자주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

陳天福(1995)은 '是'를 판단, 연결, 긍정, 강조를 나타내는 판단 동사(判斷動詞)로 보았는데 사실 판단사와 판단 동사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임시 한어 교육 어법 시스템(暫似漢語教學語法系統, 1956)에서 '是'는 원래 판단사로 정리되어 있었으나 1981 년 하얼빈회의(哈爾濱會議)에서 그 명칭을 '판단 동사'로 수정한 것이다(金海英, 2011). 그는 '是'가 일반동사처럼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동사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명사 앞에서 판단을 나타낼 때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강조를 나타낼 때 부사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27]하며 '是'의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

[27] 陳天福(1995)은 "书又是他拿走的", "茶花真是美"의 예문을 들어 '是'를 부사로 볼 경우 부사(又)가 부사(是)를, 형용사(真)가 부사를 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사와 형용사가 부사를 수식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是'가 부사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사는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다(趙元任, 2010:341; 姚亞平,1981:87).

DOI:10.6814/NCCU202100335

朱德熙(2007) 역시 '是'를 동사로 간주하고 '是'에 후행하는 목적어(賓語)로 체언적(體詞性) 성분과 술어성(謂詞性) 성분이 모두 올 수 있으며 '主語+是+賓語' 형식의 독립절일 때 판단구문을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是'를 동동사(同動詞)[28]라고 정의하거나 특수 동사(特殊動詞)로 분류한 견해가 있는데 동동사란 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그 사물의 종류, 성질, 형태 등에 대해 설명하는 동사를 뜻한다(黎錦熙, 1925). 특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에 대해 설명하는 서술어로서 해설과 분류의 기능을 가지는 동사이다(丁聲樹,1979:83). 이렇게 동사로 보는 견해가 많은 가운데 姚亞平(1981)는 '是'를 부사로 분류하였다. 명사 술어문의 '是'는 판단기능을 하고 비명사 술어문에서의 '是'는 강조의 기능을 하는데 사실 판단과 강조의 '是'는 모두 같은 단어이며 단지 다른 유형의 문장에 분포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사와 '是'의 공통적인 특성[29]을 설명하면서 모든 문장에 나타나는 '是'는 다 (특수)부사이며 문장의 유형이 '是'의 문법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앞에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는 王力(1937, 1947)와 高名凱(1992)은 '是'를 계사로 보았는데 王力(1937)에 따르면 '是'가 계사 '為', '非', '是'중에서 가장 늦게 계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육조(六朝)시대의 작품에서 계사로 기능한 이래로 계속 변화하면서 현대시대에는 거의 모든 문장 안에 '是'가 있을 정도이며 의미 기능 역시 양보, 대조[30]와 같은 기존의 의미 기능보다 더 확장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원론적 관점은 '是'를 동사와 부사, 두 개의 품사로 보는 견해인데 대표적인

---

[28] '這橋是鐵的', '太陽似火'에서 '是'와 '似'는 태양의 동작을 설명하지 않지만 '是'는 다리의 종류를 지정하고 '似'는 태양의 성질을 비유하고 있다. 주어에 대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는 동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동사(同動詞)'라고 명명하였다.

[29] 부사와 '是'의 공통적인 특성을 아래와 같이 4 가지로 정리하였다.

1.'是'와 '不'는 '必定, 也許, 或許' 등의 부사와 같이 어기를 표시하며 주요 성분이 아니다.

2. 다른 부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형용사 앞에 쓸 수 있고 부사와 결합할 수 있다.

3. '我是是工人'과 같이 중첩할 수 없으며 '都是, 一定是' 와 같이 다른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4.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才到清明邊, 天就那麼熱'에서 '才'와 '就'는 종속 관계를, '你是去還是不去'에서 '是…還是'는 선택 관계를, '走是要走的, 可怎麼走呢?'에서 '是…可'는 전환 관계를 나타낸다.

[30] 양보와 대조 기능의 예문(王力, 1937)

'買是買了, 不知道好用不好用'(사기는 샀지만 쓸만한 지는 모르겠다.) -양보-

'風是停了, 雨卻來了!'(바람은 그쳤지만 비가 왔다.) -대조-

DOI:10.6814/NCCU202100335

학자로 黃伯荣・廖序東(1991), 胡裕樹(1995) 등이 있다. 먼저 黃伯荣・廖序東(1991)에 의하면 판단 동사로서의 '是'는 주어와 목적어(賓語)사이에 쓰여서 동일, 분류, 특징, 재질, 상황, 존재 등의 의미 기능을 가진다. 부사로서의 '是'는 '那樣說是可以的.'(그렇게 말해도 된다.)처럼 뒤에 '的'와 함께 결합하여 주어를 묘사하거나 설명한다. 이 때의 '是'는 어기 부사로서 강조의 어기를 가지는데 강조의 '是'는 생략해도 의미적으로 변화가 없다. 같은 의견으로 胡裕樹(1995)는 '是'가 판단 동사지만 '我是昨天找到了這本書.'(내가 어제 이 책을 찾았다.)의 예문처럼 '是'가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는 부사에 속한다고 하였다. '這是公家的'처럼 자주 어기사(語氣詞) '的'와 함께 쓰여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다원론적 관점의 謝永玲(1999)은 '是'가 두 개 이상의 품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겸류사(兼類詞)로서 형용사, 동사, 부사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형용사의 '是'는 문장에서 술어로 쓰여 '정확하다, 그렇다'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동사의 '是'는 응답의 의미로 단독 사용이 가능하며 명사 성분 앞의 '是'는 판단 동사로 기능한다. 그리고 부사의 '是'는 술어 앞에 위치하여 강조와 긍정의 어기를 나타낸다.

趙元任(2010)은 '是'를 동사, 부사, 계사, 형용사 이렇게 4 가지 품사의 겸류사로 보았다. '是'는 동사로서 특수한 성질이 많고 '倒是, 真是, 原是, 正是, 都是'와 같이 어음(語音)상으로 선행하는 부사에 속하여 부사의 접미사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明天是端阳.(내일은 단오절이다)'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가 동등함을 나타낼 경우 '是'는 계사이며 '你說的是.(당신 말이 맞다)'와 같이 '맞다, 그렇다'의 뜻으로 쓰일 경우 형용사이다.

徐泰明(1989)은 '是'를 형용사, 부사, 동사, 조사, 대명사의 성격을 가진 겸류사라고 하였다. 조사 '是'는 동사 앞, 목적어 뒤에 위치하여 원래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위치하도록 도와준다.[31]주요 기능은 긍정의 어기를 나타내는 것이며 생략하더라도 문장의 기본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대명사 '是'는 지시적 대명사로서 '이', '이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며 고대 중국어에서 문장의 주어, 술어, 관형어로 자주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何思成(1984)은 '是'를 동사, 부사, 접속사, 조사, 대명사, 다섯가지

[31] 將虢是灭，何愛於虞?《左傳・僖公五年》
(虢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는데, 어찌 우리 虞나라에 愛情을 두겠습니까?) 《좌전・희공 5 년》
'將虢是灭'는 '將灭虢'의 도치문이며, 조사 '是'를 사용함으로써 목적어인 '虢'를 동사 '灭'앞으로 위치하게 하여 목적어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DOI:10.6814/NCCU202100335

기능을 가지는 겸류사로 보았는데 접속사로서의 '是'는 전환(轉折), 개괄(概括), 선택(選擇)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16) 가. 這件衣服是好，就是價錢太貴了.(이 옷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나. 是好的，我都贊成，是錯的，我都反對.
(좋은 거면 난 다 찬성, 틀린 거면 난 다 반대다.)
다. 今天晚上, 大家是吃麵條, 還是吃米飯?
(오늘 저녁 다들 면을 먹어요, 아니면 밥을 먹어요?)

(16 가)에서 '是'는 전환의 뜻을 나타내며 '雖然'(비록~일지라도), '儘管'(~에도 불구하고)으로 대체할 수 있다. 후행절에는 '但是(그러나), 可是(하지만), 就是(바로~이다), 只是(다만)'와 함께 쓰일 수 있다. 또 (16 나)와 같이 '是'가 개괄, 가정(假設), 조건 등을 나타낼 때는 '只要(~하기만 하면), 如果(만일), 凡(무릇), 一切(모든)' 등과 같은 단어로 볼 수 있다. (16 다)와 같은 의문문에서는 '是'가 주로 '還是(아니면)'와 함께 쓰여 선택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다원론적 견해는 '是'를 세 가지 이상의 품사로 보는 견해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是'의 품사적 성격은 동사, 판단 동사, 계사, 동동사, 특수동사, 부사, 형용사, 접속사, 조사, 대명사 등 다양하다. 그 중 '是'를 동사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본고에서도 '是'의 계사로서의 특징을 중점으로 특수한 기능 및 그 사용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사의 한 분류로 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Ⅲ.'이다'와 '是' 구문의 의미 기능별 특성 대조

유형론적 관점에서 계사는 자체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계사 구문에서 계사는 일반적으로 확인(identificational)과 속성(ascriptive)의 의미를 가진다. 계사 구문은 이 두 가지 의미 외에도 더 다양한 의미 기능을 보이는데 Pustet(2003), 홍재성(2010), 박진호(2012)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계사의 의미 기능 유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저자	구문 유형	예문
Pustet (2003)	1. 확인 술어(identificational predicates)	This is Sally.
	2. 속성 술어(Ascriptive predicates)	He is a teacher.
	3. 존재적 술어(existential predicates)	There is coffee in the kitchen.
	4. 수량적 술어(Quantificational predicates)	There are three.
	5. 부사적 술어(Adverbial Predicates)	The key is here.
	6. 시간적 술어(Temporal Predicates)	It is eight o'clock.
홍재성 (2010)	1. 확인문	김정식은 김소월이다.
	2. 속성 서술	그의 눈은 푸른색이다.
	3. 분류문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4. 사건 서술	기차는 곧 출발이다.
	5. 소재 서술	동생 방은 이층이다.
	6. 무술어 계사문	나는 짜장면이다.
	7. 무주어 계사문	어!. 코피네.
	8. 관용 표현	이게 웬 떡이냐?
박진호 (2015)	1. 집합 소속(class membership, ascriptive)	철수는 학생이다.
	2. 동일 (identificational)	이 사람이 바로 철수이다.
	3. 처소 서술(locational)	나 지금 동대문이야.
	4. 존재(existential)	산 위에 온통 눈이다.
	5. 제시(presentational)	앗. 비다./ 도둑이야.
	6. 시간(temporal)	8 시다. / 아침이다.
	7. 수량(quantificational)	우리 일행은 전부 셋이다.
	8. 부사적 서술(adverbial predication)	He is from Korea. / The gift is for

DOI:10.6814/NCCU202100335

		him.
	9. belong-type 술어적 소유(possessional)	Ce livre est à Moi. (프랑스어)
	10. 처소 소유(lacational possessive)	나에게 차가 있다.
	11. 주제 소유(topic possessive)	나는 차가 있다.
	12. with 소유	Child is with knife.
	13. 형용사 서술(adjectival predication)	She is pretty.
	14. 동사 서술(verbal predication)	I am leaving.
	15. 분열문(cleft sentence)	어제 철수가 만난 것은 영희이다.
	16. 관련성(relatedness, illogical)	철수는 짬뽕이야.

<표> 7 계사 및 '이다' 구문의 유형 분류

학자마다 사용한 계사 구문 유형의 명칭은 다르지만 박진호(2012)의 분류 체계가 Pustet(2003)의 체계와 관용 표현을 제외한 홍재성(2010)의 분류 체계를 모두 포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ustet(2003)의 '부사적 서술'과 박진호(2012)의 '형용사 서술, 동사 서술, 술어적 소유, 처소 소유, 주제 소유, with 소유'는 한국어나 중국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 연구들은 모두 범언어적 관점에서 계사의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을 대조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론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아닌 '이다' 구문의 기능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는 '이다'의 특수한 의미 기능을 알아보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다' 구문의 의미적·통사적 기능 분석에 중점을 두고 구문의 유형을 분류한 대표적인 논의로 남기심(1986)과 남길임(2004)을 들 수 있다. 두 연구에서 제시한 '이다' 구문의 유형 및 예문은 아래 표와 같다.

저자	구문 유형		예문
남기심(1986)	분류문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샛별이 금성이다.
	유사분류문		침묵이 금이다.
	비분류문		동쪽이 산이다. 내차가 고장이다. 순이가 밥이다.
남길임(2004)	명제적 구문	지시적 구문	그 사람이 철수다.

DOI:10.6814/NCCU202100335

		중의적 구문	그는 김철수다.
		속성적 구문	철수가 요즘 한창 사춘기다.
	양상적 구문	양태 구문	비가 올 모양이다.
		상적 구문	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기타 구문	관용 구문	쟤는 아주 밥맛이야.
		상황 의존적 구문	난 커피다.
		현장 발화적 구문	와! 눈이다.

<표> 8 '이다' 구문 하위 유형

남기심(1986)은 주어와 보어로 나타나는 명사 사이의 상관 관계에 따라 '이다'를 분류문(分類文), 유사분류문(類似分類文), 비분류문(非分類文)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N1 이 N2 이다'라는 문형에서 N1 위치의 명사와 N2 위치의 명사 사이에 일정한 순위가 있으며 그 순위는 두 명사들 사이의 상관 관계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분류문에서 두 명사항은 N2가 N1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거나 N1과 상등 개념을 나타내는 관계이며, 유사분류문은 'N1 이 N2 와 같다'는 뜻의 은유적 표현으로 일시적으로 분류문의 형식을 취하는 구문이다.

비분류문은 존재문 또는 상황의존적 구문과 같이 기본적인 '이다' 구문이 아닌 다른 문형에 대응되는 '이다' 구문을 말한다. 이 유형은 적절한 문맥이 주어지면 '이다' 구문과 대응되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대응관계가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와 보어 명사항 사이의 관계 규정이 불가능한 구문이다.

남길임(2004)은 보어 명사항 NP2 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계사 구문 유형을 크게 명제적 구문, 양상적 구문, 기타 구문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 하위 유형을 상기 표와 같이 8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상위 <표 7>. <표 8>과 같은 기존 연구의 의미 기능을 조합하여 '이다' 구문의 의미 기능을 확인 구문, 속성 구문, 존재 및 소유 구문, 수량 및 시간 구문, 분열문, 양상 구문, 관용 구문, 제시 구문, 상황의존적 구문 등 9 가지로 분류할 것이다.

3 장에서는 '이다'의 9 가지 의미 기능과 그에 대응하는 '是' 구문을 알아보고 의미 기능에 따른 통사적 결합 구조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DOI:10.6814/NCCU202100335

1. 확인[32] 구문

계사는 명사 술어문에서 서술어로 쓰여 정체성과 속성을 나타낸다. 정체성은 다시 지시(Presentation)와 동일(Equation)서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기혁, 2007) 확인 구문은 이렇게 두 명사항이 동일한 개체 혹은 개념임을 지시하는 정체성 문장을 말한다.

(17) 가. 그가 영수이다.
나. 금성은 샛별이다.
다. 저 학교는 내 모교(이)다.

(17 가)는 주어 명사항인 '그'가 '영수'임을 지시하고 (17 나)는 주어 명사항인 '금성'과 보어 명사항인 '샛별'이 동일한 개체임을 나타낸다. 확인 구문은 NP1 과 NP2 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므로 두 명사항의 위치를 서로 바꾸더라도 문장이 성립된다.

(18) 가. 영수가 그(이)다. ⟷ 그가 영수(이)다.
나. 샛별은 금성이다. ⟷ 금성은 샛별이다.
다. 내 모교는 저 학교(이)다. ⟷ 저 학교는 내 모교(이)다.

확인 구문에서의 통사적 결합 양상을 살펴 보면, 주어 자리에 (17 가)대명사, (17 나)고유명사, (17 다)지시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올 수 있다. 이 유형의 구문은 두 명사항의 위치 교체가 가능하므로 보어 자리에도 주어와 같은 성분이 올 수 있다. 대명사, 고유명사, 지시관형사 등은 모두 어떤 개체를 한정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다. 확인 구문에서는 이처럼 두 명사항 모두 지시적 명사(구)가 쓰여 각각 주어 명사항과 동일한 개체를 지시하고 있다.

한편, 고유 명사나 대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가 문맥에 의해 지시적 해석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남길임 2004:58).

---

[32] 임근석(2009:140)은 '확인'의 의미를 두 명사항이 완전히 동일한 지시물을 가르키는 것은 물론 그 지시물이 담화 세계에서 유일한 경우로 보았으며 '속성'은 두 개의 지시 X, Y가 있고 Y는 X의 지시물의 여러 특성 중 하나를 가르키는 경우로 보았다.

DOI:10.6814/NCCU202100335

(19) 가. ‘love’는 ‘사랑’이다.
나. ‘삼촌’은 ‘아버지의 남자 형제’(이)다.

(19 가)에서 ‘사랑’은 ‘사랑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태를 나타내지 않고 ‘love’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사랑’이라는 어휘 자체를 지시하므로 구문 의존적으로 지시적인 해석을 가지게 된다. (19 나) 역시 같은 맥락으로 ‘아버지의 남자 형제’ 자체에 지시적 의미가 없지만 ‘삼촌’과 ‘아버지의 남자형제’는 어떤 의미 영역 자체를 동일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시적 해석을 가진다. 또 주어와 보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적 차이가 없으므로 (19)와 같이 동일한 뜻의 말로 바꾸어 말하는 환언 또는 낱말을 정의하는 정의문 역시 확인 구문에 포함할 수 있다.

중국어 ‘是’ 구문의 경우, 認同(周洪波, 1992), 等同(范曉,1999), 同一(張寶林, 2002)구문이 모두 한국어의 확인 구문에 해당된다. 이 때 ‘是’ 구문은 ‘NP1是NP2’의 격식을 가지며 여기서 ‘是’는 두 자리 동사(二價動詞)로서 반드시 두 개의 명사(구)가 필요하다. 하나의 명사항만을 가졌을 경우 의미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구문이 된다(金家恒,2004). 중국어의 확인 구문도 주어와 보어가 가르키는 대상 및 범위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선·후행 명사구의 위치가 바뀌어도 기본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20) 가. 《阿Q正傳》的作者是魯迅. 《아Q정전》의 작가는 노신이다.
나. 台北是台灣的首都.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이)다.
다. 我弟弟是他. 내 동생이 그(이)다
라. 一分鐘是60秒，一個小時是3600秒. 1분은 60초, 1시간은 3600초다.
마. 我們的任務是努力學習.[33] 우리의 임무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바. 那是大錯，不是小錯.[34] 그것은 큰 잘못이지 작은 잘못이 아니다.

확인 서술의 ‘是’ 구문은 보어 자리에 (20가)고유명사, (20나)(‘的’자)명사구, (20

[33] 예문(20 마)는 (鄭蔓威, 2001:32)에 나오는 예문으로 그 구조를 ‘주어+是+동사구’로 보고 있으며 呂叔湘(2007)에서도 같은 구조의 예문으로 ‘我們的任務是守衛大橋’를 제시하고 있다.
[34] 예문(20 바)는 呂叔湘(2007:499)에서 제시한 예문으로 그 구조를 ‘주어+是+형용사구’로 보고 있다.

DOI:10.6814/NCCU202100335

다)대명사, (20 라)수량사, (20 마)동사(구), (20 바)형용사(구)가 올 수 있다. 두 명사항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므로 주어에 올 수 있는 성분 역시 보어와 같다. 여기서 주어와 보어는 모두 한정 성분으로 한정적 수식어를 가질 수 있는데, 그 한정성(限定性)이 강하고 구체적일수록 수식을 받는 명사구의 지정성(定指性)이 높아진다(周洪波, 1992). 특히, '惟一'(유일한), '最'(가장), '第一'(제일)과 같은 극한값(极限)을 나타내는 단어가 수식어라면 수식을 받는 명사구는 강한 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유형의 구문도 확인 구문으로 볼 수 있다.

(21) 가. 香雪是台儿沟唯一考上初中的人。
향설은 태아골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유일한 사람이다.
나. 台儿沟唯一考上初中的人是香雪。[35]
태아골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유일한 사람은 향설이다.

(21 가)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사람'(考上初中的人) 앞에 '유일하다'(唯一)라는 극도의 수식어로 보어를 한정하였다. 한정적 수식어로 보어를 수식함으로써 주어인 '향설'과 '중학교에 진학한 유일한 사람'이 동일한 개체임을 강조하였는데 이 경우 (21 나)와 같이 선후행 명사구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은 의미적·구조적으로 모두 확인 구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확인 구문은 '이다'와 '是' 구문에 모두 존재하는 의미 기능이며 두 구문이 서로 대응을 이룬다. '정의'나 '환언'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지시적 구문 역시 '是' 구문과 대응을 이룰 수 있다.

(22) 가. 그가 영수이다. → 他是永秀.
나. 금성은 샛별이다. → 金星是啓明星.
다. 저 학교는 내 모교(이)다. → 那所學校是我的母校.
라. 'love'는 '사랑'이다. → 'love'是'愛'.
마. '삼촌'은 '아버지의 남자 형제'(이)다. → '叔叔'是'父親的兄弟'.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 구문에서의 '이다'와 '是' 구문은 모두 주어와 보어를 문법적으로 연계해 주고 두 논항의 동일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

[35] (21 나)예문은 의사분열문이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의사분열문 역시 확인 구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논문 P62 참조.

DOI:10.6814/NCCU202100335

때 주어와 보어의 순서를 바꾸는데 아무 제약이 없으며 주어와 보어가 동일한 개체를 지시할 때 한•중 계사 구문은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룰 수 있다. 다만, 주어와 보어의 결합 양상에 있어서 '이다' 구문은 명사(구)와만 결합하는 반면에 '是' 구문은 명사(구)를 비롯하여 동사(구), 형용사(구)까지 더 다양한 결합 양상을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2. 속성 구문

속성 구문은 주어 명사항이 어떤 집합의 일부임을 나타내거나 주어 명사항의 특성 또는 상태, 속성을 설명하는 구문이다. 확인 구문과 같이 어떤 개체를 지시하거나 유일성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보어 자리는 비지시적 성분으로 구성된다.

(23) 가. 철수는 학생이다.
나. 철수는 지금 사춘기다.
다. 가을 하늘이 진한 푸른색이다.
라. 나는 다음 주에 돌아갈 예정이다.
마. 지금은 모두들 어려운 상황이야.
바. 나는 이번일에 반대다.
사. 방안이 엉망이다.
아. 그는 처음부터 나에게 호의적이었다.
자. 나는 영수와 친구야.
차. 국물 맛이 아주 그만인데요.
카. 선희는 요즘 영어 공부에 열심이다.
타. 침묵은 금이다.

속성 구문에서의 통사적 결합 양상을 살펴 보면, 우선 주어의 자리에 (23 가,나,카) 고유명사, (23 라,바,아,자) 대명사, (23 다,사) 명사구가 올 수 있다. 보어 자리에는 (23 가,나,타)명사, (23 다,라,마)명사구, (23 바) 서술 명사, 23(사) 상태 명사 (23 아) '-적' 명사, (23 차) 부사, (23 카) 어근성 명사[36] 등 다양한 결합 양상을 보

[36] 남길임(2004)에서 '열심, 다행'은 '열심히, 다행히'에서 온 어근으로 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하고 주로 '이다'와만 함께 쓰이므로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열심이다, 다행이다'는 하나의 단위로 보

DOI:10.6814/NCCU202100335

이는데 모두 주어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23 가)의 '학생이다'는 주어인 '철수'가 가진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NP1 은 NP2 에 속하는 부분집합으로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구문은 남기심(1986)의 '분류문'에 해당되며 NP1 과 NP2 가 동일한 개체를 지시하는 구문이 아니므로 '학생은 철수이다'와 같이 명사항의 위치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예문(23 나)~(23 타)는 주어와 보어의 관계를 포함 집합관계로 볼 수 없으며 '이다'에 선행하는 성분 및 통사적 특징도 (23 가)와 차이가 있다. 남길임(2004)에서 상위와 같은 속성[37]구문을 그 통사적 특징에 따라 '[속성적]NP 구문 1', '[속성적] NP 구문 2', '[속성적] N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통사적 특징	예문
[속성적]NP 구문 1	• 관형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구문. • '아니다'로 어휘 부정 가능. • NP2 는 주어가 지시하는 개체의 객관적인 존재 양식이나 속성을 서술하는 구문.	가을 하늘이 (진한) 푸른색이다.
[속성적]NP 구문 2	• 관형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문. • '아니다'로 부분적 어휘 부정 가능. • NP2 는 주어의 심리 상태 또는 심리 상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외적 상태나 상황을 나타냄.	다음 주에 돌아갈 예정이다.[38]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열심, 다행'을 '어근' 또는 '어근성 명사'로 분류하였으나『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명사'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처리에 따르면 '-이-'앞의 범주에서 어근을 제외하게 되어 문법 기술이 단순해지는 이점이 있다(Jin Huihui • 이선웅, 2015).

[37] 여기서 [속성적]구문은 [지시적]구문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속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물의 본유적 특성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나 상황, 주어의 심리적 상태까지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남길임 2004:100).

[38] 속성적 NP2 구문은 형태가 양태 구문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듯하나 양태 구문과 다른 구조를 가진다. 여기서 '모양이다, 예정이다'는 보조 동사 구성이 아니고 '예정, 모양' 등 명사 자체의 어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으며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양태 구문과 의미, 통사적으로 다르다. 반면에 양태 구문인 '철수가 배가 아픈 모양이다'에서 '모양이다'는 선행 명제 '철수가 배가 아프-'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며, 주어인 '철수가'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어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구문은 차이가 있다(남길임, 2004:116-119).

DOI:10.6814/NCCU202100335

[속성적]N 구문	• 상태성 명사, 서술성 명사[39]가 '이다'와 결합하여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서술할 경우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 '-적'명사, 어근성 명사, 관계 명사와 결합.	난 이 일에 반대다. 방안이 엉망이다. 영화가 인상적이다. 매사에 열심이다. 철수는 나와 친구다.

<표> 9 '이다' 속성 구문 하위 유형

[속성적]NP 구문 1 은 주어 명사항이 지시하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속성들을 표현하는 구문이다. 객관적인 속성은 주어가 지시하는 개체가 지니고 있는 시•공간적 상태, 모양, 객관적 가치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주어가 가지는 의도, 판단, 느낌이나, 행위, 주관성 상황과 같은 주관적인 주어의 일시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주관적인 속성과 구분된다. 예문(23 나,다)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23' 나,다)와 같은 중주어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3) 가. 철수는 지금 사춘기다.
나. 가을 하늘이 진한 푸른색이다.
(23') 가. 철수는 지금 시기가 사춘기이다.
나. 가을 하늘이 색깔이 진한 푸른색이다.

위에서 두번째 명사항인 '시기, 색깔' 등은 모두 어떤 개체의 존재양식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어휘이다. 이와 같이 중주어구문이 가능하다는 것은 [속성적]NP 구문 1 이 객관적 속성을 나타내 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속성적] NP 구문 2 는 NP2 가 주로 주어의 심리 상태 또는 주어의 내적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외적 상태나 상황을 나타낸다.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표제 명사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내적 심리와 외적 상태의 구분이 가능하다. (23 라)와 같이 '예정, 작정, 생각, 각오, 심정, 기분, 느낌' 등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어

[39] 서술성 명사는 '이다'와 결합하여 '이다'가 '하다'란 동사를 대치하는 것으로서, 찬성, 반대, 지지, 주먹질, 안달, 발길질, 딴소리, 후회, 거짓말, 독촉, 오해, 탈출, 착각, 성공, 배신, 칭찬, 고집, 불평, 불만, 실망 등이 있다.

상태성 명사는 '이다'와 결합하여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행복, 다행, 불행, 최고, 질색, 법석, 만족, 마찬가지, 수고, 고생, 유감, 영광 등의 명사가 이에 속한다.

DOI:10.6814/NCCU202100335

휘가 오면 내적 심리를 나타내고 (23 마)와 같이 '상황, 표정, 태세, 기세, 눈빛, 처지, 형편' 등의 모습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어휘가 올 경우 주어의 외적 상황을 나타낸다.

[속성적]N 구문은 '이다'에 선행하는 명사항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서 명사구 확장이 불가능한 구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명사+이다'가 문법적•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여 동사, 형용사처럼 서술어로 실현되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보다 부사어의 수식이 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

(23 바,사)의 '반대다'와 '엉망이다'는 지시관계나 포함관계 또는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명사 '반대'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 논항 '이번 일에'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반대'는 '이다'와 함께 자신의 논항을 문장내에 실현시키고 '반대하다'와 같은 의미인 하나의 서술구로 기능한다. 마찬가지로 상태성 명사 '엉망'도 '이다'와 함께 주어의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같이 하나의 서술구로 기능한다.

(23 아) '-적'명사는 의미적 특성상[40] 항상 어떤 대상의 특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는데 주로 '으로, 이다'와만 함께 쓰인다. 따라서 '-적'명사+'이다'는 주어 명사항의 특성,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진다.

(23 자)는 '관계 명사+이다'로 '친구, 형제, 자매, 관계, 사이…'등의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이다'와 같이 쓰여 'NP 와' 꼴의 새로운 명사항을 요구하며 항상 속성적으로만 해석되는 구문이다. (23 차) '부사+이다'는 원래 부사의 의미에서 다소 벗어난 의미를 가지는 한 의미 단위[41]로서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양상을 나타내는 구문이다. 국어에서 부사는 일반적으로 '이다'와 자유롭게 쓰이

---

[40] '-적'(的)은 한자어 뒤에 붙는 접미사로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 보격 조사 '이', 부사격 조사 '으로'에만 국한되고 주격과 목적격은 결합되지 못한다. '*학교적, *의자적'과 같이 구체적 대상을 표시하는 말과는 결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그는 매우 인간적이다'와 같이 '인간적' 앞에 '매우'가 붙는 것은 그것이 정도의 의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는 선행하는 명사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접사라 할 수 있다(남기심•고영근 2014:226-227). 이러한 정도성 외에도 접미사 '적'의 의미는 도식성, 속성화, 어기(語基, 또는 어근)의 속성이 풍부히 있거나 그 속성에 가까움, 어기(語基)의 성질 상태가 있음으로 정리된다(김기혁, 2007:43).

[41] 부사 '그만'의 의미는 '그 만큼만, 그대로 곧' 등인데 (23 차)처럼 '그만이다'의 형태로 쓰일 때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좋다'는 의미로 그 의미가 '그만'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정도, 김선혜, 2009).

DOI:10.6814/NCCU202100335

지 않으나[42] ‘물론, 그만, 제법, 별로…’등의 일부 부사는 다른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고 항상 ‘이다’와 함께 하나의 서술어와 같이 기능한다.

(23 카) ‘열심이다’의 ‘열심’은 ‘열심히’에서 온 어근으로 조사와 결합이 불가능하고 주로 ‘이다’와만 함께 쓰이며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다’에 선행하는 어근이나 부사는 서술적 효력이 있는 ‘이다’가 취하는 논항이라기보다 ‘이다’가 일정한 현상이나 상태 자체를 그대로 제시하는 용법이라고 볼 수 있다(임동훈, 2005).

‘이다’에 선행하는 성분으로 서술명사, ‘-적’명사, 관계 명사, 부사, 어근 명사 등 보어 범주가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모두 [속성적]N 구문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고 어휘 의미적으로 어떤 개체의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어 ‘명사+ 이다’가 형용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3 타)는 포함관계가 아닌 은유적 표현으로 남기심(1986)에서 유사분류문이라고 정의한 구문이다. 유사분류문은 ‘N1 이 N2 와 같다’, ‘N1 이 N2 로 쓰인다’, ‘N1 이 N2 의 역할을 한다’ 등의 뜻으로 풀이가 되며 적절한 문맥이 주어지면 거의 제약없이 어떤 명사나 주어와 보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문맥[43]에 따라 분류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 중의성이 문제로 남는다고 하였다. 비유는 어떤 사물에 대해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사물을 끌어들여 빗대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주어의 성격 및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길임(2004)의 분류에 따라 ‘[속성적]NP 구문 1’, ‘[속성적] NP 구문 2’, ‘[속성적] N 구문’에 속하는 모든 유형과 유사분류문인 비유 구문을 모두 속성 구문으로 분류할 것이다.

중국어 ‘是’ 구문의 경우 ‘歸類’(분류), ‘特徵’(특징), ‘質料’(재료), ‘描寫’(묘사), ‘說明’(설명), ‘比喻’(비유) 등이 모두 속성 구문에 속한다. 분류(歸類)는 주어가 가르키는 개체가 보어가 나타내는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이 때 보어는 유(類)의 개

---

[42]모든 부사가 ‘이다’ 앞에 선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정도 • 김선혜(2009)은 ‘21 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약 1,000 만 어절 규모의 문어 형태 분석 말뭉치를 사용하여 ‘부사+ 이다’의 용례를 추출하였다. 그 중 빈도가 2 이상인 부사를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이다’와 공기 가능한 부사들을 분석해보면 주로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진열, 2012).

- 시간부사: 우선, 잠시, 금방, 언제, 오래
- 양태부사: 꼭, 각각, 들쭉날쭉, 거꾸로, 싱글벙글, 멋대로, 홀로, 제멋대로, 어느새, 왜, 하필
- 정도부사: 가득, 별로, 제법, 딱, 되도록, 고작, 그만

[43] ‘순호는 몽당연필, 고무지우개, 손톱깎이 등을 고무줄 새총에 끼워 쏘아댔다. 그러나 모든 총알이 다 목표물에 빗나갔다’에서 문맥상 ‘몽당연필이 총알이다’라는 분류문으로 볼 수 있다. 주어지는 문맥이 없이는 ‘몽당연필이 총알’이라는 문장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남기심 1986:8).

DOI:10.6814/NCCU202100335

념을 나타내고 주어는 속(屬)의 개념을 나타낸다(劉月華외, 2001). 즉, 주어가 보어의 성원 중 일원임을 나타내는 집합관계이므로 두 명사항의 위치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24) 가. 這棵樹是桃樹. 이 나무는 복숭아나무(이)다.
나. 我是中文系的學生. 나는 중국어과 학생이다.
다. 李老師是教語法的(=教書的人). 이선생님은 어법을 가르치신다.
라. 這本書是他前年寫的(=他前年寫的書). 이 책은 그가 재작년에 쓴 것이다.

(24)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어 자리에 명사(구), 대명사가 올 수 있고 보어 자리에 명사(구)와 '的'자구가 올 수 있다. '的'자구는 (24 다)와 같이 '주어+是+동사/형용사+的' 또는 (24 라)와 같이 '주어+是+소절+的'와 같은 구성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的'자구 뒤의 명사는 생략한다.

다음은 특징(特徵)및 재료(質料)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周洪波(1992)에서는 묘사문(描寫)으로 정의된 바 있다. 보어는 주어의 성격과 특징, 재질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是'에 후행하는 명사에는 수식어가 붙는다.

(25) 가. 小李是瘦高個兒. 이 군은 마르고 큰 키(이)다.
나. 陰曆七月是最熱的天氣. 음력 7 월은 가장 더운 날씨(이)다.
다. 那兩套茶具都是唐山瓷. 그 두 세트의 다기는 모두 당산 자기(이)다.

이 유형의 문장은 주어와 보어 자리에 명사(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是'에 후행하는 명사에 '마르고 큰', '가장 더운', '당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주어의 특징적인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5 나)와 같이 '가장 더운'이라는 극한값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는 확인 구문으로 간주하였다.[44]

설명문(說明)은 둘 이상 개체의 주어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는 구문으로 (周洪波, 1992) 한국어의 '관계 명사+이다' 속성 구문과 같은 것이다.

---

[44] 呂叔湘(2007)에서도 아래와 같이 극한값 '最'(가장/제일)의 수식을 받은 경우 주어와 보어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으므로 동일(同等)구문으로 구분하였다.
예) 가. 他最佩服的是你.(그가 가장 탄복한 사람은 너이다.)
나. 你是他最佩服的(너는 그가 가장 탄복한 사람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26) 가. 他們是多年的師兄弟. 그들은 오랜 선후배(이)다.

나. 軍隊和老百姓是一家人. 군대와 백성은 한 가족(이)다.

예문에서 보면 주어가 '그들', '군대와 백성'과 같이 복수의 표현이 오고 보어 자리에 '선후배', '가족'과 같은 복수 명사가 나온다. 여기서 주어는 보어가 가리키는 구성원의 일원이 아니라 주어가 가리키는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다는 점에서 분류문과 구별이 된다.

비유문[45](比喻文)은 주어와 보어의 비유 관계를 나타내는 구문이다. 복잡한 내용의 구문을 '是'와 몇 개의 중심 단어의 조합으로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어 경제성과 간결성을 실현하는 구문이라 할 수 있다(劉月華외, 2001:681).

(27) 가. 我們是祖國的未來，祖國的希望. 우리는 조국의 미래요, 조국의 희망이다.

나. 時間就是生命. 시간이 곧 생명이다.

상기 예문에서처럼 보어 자리에 명사(구) 또는 '的'자구가 올 수 있으며 두 명사항 사이에는 객관적인 의미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화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관계를 맺는다(이슬기, 2019). 周洪波(1992)에서는 비유문을 묘사문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是'가 문장에서 비유를 나타낼 때는 '像'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像'으로 대체할 경우 기본적으로 의미는 일치하지만 비유의 유형이 달라진다. '是' 구문은 암시적 비유(은유)이고 '像'자문은 명시적 비유(직유)에 속한다.

지금까지 한·중 두 구문의 속성서술 구문을 살펴본 바 '-이다'와 '是' 구문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언어만의 독특한 용법과 구조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속성을 나타내는 '이다' 구문이 어떠한 경우에 '是' 구문과 일정한

---

[45] 중국어에서 비유는 직유(明喻), 은유(暗喻), 차유(借喻)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是' 구문은 은유에 속하는데 은유는 직유보다 실체와 비유 대상의 관계가 더 긴밀한 것을 나타내며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은유와 직유는 문장에서 실체와 비유대상이 모두 다 나오지만 차유는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 실체가 나와야 할 자리에 바로 비유 대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 每朵花都像一團燒得正旺的火焰.(꽃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같다) - 직유-

老師的一番話是一把鑰匙.(선생님의 말씀이 하나의 열쇠(이)다) - 은유-

魯迅在一篇文章哩，主張打落水狗.(노신은 글에서 落水狗를 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유-

여기서 '落水狗'는 공격 당한 적을 비유한 것이다.(黃伯荣·廖序東, 1991)

DOI:10.6814/NCCU202100335

대응관계를 보이고 어떠한 경우에 비대응 관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28) 가. 철수는 학생이다. ≠ 학생은 철수(이)다.
가'. 哲洙是學生. ≠ 學生是哲洙.
나.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 포유동물은 고래다.
나'. 鯨魚是哺乳動物. ≠ 哺乳動是鯨魚.

(28)과 같은 분류문은 한·중 계사 구문에 모두 존재하며 의미 기능 및 통사적 구조에서 유사한 점을 보인다. NP1 은 NP2 부류에 소속되는 하나의 구성원임을 나타내므로 NP1 과 NP2 는 동일한 범주의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두 명사항이 포함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위치를 대치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일한 범주의 성분이란 NP1 이 유정명사일 경우 NP2 역시 유정명사이어야 하고 NP1 이 무정명사일 경우 NP2 역시 무정명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두 구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며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구문은 서로 대응관계를 형성한다.

[속성적]NP 구문 1 에 속하는 (29)는 주어 명사항이 지시하는 개체가 지니고 있는 객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중국어의 묘사문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아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속성적 NP 구문 1'은 '是' 구문과 대응 양상을 보인다.

(29) 가. 철수는 지금 사춘기다.
가'. 哲洙現在是青春期.
나. 가을 하늘이 진한 푸른색이다.
나'. 秋天的天空是深藍色的.

이 유형의 구문은 '이다'에 선행하는 성분이 명사 또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로 구성된다. 중국어 묘사문에서 '是'에 후행하는 성분 역시 명사 또는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자리한다. '이다'와 '是' 모두 한·중 언어의 계사로서 명사 술어와 주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보어의 성분이 모두 명사(구)로 구성되는 구조적인 유사점과 보어 명사항이 주어의 특성을 설명한다는 의미적 유사점으로 인해 '이다'와 '是' 구문의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속성적]NP 구문 2 는 관형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문으로 의미적으로는 주

DOI:10.6814/NCCU202100335

어의 심리 상태 또는 주어의 내적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외적 상태나 상황을 나타낸다. 이 구문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없으면 아래 예문처럼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없는 비문이 된다.

(30) 가. 다음 주에 돌아갈 예정이다. (*다음 주에 예정이다)
가’ 我預計下星期回來.
나. 지금은 모두들 어려운 상황이다.(*지금은 모두들 상황이다)
나’. 現在大家都處於困境.

심리 상태와 외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 ‘예정, 작정, 생각, 각오, 심정, 기분, 느낌, 표정’ 등은 중국어에서 ‘預計, 打算, 思想, 決心, 感覺, 表情’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사와 명사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겸류사(兼類詞)이다. 따라서 ‘이다’ 구문에서 이러한 어휘를 사용했을 때 중국어에서는 이 단어들이 동사로 기능하므로 별도의 ‘是’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태세, 기세, 눈빛, 처지, 형편, 상황’ 등과 같은 명사는 중국어로 실현될 때 ‘태세를 취하다, 눈빛을 하다, 처지/형편/상황에 놓이다’처럼 공기되는 동사와 함께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어휘의 의미적·구조적 특성상 [속성적]NP 구문 2 는 중국어에서 ‘是’ 구문이 아닌 동사 술어문 또는 형용사 술어문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속성적]NP 구문 2 에 해당하는 다른 예문(31)을 보더라도 ‘是’ 구문과 대응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1) 가. 당신은 당장 어떻게 할 작정이오?
가’ 你現在打算怎麼辦？
나. 금방 더위가 가시는 기분인데요.
나’. 感覺馬上消暑了.
다. 그는 뭔가를 구걸하는 눈빛이었다.
다’. 他眼神裏在乞求什麼.

탄나나(2015)는 두 구문이 대응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이유를 ‘이다’와 ‘是’ 의 상충된 의미 기능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是’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 판단을 내릴 때 사용되는 구문이고 ‘명사+이다’ 구조의 [속성적]NP 구문 2 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긍정과 짐작의 의미가 서로

DOI:10.6814/NCCU202100335

상충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속성적]N 구문은 상태 명사, 서술 명사, '-적'명사, 어근성 명사, 관계 명사 등이 '이다'와 결합하여 주로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서술하는 구문이다. 이 유형은 '是' 구문과 대응가능한 유형과 비대응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是' 구문과 대응 가능한 유형은 '관계 명사+ 이다' 유형과 '비유문'이다.

(32) 가. 나는 영수와 친구(이)다.
가'.我和英洙是朋友.
나.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 我們是高中同學.
다. 침묵은 금이다.
다'. 沉默是金.

(32 가,나)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명사+ 이다' 유형은 중국어 '是' 구문과 대응된다. 주어 자리에 복수이거나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앞에 'N와', '和 N'과 같은 논항을 필요로 하는 조건까지 동일하게 나타난다.
비유문(32 다)는 모두 은유적 표현으로 한·중 계사문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두 구문이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다.

다음은 '是' 구문과 비대응 관계를 보이는 유형의 구문이다.

(33) 가. 나는 이번일에 반대(이)다.
가'. 我反對這件事.
나. 방안이 엉망이다.
나'. 房間裡亂糟糟的.

(33 가)의 '반대다'와 (33 나)의 '엉망이다'에서 명사 '반대'와 '엉망'은 관형어의 수식보다 '매우, 아주' 등의 부사의 수식이 더 자연스럽다. 또 '반대다'의 경우 전형적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 '하-'로 대체하여 '반대하다'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와 같은 서술성 명사 및 상태성 명사는 '이다'와 함께 쓰여 문장 안에서 동사 및 형용사와 같은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문들은 중국어로 실현될 때 일반적으로 동사 술어문 또는 형용사 술어문과 대응될 수 있다.

DOI:10.6814/NCCU202100335

다음은 '-적 명사+ 이다'의 구문이다.

(34) 가. 그는 처음부터 나에게 호의적이었다.
가'. 從一開始他就對我很友好.
나. 이 가격은 합리적이다.
나'. 這個價格(是)合理的. / 這個價格合理.
다. 그 남자는 매력적이다.
다'. 那個男生很有魅力.
라. 중국 수도 베이징이 대표적이다.
라'. 中國首都北京是代表性的.

(34 가)의 '호의적이다'는 중국어에서 '很友好'처럼 형용사(구)로 실현된다. (34 나)의 경우 '是…的'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고 형용사 '合理'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34 다) '매력적이다'는 '有'라는 동사로 표현되었으며 (34 라)의 경우 '-적'이 '-성(性)명사로 표현된 다음 '是' 구문과 함께 쓰였다. 이 유형은 중국어에서 규칙적인 대응형식을 찾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형용사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계사 '이다'와 공기할 수 없으나 형용사적 의미 기능을 가지는 '-적'이라는 유표적 표식이 있는 '-적'명사의 경우 '이다'와 공기하며 형용사와 같은 특징[46]을 보인다(김건희 2017:18).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적'명사+ 이다'구문은 중국어로 실현될 때 형용사 술어문과 대응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부사+ 이다' 형식의 구문이다.

(35) 가. 국물 맛이 아주 그만인데요.
가'. 湯的味道太棒了.
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이)다.
나'. 及格的喜悅也是暫時的.

(35 가)의 '그만이다'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좋다'라는 의미로 문장에서 '부사+ 이다' 전체가 하나의 형용사로서 서술어로 기능한다. 양정석(2001)은 '이다'가

[46] 김창섭(1984:157-160)에서는. '-적'명사의 문법범주가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X 적+이'의 형식으로 형용사적인 기능과 의미로 쓰인다고 하였다. '적'의 의미가 '(語基)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정도이며 이 한자어가 고유어로 바꾸어 쓸 때 '-스럽'으로 대치된다고 하였다.

DOI:10.6814/NCCU202100335

선행하는 명사와 함께 재구조화를 거쳐 통사적으로 하나의 서술어처럼 기능한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남길임(2006a)에서도 부사가 '이다'와 함께 쓰였을 때 의미 변화가 생긴 '그만이다, 고작이다, 제법이다'는 완전한 하나의 형용사 자격으로 사전에 등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문은 문장에서 대부분 형용사의 기능을 하므로 중국어의 형용사 술어문과 대응관계를 이루지만 (35 나)처럼 '是…的'구문으로도 실현가능하므로 고정적인 대응형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근성 명사+ 이다' 유형이다.

(36) 가. 선희는 요즘 영어 공부에 열심이다.
가'. 善姬最近熱衷於學習英語.

(36 가) '열심이다'는 문장에서 '열심히 하다'와 같은 동사적 기능을 하므로 중국어의 동사술어문과 대응된다. Jin Huihui • 이선웅(2015:39)은 한국어 '국제적이다, 다행이다'와 같이 '이' 앞의 보충어가 어근성이 강한 명사일 경우에는 중국어 계사 '是'와 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어근성 명사+ 이다' 구문은 중국어 계사 구문과 대응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중국어의 동사 술어문 또는 형용사 술어문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3. 존재 및 소유 구문

모든 언어는 지정과 존재를 나타내는 구문이 있는데, 지정문은 동일성과 속성에 대한 판단을, 존재문은 존재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문장 서술의 기본 방책(Strategy)이다(김기혁 2006:52). 영어 계사 'be'의 경우 전형적인 계사의 기능인 지정과 속성 외에도 존재의 의미가 함께 나타나고 소유의 의미는 다른 형태인 'have'로 구분되어 나타난다(목정수, 2010).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 계사와 존재 동사가 분화되어 있고 존재와 소유의 의미가 같은 형태인 '있다'로 실현된다. 한국어에서 존재와 소유를 나타낼 때 대부분 '있다'를 사용하지만 계사 '이다'를 통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 존재문은 무엇이 어디에 존재하는 지와 어디에 무엇이 존재하는 지를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전자를 처소(locational)라 하고 후자를 존재(existential)라고 한다.

DOI:10.6814/NCCU202100335

(37) 처소서술:

가. 너 지금 어디(이)니?

나. 나 지금 동대문이야.

(38) 존재 서술:

가. 산 위에 온통 눈이다.

나. 집 앞에는 주차장이다.

(39) 소유 서술:

가. 나는 딸이 둘이고 아들이 셋이다.

나. 이 테이블은 다리가 세 개(이)다.

(37)과 같은 처소 서술은 위치를 표시하는 구문으로 주어가 가르키는 한정적인 대상이 보어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38)과 같은 존재 구문은 어떤 위치에 주어가 가르키는 비한정적 대상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어 자리에 장소와 위치를 가르키는 성분이 오는지, 대상을 나타내는 성분이 오는지에 따라 처소와 존재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다'가 문장에서 처소와 존재를 나타낼 때 모두 존재동사 '있다'로 바꿔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37 나)는 '나 지금 동대문에 있어'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존재 구문(38 가)는 '산위에 눈이 (많이) 있다'로 표현이 가능하다. (39)는 '소유' 용법에 대한 예문인데 (39 가)는 나는 딸 둘, 아들 셋을 가진 엄마라는 소유의 뜻을 나타낸다. (39 나)의 경우 세 다리의 소유자가 '이 테이블'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냥 세 다리가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서 Jin Huihui • 이선웅(2015)은 '존재'와 '소유'의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았다. (39)예문과 같이 '-이다' 구문이 소유 관계를 나타낼 때는 보어 자리가 수량사 또는 수사로 구성된다.

중국어에서 '존재'를 나타낼 경우 일반적으로 존재 동사 '在'또는 '有'를 사용한다. '有'자는 '是'와 분명히 구별되어 기본적으로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소유문에서 존재, 발생, 출현, 포함, 열거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김기혁, 2007). 중국어에서 존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有'로 실현되지만 계사 '是'로도 실현 가능하다. 이 때 '是' 구문의 주어는 위치나 처소를 나타내는 단어로 구성된다.

(40) 존재 서술:

가. 桌子上是書，沒有別的東西。(책상 위에 책이고 다른 물건은 없다,)

나. 宿舍前是一個網球場。(기숙사 앞은 테니스장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다. 你怎麼臉上身上都是泥? (너는 어떻게 온 몸이 흙투성이니?)

‘是’가 존재의 의미로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주어가 가르키는 위치나 장소에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是’는 ‘有’와는 차이점이 있다. ‘是’는 어떤 사물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 사물이 그 공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물이어야 한다. 반면에 ‘有’는 단순히 어떤 공간에 어떤 사물이 존재함을 나타내므로 유일한 사물이라는 의미는 없다.

두 구문을 비교해 보면,

(41)가. A: 桌子上是什麼? (책상 위에 뭐야?)
B: 桌子上是書.(책상 위에 책이야.)
나. A : 桌子上有什麼東西嗎? (책상 위에 뭐가 있어?)
B: 桌子上有書, 還有筆.(책상 위에 책하고 펜이 있어.)

(41 가)처럼 ‘是’를 사용해서 질문할 경우 화자는 이미 책상 위에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묻는 것이다. 또 ‘是’로 대답할 경우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책이고 다른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41 나)처럼 ‘有’를 이용해서 질문할 경우 화자는 책상 위에 물건이 존재 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며 답변을 할 때도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수도 있다(刘月华외, 2001).

(40 나)와 같은 ‘是’ 존재 구문은 ‘장소+是+대상’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는 한국어의 ‘이다’ 구문과 유사하다. (40 다)와 같은 존재 구문은 범위 부사 ‘온통(都), 전부(全), 가득(滿)’등과 함께 쓰여 어떤 대상이 주어가 가르키는 공간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위의 예문을 통해 존재를 나타내는 ‘이다’ 구문은 중국어의 ‘是’의 존재 구문과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是’ 구문이 소유 의미를 나타낼 때도 ‘이다’ 구문과 대응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 때 주어에 올 수 있는 성분은 명사로 제한되고 ‘是’는 생략이 가능하다(吕叔湘, 2007).

(42) 가. 這張桌子[是]三條腿.
가’. 이 책상은 다리가 세 개(이)다.
나. 我[是]兩個女兒，三個兒子.
나’. 나는 딸이 둘이고 아들이 셋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다. 老王[是]一只胳臂?
다'. 왕씨는 팔이 한 개인가?

위 예문에서 '是' 구문은 모두 소유를 나타내는데 한국어 '이다' 구문과 마찬가지로 '是'에 후행하는 보어 자리에 성분이 모두 수량을 나타내는 '三條腿', '三個兒子', '一只胳臂' 등의 명사구가 자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어에서 처소 서술은 '是'가 아닌 '在'로 실현된다. 그 형식은 'NP1 在 NP2'이며, 이 때 NP1 은 존재 대상이고 NP2 가 존재 위치 및 장소가 된다. '是'존재문은 '장소+ 是+ 대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장소'보다 '대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따라서 순수하게 '처소'만을 의미하는 '이다' 구문은 '是' 구문이 아니라 '在'구문과 밀접한 대응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탄나나, 2015). 그러므로 (37) '이다' 구문은 아래와 같이 중국어에서 모두 '在'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43) 처소서술:
가. 너 지금 어디니?
가'. 現在你在哪裡?
나. 나 지금 동대문이야.
나'. 我在東大門.

이와 같이 한국어 '이다' 구문과 중국어 '是' 구문 모두 존재와 소유의 의미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두 구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존재 구문 중에 위치를 나타내는 처소서술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是'로 실현되지 않고 '在'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와 존재를 나타내는 '이다' 구문은 '是' 구문과 일정한 대응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처소를 나타내는 '이다' 구문은 존재동사 '在'로 실현되므로 '是' 구문과 대응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4. 수량 및 시간 구문

수량(quantificational)은 수효와 분량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숫자로 많고 적음을 표시하는 개념이다. 박진호(2012:503)에서 수량 구문은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수량이 술어에서 나타내는 정도임을 표현하고 시간(temporal) 구문은 계사와

DOI:10.6814/NCCU202100335

결합하는 시간 명사구가 가리키는 시간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수량과 시간이 모두 숫자와 관련된 표현이므로 그 용법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44) 가. 딸은 둘이고 아들은 셋이다.
가'. 有兩個女兒三個兒子.
나. 총 50 만원이다.
나'. 總共(是)五十萬元.
다. 지금 7 시(이)다.
다'. 現在(是)七點.
라. 내 생일은 1 월 1 일이다.
라'. 我的生日(是)一月一日.

이 구문은 보어 NP2가 주어 NP1의 수효와 수량을 나타내는데 (44)는 각각 사람 수와 금액, 시간, 날짜를 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주어자리에 명사(구)가 위치하고 보어자리에 수사나 수량사가 위치한다. '是' 구문의 경우 보어자리에 수사가 아니라 '這張桌子是三條腿'와 같이 수량사(구)가 쓰여 주어의 수량을 나타낸다. 수량과 시간을 표시하는 '이다'와 '是'의 보어 자리에는 숫자 외에도 '얼마, 언제, 며칠, 몇 명'과 같은 의문을 나타내는 명사와 '오늘, 내일, 오전, 오후'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도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다'와 '是' 구문 모두 수량 표현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보어가 수량사일 경우 '이다'는 생략할 수 없지만 '是'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수량과 시간을 표시하는 문장에서 '이다'는 필수 성분이고 '是'는 수의 성분이라는 것이다. 또 (44 라, 라')와 같은 시간구문에서는 NP1 과 NP2 의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위치를 바꾸면 그 의미가 변화한다.

(45) 가. 내 생일은 1 월 1 일이다. (시간표시)
→ 1 월 1 일은 내 생일이다. (정체확인)
가'. 我的生日(是)一月一日.
→ 一月一日(是)我的生日.

임근석(2012:319-320)은 (44)와 같이 두 명사항의 위치가 바꼈을 경우 '시간표시'에서 '정체 확인'으로 그 의미가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44 가,가')

DOI:10.6814/NCCU202100335

수량 구문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때 중국어는 '有'와 '是' 두 구문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

(46) 가. 이 테이블은 다리가 세 개(이)다.
가'. 이 테이블은 다리가 세 개 있다.
나. 這張桌子是三條腿.
나'. 這張桌子有三條腿.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수량 구문은 한국어의 '있다' 와 중국어의 '有'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다'와 '是'가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량을 나타내는 '有'는 '是'와 의미차이가 있는데 '有'는 수량이 '이만큼'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趙元任, 2010:56).

(47) 가. 這小孩(是)四歲. 이 아이는 네 살이다 (의미: 세 살도 다섯 살도 아니다)
가'. 這小孩有四歲. 이 아이는 네 살이다 (의미: 네 살 아래가 아니다.)

(47)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수량 및 시간구문은 중국어에서 '有'와 '是'로 대응이 가능하며 '是' 구문의 경우 보어 자리에 수량과 시간을 표시하는 명사(구)가 위치할 때 '是'의 생략이 가능함[47]을 알 수 있다.

5. 분열 구문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전달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거나 두드러진 정보임을 나타내는 것이 초점(focus)인데 이러한 초점을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초점 성분을 바로 동사 앞에 놓는 등, 분열문(cleft sentence)으로 실현시키는 통사론적 방법이다(김영희, 2000). 분열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Jespersen (1937)이며 분열문은 주로 중립문[48] 내부의 특정 요소를 초점화하여 강조하는 통

[47] 중국어에서 동사(구), 형용사(구)가 주로 술어를 담당하지만 명사(구)와 '절'도 술어가 될 수 있다. 이슬기(2019)에서 명사 술어는 보통 수식구, 수량구, 的자구 등 명사구가 쓰이며 구문의 의미는 날짜, 시간, 연령, 날씨, 본적, 외형묘사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명사술어문은 '시(是)'를 넣어 '시(是)'자문이 될 수 있는데 수량사(구)와 같은 경우 문장 안에서 원래 자체 술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是'의 출현이 수의적이다.

[48] 한 월(문장)에 화자의 부가된 정보전달 표지가 없는 월을 중립문(neutural sentence) 또는 체제문(System Sentence)이라고 한다(임규홍, 1986:155).

DOI:10.6814/NCCU202100335

사적 장치로 이해된다(박철우, 2008).

영어에서 분열문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가. Mary is driving a new car.
나. It's Mary who is driving a new car.
다. It's a new car that Mary is driving. [crystal 1980:79]

(48 가)는 중립문으로 이러한 문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열될 수 있다. (48 나)와 (48 다)는 두 개의 다른 절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48 나)는 'Mary'라는 명사를 문장의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48 다)는 'a new car'라는 명사(구)를 문장의 초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절 내에서 강조하려는 성분을 분리하여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어 '이다' 구문과 중국어 '是' 구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먼저 한국어의 분열문에 대해 살펴보면, 남길임(2006b)은 한국어 분열문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49) <분열문의 조건>
① 형태적 기준: 반드시 '[관형절+ 것]$_{SBJ}$ ~이다'의 구성을 가진다.
② 통사적 기준: [[S'(관형절)것]$_{SBJ}$ XP 이다]의 구문에서 XP 는 S'의 본래 문장 S 의 한 성분이 이동된 것으로 본래 문장 S 로의 환원이 가능하다.
③ 필수 요소: 계사(copula) '이다', 관형절 수식을 받는 '것', '이다' 앞의 강조 성분.

본고에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구조적으로 반드시 '[관형절+ 것]SBJ ~이다'의 구성이 나타나고 원래의 중립문으로 환원이 가능하며 '이다' 앞의 성분을 강조하는 유형의 문장만을 분열문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분열문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50) 가. 인류의 발달에 혁명적인 계기를 이룩한 것이 컴퓨터다.
나.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공책 속에 있는 작은 역사의 얘기다.
다. 조영감이 다시 민요섭을 의심하게 된 것은 그 해 늦가을의 부두파업 때였다.
라. 이번 접촉과 관련하여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의 침묵이다.
마. 그가 그 족속에 특히 유의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남길임, 2006b:348]

DOI:10.6814/NCCU202100335

(50)은 모두 본래 문장의 어떤 특정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그 특정 성분을 이동시킨 분열문인데 통사적으로 초점에 위치하는 성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 가)는 원래 문장의 주어가 이동한 것이고, (50 나)는 목적어, (50 다)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50 마)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어, (50 라)는 문장의 필수 성분인 보어가 이동하여 각각 그 성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초점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성분들은 일정의 경향성을 띄는데 임규홍(1986)과 남길임(2006)은 경향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51) ① 분열문 가능성 언어 층위:
이름씨(명사)>이름마디(명사절)>풀이마디(서술절)>어찌씨(부사)…
② 분열문 초점 자리 문장 성분:
임자자리(주격)>부림자리(목적격)>어찌자리(부사격)>떠난데, 바꾸임 자리, 감목 자리(자격격)> 함께 자리(공동격), 견줌자리(비교격)

[임규홍, 1986]

(52) ① 문어 : 주어>부사어>목적어>보어
② 구어 : 목적어>주어>부사어/보어

[남길임, 2006 – 말뭉치 분석 결과]

상위 내용은 분열문에 위치할 수 있는 성분들의 순서를 나타낸 것인데 남길임(2006)에서 구어와 문어의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와 임규홍의 분석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명사성(nominality)이 높을수록 분열문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열문의 초점 자리, 즉 '이다'에 선행할 수 있는 성분은 명사(구), 절, 명사와 통용되는 부사나 '명사+조사'의 구조를 가진 부사어 등 주로 명사성이 높은 성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열문 조건 중에 일부를 충족시키는 못하는 부류를 의사분열문의 범주로 볼 수 있는데, '것' 대신 주어 관형절의 핵어 명사가 일반명사로 구성되거나 '이다' 앞의 초점 성분에 '일'이라는 성분이 추가되어 본래의 문장으로 환원이 어려운 예이다. 남길임(2006b)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의사분열문으로 보았다.

(53) 가. 제일 먼저 도착한 <u>사람</u>은 진우였다.
나. 내가 그 다방에서 처음으로 만난 <u>청년</u>이 바로 장기표다.

DOI:10.6814/NCCU202100335

다. 이 경기에 의해 전쟁을 해결하는 전통이 상식화돼 있었던 곳이 바로 중남미다.
라. 시체가 발견된 시간은 사건 발생 약 한 시간 전이었다.

(54) 가. 전자 눈이 80% 성공 단계에 있다고 보도된 것은 재작년 일이다.
나. 재작년에 전자 눈이 80% 성공 단계에 있다고 보도되었다.
다. *재작년 일에 전자 눈이 80% 성공 단계에 있다고 보도되었다.

(53)은 모두 의존 명사 '것' 대신에 일반 명사를 쓴 경우이며 (54)는 초점 성분에 '일'을 추가하여 원래의 문장으로 환원이 어려운 것이다. 본고에서는 (53)과 같은 의사분열문은 동일을 나타내는 '확인 구문'을 볼 것이다. 임규홍(1986:167)은 (53)과 같은 구문을 서술적 확인(predicational identification)[49]으로 해석하였으며 박철우(2008:91)도 구체적인 의미의 실질명사가 분열문의 N 자리에 왔을 때는 분열문의 XP1과 XP2가 모두 명사구로서 동일성을 가지는 '이다' 구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한 바 있다. 또 (53)의 경우 두 명사항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53)과 같은 의사분열문을 확인 구문으로 분류할 것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是'는 가장 중요한 초점 표기이며 어떤 성분을 초점화할 때 '是' 바로 뒤에 있는 성분을 초점화한다(石毓智, 2005:46). 문장의 어떤 특정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그 특정 성분을 초점화시키는 문장을 분열문이라고 정의한다면 아래와 같은 '是' 구문 역시 분열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중국에서는 초점화되는 성분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是'가 초점화되는 성분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

49 가. 내가 어제 영희를 만난 곳(장소)은 다방이다.
나. 내가 어제 영희를 만난 것은 다방이다.
(가)의 전제 부분에서 '곳', '장소'라는 구체적인 명사를 제시함으로써 청자가 기대하는 변항 요소의 선택 가능성, 즉 초점 자리에 선택되어질 값이 좁아지게 된다. 반면에 (나)의 '것'은 만난(장소), 만난(이유), 만난(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자가 초점에 올 값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이와 같이 청자가 예상 못했던 어떤 정보를 화자가 선택함으로써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한 청자의 인식정도가 매우 강하게 되는 촛점화의 표현효과를 살리지 못한 (가)는 단순한 서술적 확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임규홍, 1986).

DOI:10.6814/NCCU202100335

(55) 가. 是小王昨天在門口用鉗子把腳踏車修好了. –주어 초점화–
(어제 입구에서 펜치로 자전거를 수리한 것은 왕 군이었다.)
나. 小王是昨天在門口用鉗子把腳踏車修好了. –시간 초점화–
(왕군이 입구에서 펜치로 자전거를 수리한 것은 어제였다.)
다. 小王昨天在門口是用鉗子把腳踏車修好了. –도구 초점화–
(왕군이 어제 입구에서 자전거를 수리한 것은 펜치를 사용해서였다.)
라. 小王昨天在門口用鉗子是把腳踏車修好了. –목적어 초점화–
(왕 군이 어제 입구에서 펜치로 고친 것은 자전거였다.)

[石毓智, 2005]

(55)예문을 보면 모두 '是' 바로 뒤에 후행하는 요소가 초점화되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是'의 후행요소로 주로 명사(구) 또는 부사(어)가 위치한다.

또한 판단 동사 '是'가 단정의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 '的'와 함께 실현되어 분열문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 때 하나의 문장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앞 부분은 화자의 추정(presupposition)을, 뒷부분은 정보의 초점(focus)을 나타낸다(湯廷池 외, 1983:132). '是…的' 분열문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완료의 일만 표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56) 가. 湯先生十五年前在美國學語言學. –중립문–
(탕선생은 15 년 전에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했다.)
나. 是**湯先生**十五年前在美國學語言學的. –주어 초점화–
(15 년 전에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한 것은 탕선생이었다.)
다. 湯先生十五年前是**在美國**學語言學的. –부사어(장소) 초점화–
(탕선생이 15 년 전에 언어학을 공부한 것은 미국에서였다.)
라. 湯先生是**十五年前**在美國學語言學的. –부사어(시간) 초점화–
(탕선생이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한 것은 15 년 전이었다.)

[湯廷池외, 1983]

예문(56)을 보면 중국어 분열문과 한국어 분열문이 서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是…的' 분열문은 '이다' 구문과 달리 주어, 부사어를 초점화하여 강조할 수 있으나 목적어를 초점화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중국어에서

DOI:10.6814/NCCU202100335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是'를 삽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丁廣華, 2008:31). 따라서 아래 (57 가)와 같은 구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57) 가. *湯先生十五年前在美國學是語言學的.
(탕선생이 15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한 것은 언어학이었다.)
나. 湯先生十五年前在美國學的是語言學.
(탕선생이 15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한 것은 언어학이었다.)

목적어를 초점화하려면 (57 나)와 같은 구성이 가능한데 이는 동사 앞에 '的'를 삽입하여 동사 앞의 모든 성분을 명사화한 후 '是'를 삽입하여 형성된 문장이다. 이러한 문형은 중국어에서 분열문이 아닌 의사분열문으로 간주하고 있다(湯廷池 외, 1983; 丁廣華, 2008).

지금까지 한·중 분열문을 살펴본 결과 두 언어에서 '이다'와 '是'는 분열문 구성에 있어서 필수 성분임을 알 수 있다. 두 구문이 분열문으로 실현될 때 서로 대응이 가능하나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한국어 분열문은 강조되는 성분이 초점의 자리로 위치를 이동하는 구조지만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어순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是'가 강조되는 성분의 앞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또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요소가 분열문의 초점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시제도 제한되지 않지만 중국어에서 '是…的' 분열문의 경우 목적어의 초점화는 실현되지 않으며 시제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과거완료의 경우만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다' 분열문과 '是' 분열문은 서로 대응이 가능하나 '是…的' 분열문의 경우는 시제나 초점화 실현에 있어서 '이다' 분열문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6. 양상적 구문

양상적 구문이란 '명사+이다' 구성이 어떤 문장의 명제를 구성한다기보다 선행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명제의 상적 특성을 나타내 주는 구문이다. 의미적으로 '명사+이다'는 하나의 의미 단위이되 문장 내에서 서술어의 주어를 찾을 수 없으며 구조적으로 NP1 이 NP2 이다'로 설명될 수 없는 구문이다(남길임, 2004).

DOI:10.6814/NCCU202100335

(58) 가. 아기가 우는 모양이다.
나. 도둑이 제발 저린 법이다.
다. 이제 우리에겐 파국이 앞에 놓여 있을 따름이다.
라. 그들은 말없이 인사를 나눌 뿐이었다.
마. 이름으로 봐서 복님이는 여자일 것이다.
바. 난 여기서 잠시 쉴 셈이야.
사. 고양이가 쥐를 잡은 것이다.

(59) 가. 나도 마지막으로 이 거리를 돌아보는 중이다.
나. 안 그래도 밖으로 나가려던 차였어.
다. 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남길임, 2004]

(58)은 '모양이다, 법이다, 따름이다…'와 같이 '의존명사+이다'가 선행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modality)[50] 구문이며 (59)는 '중이다, 차이다, 길이다'와 같이 명제의 상(aspect)[51]적 특성을 나타내는 상적 구문이다. (58가,마)예문은 각각 '아기가 울고 있는 것 같다'는 짐작과 '복님이는 여자'일거라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구문이다. (58나)는 '도둑이 제 발을 저리는 것은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화자가 명제[52]를 '자연의 이치, 일반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타낸다. (58다, 라)는 '사태의 유일함'을 나타내는 제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8바)는 '여기서 잠시 쉴 것'이라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고 (58사)는 확실성이 있는 명제에 대해 '단언, 확언'의 기능을 한다. 예문(59)는 '중이다', '차이다',

50 양태(modality)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명제가 설명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낸다(Lyons, 1977:452).

51 상(aspect)은 시제 및 서법과 함께 동사의 문법적 설명에 사용되는 범주로, 주로 문법이 동사에 의해 표시된 시간적 활동의 지속시간이나 유형을 표시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완료상(perfective)과 미완료상(imperfective)의 대립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종종 행동의 완성을 언급하고, 후자는 완성을 명시하지 않고 지속시간을 표현한다. 러시아어를 예로 들면 완료상 형태인 pročital 의 경우 '그는 (뭔가를) 읽었다'를 나타내고 미완료상 형태인 čital 의 경우 '그는 (뭔가를) 읽곤 했다/읽고 있었다'를 나타낸다(crystal, 2008:38).

52 양태구문을 크게 이분하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명제내용(proposition)'이라 하고, 후자와 같은 심적 태도 부분을 '양태(modality)라고 한다(안주호, 2004:150).

DOI:10.6814/NCCU202100335

‘길이다’가 쓰여 어떤 행위나 사건이 ‘진행’중이거나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적 구문이다.

양상 구문의 구조를 보면 ‘이다’에 선행하는 성분이 ‘뿐, 노릇, 따름, 것, 차’와 같은 의존명사 외에도 ‘모양, 셈, 법, 중, 길’ 등과 같은 자립 명사도 쓰일 수 있다. 이 자립명사는 ‘이다’ 구문에 한하여 의존적으로 쓰이는 명사들이다. 일반적으로 양태 기능을 하는 요소의 주어와 화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60) 가. [아기가 우]는 모양이다.
나. [그들은 말없이 인사를 나누]ㄹ 뿐이었다.
다. [난 여기서 잠시 쉬]ㄹ 셈이야.
라. [안 그래도 밖으로 나가]려던 차였어.

안주호(2004)에 따르면, (60)의 문장을 [화자-[명제내용(주어-서술어)]-양태기능요소]로 나누어 볼 때 [ ]속의 명제내용은 완전한 절로 이루어져 ‘주어-서술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모양이다’, ‘-뿐이다’, ‘-셈이다’, ‘-차이다’를 상위문의 서술어로 본다면 상위문의 주어를 설정해야 하는데, 상위문의 주어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처럼 뚜렷한 주어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무주어문이라고도 하나 그는 김기혁(2000), 남길임(2001)의 견해와 같이하여 ‘-는 모양이다’처럼 보문소[53]와 그 이하의 요소를 하나로 묶어 양태 기능을 하는 요소로 보았다. 즉, ‘의존명사+이다’가 한 단위로 기능하여 문장전체와 관련된 문법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확인과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 서술 계사 구문과 구별되는 특별한 유형의 계사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의 계사 구문도 이러한 양태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긍정, 확신,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61) 가. 小林對人是那樣熱情, 誰都會喜歡她.
(小林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하니 모두 그녀를 좋아할 것이다.)
나. A: 那個電影怎麼樣? 不錯吧? (그 영화 어때? 괜찮지?)
B: 是不錯. (괜찮았어.)

[53] 변형 생성 문법에서, 문장 안에 내포된 절이 보어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 영어의 ‘that’, ‘for’ 따위가 있고, 국어의 ‘-아’, ‘-게’, ‘-지’, ‘-고’ 따위의 어미를 이르기도 한다.(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https://opendict.korean.go.kr/)

DOI:10.6814/NCCU202100335

다. 事實總是[54]事實. (사실은 사실이다.)

라. 懂就是懂, 不懂就是不懂, 不懂不要裝懂.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마.)

[劉月華외, 2001]

상위 예문을 보면 '是'가 긍정,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 보어 자리에 명사(구) 외에도 동사(구), 형용사(구)가 위치할 수 있다. (61 가)에서 '是'는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 때 '是'는 약하게 읽는다. (61 나)와 같은 경우 '是'를 강하게 읽으면 앞의 말을 긍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긍정하는 기능을 한다. (61 다)는 주어는 보어가 나타내는 그 부류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즉, 이 구문에서 '是'는 확인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이 때 '是'의 선후행 단어가 동일하다. '是' 앞에 '就(곧), 總(늘, 반드시), 畢竟(결국), 終歸(마침내)'와 같은 부사를 쓸 수 있으며 이 때 부사는 강하게 읽고 또 생략할 수 없다. '是'의 선후행 요소로 (61 다) 와 같은 명사(구)와 (51 라)와 같은 동사(구) 및 형용사(구)도 올 수 있다. 이 외에도 '是'는 '확실히(的確/確實), 실로(實在)'라는 의미로 어떤 사실에 대한 사실성을 나타내거나 변명, 변론의 어기(語氣)를 가지기도 한다(丁聲樹, 1979; 劉月華외, 2001).

(62)가. 他是去接人.(그가 데리러 갔다.) ⟷ 他確實去接人(그가 확실히 데리러 갔다.)

나. 是下雨了, 不騙你. (진짜 비가 와, 속이는 거 아니야.)

다. 我(是)有事, 不(是)偷懶. (내가 일이 있는 거지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다)

(62 가)에서 '是'는 강조의 기능을 하는 부사로서 '확실히'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確實'로 바꾸더라도 의미가 통한다. (62 나)는 비가 온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구문은 무주어문이 가능하고 보어자리에 '비가 오다'와 같이 '절'이 위치할 수도 있다. (62 다)와 같이 '是'가 변명을 하는 어기를 나타날 때 '是'는 생략이 가능하기도 한다.

'是' 구문 외에 '是…的'구문으로도 강조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구문은

[54] 劉月華외(2001:685)에서는 '總是, 就是' 등을 따로 부사로 분류하지 않고 '是' 구문에서 다루면서 '是'가 부사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된다 설명하였다. 袁從潤(2007)은 그 원인이 현대 중국어에서 '是'는 판단 동사이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는 문법규칙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范曉(1999), 鄭蔓威(2001), 呂叔湘(2007)에서도 '부사+是'의 결합을 모두 '是' 구문에 포함하였다.

DOI:10.6814/NCCU202100335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劉相臣, 2004). 첫째는 화자가 주어에 대한 평가, 묘사, 설명을 표현하며 '확실히, 실로'라는 강조와 확신의 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黃伯荣외, 1991) 둘째는 초점 대비로써 어떤 특정요소를 강조하는 구문인데 후자는 한국어의 분열문(cleft sentence)에 속하는 유형이다. 분열문 유형은 3.7 분열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첫째 강조 유형만 볼 것이다.

'是…的' 강조 구문을 보면 '是'는 강조를 나타내는 어기 부사로 일반적으로 서술어 앞에 쓰인다. 뒤에 오는 '的'는 어기 조사이며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是'와 함께 강조의 어기를 나타낸다. 강조 구문은 아래 예문과 같이 모두 명제의 내용을 강조하는 어기를 가지고 있다.

(63) 가. 那樣說是可以的.(그렇게 말해도 된다.)
나. 善意, 惡意, 不是猜想的, 是可以看得出來的.
(선의와 악의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다. 猴子是很聰明的. (원숭이는 매우 똑똑하다.)
라. 這個問題, 我們也是很注意的.(이 문제는 우리도 매우 주의하고 있다.)

이 구문에서는 (63 가,나)처럼 술어자리에 '능원동사(能原動詞)[55]+동사' 또는 '동사+가능보어(可能補語)[56]'의 형식을 자주 볼 수 있다. (63 다)처럼 형용사(구)가 술어가 되기도 하고 (63 라)와 같이 심리활동,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注意'는 정도부사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또 동작의 대상인 '이 문제(這個問題)'가 문

[55] 능원동사(能原動詞)는 조동사(助動詞)라고도 하며 의미적으로 소원이나 사리, 조건 및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사건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劉月華외, 2001)
- 소원, 바램: 要, 想, 願意, 肯, 敢
- 사리에 대한 판단: 應該, 應當, 應, 該, 得
- 주객관조건에 대한 판단 : 能, 能夠, 可以
- 허가, 허용: 能, 可以, 可, 准, 許, 得
- 평가: 配, 值得
- 가능성 : 肯能, 會, 要, 得, 能.

[56] 가능보어(可能補語)는 어떤 결과나 방향, 상황발생에 대한 주객관적 조건의 가능여부를 나타낸다. 가능보어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1.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 동작의 결과 혹은 방향의 실현 가능 여부를 나타낸다.
예) 吃得飽(배불리 먹다), 吃不飽(배불리 못먹다), 出得來(나올 수 있다)
2. '得/不+了(liao)' : 완결(完), 끝내다(結束)라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吃得了(다 먹을 수 있다), 忘不了(다 못 잊겠다).
3. '得/不得': 주객관 조건의 실현가능 여부나 도리상 허가 여부를 나타낸다.
예) 值得(~할 만하다), 碰不得(건드리면 안 된다).

DOI:10.6814/NCCU202100335

두에 놓여 화제가 되는 구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是'와 '的'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64) 가. 那樣說可以.(그렇게 말하면 된다.)
나. 善意, 惡意, 不是猜想的, 可以看得出來.
(선의와 악의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수 있다.)
다. 猴子很聰明. (원숭이는 똑똑하다.)
라. 這個問題, 我們也很注意.(이 문제는 우리도 매우 주의한다.)

(64)예문을 보면 '是'와 '的'를 생략할 경우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지만 의미적으로 강조나 확신과 같은 화자의 태도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是…的'구문 중 분열문의 경우는 동작이 이미 과거에 발생했거나 완료되었다는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劉月華외, 2001).

(65) 가. 他是兩點出去的. (그가 나간 것은 두 시였다.)
나. 我是在預售處買的票. (내가 표를 산 것은 예매처였다.)
다. 是小王告訴我的. (나에게 알려준 것은 왕군이었다.)
라. 今天中午我們是吃的餃子. (오늘 점심에 우리가 먹은 것은 만두였다.)
[劉月華외, 2001:763]

(65)예문에서 '나가다', '표를 사다', '먹다' 등은 모두 발화 이전에 완성된 일이거나 이미 아는 정보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구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두 시', '예매처', '왕군', '만두'인데 이는 동작 발생의 시간, 장소, 행위자, 그리고 동작의 대상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是…的'를 생략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66) 가. 他兩點出去. (그는 두 시에 나간다.)
나. 我在預售處買票. (나는 예매처에서 표를 산다.)
다. 小王告訴我. (왕군이 나에게 알려준다.)
라. 今天中午我們吃餃子. (오늘 점심에 우리는 만두를 먹는다.)

DOI:10.6814/NCCU202100335

(66)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是'와 '的'를 생략하면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是…的'구문이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 강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다'와 '是'는 모두 양태와 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다'의 양태 구문은 추측, 의도, 단언, 사태의 유일성 등 다양한 화자의 태도를 포괄하지만 '是' 구문은 주로 강조와 확신의 어기를 나타낸다. 또 '이다' 구문은 '중이다, '길이다'와 같이 진행의 의미를 가지지만 '是' 구문은 '的'와 함께 이미 실현된 상황, 즉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양상적 구문에서 두 구문은 서로 대응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아래 예문을 보면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확실히 보인다.

(67) 가. 아기가 우는 모양이다.
가'. 好像孩子哭的樣子.
나. 도둑이 제발 저린 법이다.
나'. 作賊心虛.
다. 이제 우리에겐 파국이 앞에 놓여 있을 따름이다.
다'. 現在在眼前等著我們的只有破局.
라. 그들은 말없이 인사를 나눌 뿐이었다.
라'. 他們只是默默地打招呼.
마. 이름으로 봐서 복님이는 여자일 것이다.
마'. 從名字上看，복님應該是女人.
바. 난 여기서 잠시 쉴 셈이야.
바'. 我打算在這裏休息一會兒.
사. 고양이가 쥐를 잡은 것이다.
사'. 貓抓住了老鼠./貓是抓了老鼠的.

(68) 가. 나도 마지막으로 이 거리를 돌아보는 중이다.
가'. 我正在逛這條街最後一次.
나. 안 그래도 밖으로 나가려던 차였어.
나'. 我正好要出門.
다. 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다'. 我在回故鄉的路上.

DOI:10.6814/NCCU202100335

(67 가)추측을 나타내는 '모양이다'는 '好像…的樣子'로 대응되고, 일반적 원리를 나타내는 '법이다'[57]는 (67 나)의 예문에서 특별한 대응형식 없이 중국어의 성어로 표현되었다. (67 다)처럼 사태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따름이다, -뿐이다'는 '只有', '只是'로, 추측을 나타내는 '-ㄹ 것이다'는 '(應該)會', '應該是'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ㄹ 셈이다'는 '打算'으로, 단언, 확언을 나타내는 '-는 것이다'는 '是…的' 구문으로 대응될 수 있다. 그 외 어떤 일을 하는 도중을 나타내는 상적 구문은 (68)예문과 같이 각각 '正在', '正好', '在…的路上'과 같은 부사(구)로 실현된다.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단언, 확언을 나타내는 경우 '是…的'구문으로 대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다'의 양상적 구문은 대부분 '是' 구문과 대응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관용 구문[58]

일반적으로 관용적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표현을 말한다. 남길임(2004)에서 '이다' 관용 구문은 명사가 반드시 '이다'와 함께 쓰여서 다른 서술어와 함께 쓰일 때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구문이라고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도 이 정의에 따라 예문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69) 가. 김치 냄새는 양반이지, 치즈 냄새에 비하면 말이야.
나. 아유, 쟤는 밥맛이야.
다. 할머니, 절대 안정하셔야지, 흥분은 금물입니다.
라. 돈 십만 원이 어디야?
마. 봄이라 온 산이 진달래 천지다.

[남길임, 2004:185]

---

57 박병선(2009)에서는 '-는 법이다'를 인식 양태 중 '사실로서의 단언'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분류하였으며 중국어 '一定會' 또는 '注定會'로 대응 가능하다고 하였다. 판단 유보의 의미로 볼 수 있는 '會'가 '一定' 혹은 '注定' 등과 함께 쓰여 단언의 정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 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다. 가'. 如果有相遇, 那分離也是注定的.

58 관용 구문은 '침묵은 금이다'와 같은 비유문과 구분된다. 이 때의 '침묵'과 '금'은 침묵이 금만큼 값지다는 뜻으로 단지 비유적으로 쓰였을 뿐 원래의 '침묵'과 '금'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제 3 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69)예문에서 '양반'은 '다른 것보다 더 낫다'의 의미를 가지며, '밥맛'은 '불쾌하다' 또는 '역겹다'의 의미를 가진다. '금물'은 '해서는 안되는 일'을 뜻하며 '어디'는 반어적 의문문에 쓰여 금액이 대단함을 나타내고 '천지'는 '아주 많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양반, 밥맛, 금물, 어디, 천지' 등의 단어는 이 외의 다른 환경에서 쓰일 경우 이러한 관용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 유형은 '명사+이다'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기능하고 '명사'가 본래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여기서 '이다'는 본래의 '지정'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문은 주어 명사항과 보어 명사항의 관계 의미를 통해서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문이다(남길임, 2004).

중국어에서 '是' 구문도 관용 표현이 있다. 수량이 많음을 표현하는 '有的是'와 대충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의미의 '一是一, 二是二' 이다(呂淑湘, 2007:502).

(70)가. 錢有的是, 但是不能亂用. (돈은 얼마든지 있지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나. 他處理任何問, 都是一是一, 二是二, 絕不馬虎.

(그는 어떤 일이든 확실히 처리하며, 대충하지 않는다)

(70 가)에서 '有的是'는 돈이 아주 많다는 뜻을 나타내며 '多的是'로도 쓸 수 있다. (70 나)는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확실히 한다'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是' 구문의 관용 표현은 '이다' 구문과 대응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다'의 관용 구문 역시 중국어 '是' 구문과 대응되지 않는데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71) 가. 김치 냄새는 양반이지, 치즈 냄새에 비하면 말이야.

가'. 跟起司比起來, 泡菜的味道還算不錯的.

나. 아유, 쟤는 밥맛이야.

나'. 唉唷, 他真討厭.

다. 할머니, 절대 안정하셔야지, 흥분은 금물입니다.

다'. 奶奶, 你千萬要安定下來, 不要衝動.

라. 돈 십만 원이 어디야?

라'. 十萬塊不算小錢吶.

마. 봄이라 온 산이 진달래 천지다

마'. 因為春天了, 滿山都是杜鵑花.

DOI:10.6814/NCCU202100335

한국어에서 ‘이다’ 구문으로 실현되는 관용 구문들이 중국어로 표현할 때 고정된 대응형식이 없이 다양한 단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이다’ 관용 구문이 일반적으로 구성 요소의 의미와 상관없이 제 3 의 의미를 이루기 때문이다. (71 마)의 경우 관용 표현이면서도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是’ 구문과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대부분의 관용 구문은 ‘是’ 구문과 대응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8. 제시 구문

제시 구문(Thetic sentence)은 눈앞에 주어진 직접적인 현상이나 개체를 제시하는 문장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주어가 없거나 주어와 술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의미적으로는 서술성이 없는 단순한 단언의 문장을 말한다(임동훈, 2005).

(72) 가. 와! 눈이다.
나. 자, 선물이야.
다. 경찰이다! [남길임, 2004]

위와 같은 문장은 두 명사항 간의 동일성이나 속성관계와 같은 서술기능을 하기보다는 발화현장에 존재하는 사건, 상황에 대한 감탄이나 제시, 알림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2 가)는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을 보고 감탄하거나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72 나)는 선물을 건네면서 그것이 선물임을 제시하는 것이며 (72 다)는 화자가 자신의 상황 또는 신분을 알리거나 경찰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남길임(2004;205)은 이러한 문장을 현장 발화적 구문이라 정의하였으며 반드시 ‘현재’라는 시간적 조건과 발화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공간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현장성을 그 특성으로 항상 ‘무엇이다’의 꼴로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장은 술어-논항 구조의 틀로 분석할 수 없으며 주제화문과 달리 문장의 의미가 ‘주제-평언’이나 ‘구정보-신정보’로 이원적으로 분절되지 않는다. 문장 의미 전체가 신정보로서의 대상 또는 현상의 출현이라고 하는 사태를 표상하는 이른 바 제시문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홍재성, 2010:61).

제시 구문은 어떤 개체에 대한 서술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형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주로 현재 현장에 있는 사실에 대한 ‘감탄, 제시, 알림’의 의미기능을

DOI:10.6814/NCCU202100335

하므로 ‘현장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었-, -겠-, -더-’와 같은 시제의 선어말어미의 결합에 제약이 있다.

(73) 가. 부정형
와! 눈이 아니다.
자, 선물이 아니야.
경찰이 아니다!
나. 과거/미래 시제
와! 눈{이다/*이었다/*이겠다}
자, 선물{이야./*이었어/*이겠어}
경찰{이다/*이었다/이겠다} [남길임, 2004]

(73)과 같이 부정형 또는 과거형으로 쓰였을 경우 ‘(그것은) 눈이 아니다’, (그것은) 눈이었어’와 같이 속성적 구문에서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의 감탄, 놀람, 알림의 기능을 가지지 않으므로 제시 구문으로 볼 수 없다. (72)예문을 중국어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74) 가. 哇! 下雪了. (와! 눈이다.)
나. 來, 給你禮物./你的禮物. (자, 선물이야.)
다. 警察來了. (경찰이다!)

한국어의 제시 구문은 중국어에서 ‘是’가 아닌 ‘下, 給, 來’ 와 같은 일반적인 동사 구문 또는 ‘你的禮物’와 같은 명사(구) 구문으로 실현 가능하다. 중국어 제시 구문을 ‘是’ 구문으로 표현할 경우 특정한 담화 맥락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데(탄나나, 2015) 이 때 놀라움과 감탄의 정도가 더 크게 느껴지는 등 강조의 의미가 더해진다.

(75) 가. 哇! 是雪阿. (와! 눈이다.)
나. a. 有人來了 (누가 왔어.)
b. 是警察. (경찰이다!)

(75 가)는 화자가 얼굴에 무엇이 떨어진 다는 것을 이미 알고 ‘是’를 사용함으로

DOI:10.6814/NCCU202100335

써 그것이 다름 아닌 '눈'이라는 사실을 확인 또는 강조하는 것이다. (75 나)도 화자가 누군가 왔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온 사람이 다름 아닌 경찰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제시 구문은 이러한 확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시 구문에서의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은 서로 대응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74)에서 제시했듯이 중국어에서 제시 구문은 일반적으로 '是'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동사 서술문을 사용한다.

9. 상황의존적 구문

상황의존적 구문은 '이다'와 두 개의 명사항 그 자체만으로 문장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고 상황 맥락에 따른 해석을 통해 '단언, 요구, 약속, 경고, 허락…'과 같은 화자의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force) [59] 를 수행하는 구문이다(남길임 2004:199).

(76) 가. 난 커피다.
나. 커피는 셀프입니다.
다. 냉장고는 삼성이다. [남길임, 2004]

(76 가, 나)의 '커피'와 '셀프'는 비지시적 명사구로 주어 명사항의 속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어 명사항의 자리에 '커피'와 '셀프'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명사구가 요구되지만, 주어인 '나'와 '커피'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76 다)의 '삼성'은 지시적 명사구로 주어 명사항에 반드시 '삼성'과 동일한 개체를 지시하는 명사구가 와야하지만 주어인 '냉장고'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선택 제약을 어김에도 현실 발화에서 정상적인 발화로 인정되고 또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다' 구문과 구분된다. (76 가)의 경우 '난 커피를 시켰다, 난 커피가 좋다, 난 커피 담당이다'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김기혁(2006:53)은 이러한 구문을 발화적 구문, 상황 구문으로 정의하였고 박진호(2012:504)는 주어의 지시대상과 술어 NP 의 지시대상 사

[59] 언표내적 행위란 한 문장을 발화하면서 이 문장이 갖는 (명시적 수행 표현) 고정적 말힘(force, 효력)에 의해 진술 (statement)이나, 제안(offer), 약속 등을 하는 것이다. 'Shoot her ! (그녀를 사살하시오!)'라는 발화에서 청자(addressee)에게 '그녀를 사살하라'는 명령, 재촉(urging), 충고 등의 여러가지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한다(Levinson,1983:236).

DOI:10.6814/NCCU202100335

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관련성' 구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은 의미적 술어 성분을 명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항-술어의 틀로 분석하기 어려운 무술어 계사문이다. 술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개방적인 해석이 가능하나(홍재성 2010:32) 문맥적 상황을 벗어나면 독립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곤란한 문장이다.

상황의존적 구문은 중국어에서 비논리적 구문(illogical copula sentences)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 유형의 구문이 다양한 해석을 가질수 있는 것은 그들의 지시적 주어 명사구와 두 번째 비지시적 명사(구) 사이에 느슨한 결합 또는 연결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Li and Thompson 1981:150).

(77) 가. 我是中文系, 他是歷史系. (나는 중국어과이고 그는 역사학과이다.)
나. 我是炸醬麵. (나는 짜장면이다)
다. 他是兩個男孩兒. (그는 사내아이 둘이다) [朱德熙, 2007:107]

朱德熙(2007)는 (77)과 같은 예문은 구체적인 언어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의미가 확정된다고 설명하였으며 鄭蔓威(2001)는 이러한 유형의 구문에서 주어 또는 술어 부분이 특정한 내포의미(隱含語意)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我是紅燒肉'(나는 홍샤오러우이다)의 원래 구문의 의미는 '我要的是紅燒肉'(내가 원하는 것은 홍사오러우이다)이며, 이 때 주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의미의 성분은 '要的'(원하는 것) 또는 '要的菜'(원하는 요리)라고 하였다. (77)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의존적 구문을 나타내는 경우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이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두 구문 모두 보어자리에 명사(구)가 올 수 있는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Jin Huihui • 이선웅(2015)에서 상황의존적 구문은 중국어 원어민이 잘 쓰지 않는 문장표현으로 관련성에 있어서 한국어 '-이-'가 중국어 '是'보다 더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0 소결

지금까지 한 • 중 계사 '이다'와 '是' 구문의 의미적 • 통사적 기능을 살펴본 결과 두 구문이 서로 대응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두 구문의 대응 양상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DOI:10.6814/NCCU202100335

의미기능	소분류	한국어	중국어	대응여부	비고
1.확인 구문	확인	이다	是	O	
2.속성 구문	분류	이다	是	O	
	속성 NP1	이다	是	O	
	속성 NP2	이다	동사/형용사	X	
	속성 N	이다	동사/형용사/是(관계)	X(일부:O)	관계의미만 대응
	비유	이다	是/像	O	是:은유, 像:직유
3.존재&소유	존재	이다	장소+是+ 대상	O	
	처소	이다	在	X	
	소유	이다	是/有	O	
4.수량&시간	수량	이다	是/有	O	
	시간	이다	是(생략가능)	O	
5.분열문	분열문	이다	是/是…的구문	O(일부:X)	목적어 분열문: X
6.양상적 구문	양태, 상	이다	동사/형용사/부사(구)	X	무주어문
7.관용 구문	관용문	이다	동사/형용사	X	
8.제시 구문	제시문	이다	동사/명사(구)	X	무주어문
9.상황의존문	관련성	이다	是	O	무술어문

<표> 10 '이다'와 '是' 구문 대응 양상 (대응:O 비대응:X)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다'와 '是' 계사 구문은 확인과 속성의 기본적 의미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확장된 의미 기능을 가진다. '이다' 구문이 가지는 9 가지 의미 기능 중에 '제시'와 '처소', 두 가지의 의미 기능이 '是' 구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속성 NP2 구문'과 '속성 N 구문'도 중국어에서 '是' 구문이 아닌 일반 동사 술어문, 형용사 술어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다' 구문이 가지는 특수한 의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확인, 존재 및 소유, 수량 및 시간, 분열문, 상황의존적 구문, 비유문, 분류문, '속성 NP1 구문'은 '是' 구문에도 존재하는 의미 기능으로 두 구문이 서로 대응관계를 보였다. 그 중에 의사분열문과 상황의존 구문은 확인 술어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두 구문 모두 NP1 과 NP2 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속성 구문에서 극한값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올 경우도 확인 구문으로 볼 수 있다.

DOI:10.6814/NCCU202100335

(78) 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이)다. (我最喜歡的人是我媽媽.)

나. 나는 짜장면이다. (我是炸醬麵.)

다. 선생님은 우리반에서 유일한 외국인이다.(老師是我們班唯一的外國人.)

(78 가)는 의사분열문이고 (78 나)는 상황의존적 구문, (78 다)는 극한 값의 수식어가 붙은 분류문인데 모두 확인 구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세 구문의 중국어 표현 역시 확인 구문으로 볼 수 있다. 분열문 같은 경우는 전제 부분과 초점 사이의 관계를 언명한다는 점에서 확인서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탄나나, 2015) 또 존재, 소유, 수량, 시간, 비유, 분류 구문은 보어 명사항에 비지시적 명사구가 쓰여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속성서술과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과 속성의 의미 기능을 하는 계사 구문은 대부분 서로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계사의 기본 의미인 확인과 속성의 기능과 거리가 있는 양상과 관용 표현은 서로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是' 구문도 양상과 관용 표현이 가능하나 '是'양상 구문은 한국어로 실현될 때 강조나 확신을 나타내는 부사나 조사 또는 어미로 실현된다. 반대로 '이다'의 양태구문은 대부분 중국어에서 부사(구) 또는 동사(구)로 실현된다. '상'적 의미도 '이다' 구문은 '진행'의 의미를, '是' 구문은 '的'와 함께 쓰여서 주로 '완료'를 나타내는 차이를 보인다.

관용 표현의 경우 '是' 구문은 수량이 많음을 표현하는 '有的是'와 확실히 한다는 의미의 '一是一, 二是二' 가 있다. 이 관용표현들은 한국어의 '이다' 구문와 대응될 수 없으며 관용 표현에 있어서 '이다' 구문이 '是' 구문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구문의 의미 기능에 따라 보어 자리에서 독특한 결합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아래 표는 3 장에서 나온 예문들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여 두 구문의 주어와 보어 자리에 결합 가능한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분류	'이다'결합 양상	'是'결합 양상
주어	대명사, 명사(구), '관형절+ 것'	대명사, 명사(구), 수량사, 동사(구), 형용사(구), 소절, 부사(어)
보어	명사(구), 상태・서술명사,'-적'명사, 어근명사, 관계명사, 의존명사, 부사(어), 수량사, 대명사	대명사, 명사(구), 수량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소절, '的'자구, 접속사

<표> 11 '이다'와 '是' 구문 결합 양상

DOI:10.6814/NCCU202100335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구문의 주어 자리에 명사(구)[60]가 공통적으로 올 수 있다. ‘是'의 확인 구문의 경우 주어 자리에 명사(구) 외에도 동사(구), 형용사(구), 소절까지도 올 수 있는 등 ‘이다’ 구문 보다 더 다양한 결합 양상을 보인다. 두 구문의 유형 분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보어 자리 성분을 보면 한·중 계사문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이다’ 구문의 경우 명사의 종류가 ‘상태명사, 서술명사, 어근명사, -적 명사, 의존명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이 모두 ‘이다’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일반 동사나 형용사 술어문의 기능을 한다. 또 일부 부사가 보어자리에 위치하여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부사어[61]가 위치하여 분열문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두 한국어 계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 외 의존명사 ‘것’을 머리어로 하는 명사절 구성도 보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是' 구문의 경우 ‘是'의 후행요소로 명사(구), 부사(어), 절(주술구)은 물론 형용사(구), 동사(구), 접속사[62], '的'자 구문까지 한국어 ‘이다’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是'가 동사, 형용사와 함께 결합하는 경우 주로 강조와 확언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기능을 하고 ‘的’자 구문과 함께 분열문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是' 구문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다’와 ‘是’ 구문의 대응관계를 통해 두 구문이 한·중 언어에서 각각 계사로서 확인과 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대응관계를 통해서 두 계사의 확장된 의미 기능과 그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계사의 일반적인 기능과 확장된 기능이 실제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60] 여기서 ‘명사구’는 대명사와 수사가 이루는 구까지 포함한다.
[61] 부사어는 ‘체언+조사’ 형태의 부사구, ‘용언+어미’ 형태의 부사절을 포함한다. (서정수, 2005)
[62] 예문:是因為你不聽話, 素以媽媽生氣了 (네가 말을 안들어서 엄마가 화났단 말이야)

DOI:10.6814/NCCU202100335

Ⅳ.‘이다’와 '是' 구문의 사용 양상

현재까지 진행된 ‘이다’와 '是' 구문의 대조 연구는 의미적, 통사적 기능의 대조가 주를 이루고 한•중 언어에서 실제로 이 두 구문의 사용 양상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장에서는 ‘이다’와 '是' 구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계사의 의미 기능과 그보다 더 확장되어 나타나는 독자적 의미 기능이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비율로 나타나며 그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신서인(2006)은 규범적인 문형을 이루는 요소들이 실제 문장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뭉치를 이용한 문형 연구는 규범과 실제 사용 간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앞서 3 장에서 대조한 두 구문의 기능에 관한 이론적 내용이 실제 사용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실제 사용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두 구문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의 ‘세종 21 말뭉치’ 신문보도해설(사회)과 대만 중앙연구원의 ‘Sinica corpus 4.0’ 신문보도 (사회)영역을 분석하려고 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어 코퍼스를 선택한 이유는 문법적 구조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그 중 신문보도(사회)영역을 선택한 이유는 ‘이다’와 ‘是' 구문에서 공통적으로 1,000 토큰 이상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두 구문 모두 분석 대상을 각각 1,000 토큰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신문 사회 코퍼스 ‘이다’ 구문 전체 자료의 1/5, ‘是’ 구문 전체 자료의 1/3 에 해당하는 양이다. 계량적 연구 관점에서 1,000 토큰은 충분한 양이라고 볼 수 없으나 본 연구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계적 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을 요하는 연구로서 ‘이다’ 구문의 사용 양상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한 양으로 판단된다.[63]

1.‘이다’ 구문의 사용 양상

먼저 3 장에서 정리한 ‘이다’ 구문의 9 가지 의미 기능을 기준으로 코퍼스를 분류하여 ‘이다’ 구문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코퍼스에서 제시 구문

63 ‘이다’ 구문의 코퍼스 분석은 주로 남길임(2004, 2006b, 2009, 2015)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계량적 분석이었다. 연구에서 16 만개, 40 만여개 등 다량의 코퍼스를 분석하였는데 ‘이다’ 구문의 의미 기능 및 통사적 결합 양상의 결과가 본고와 비슷하게 나타남으로써 1,000 개의 코퍼스로도 어느 정도의 신빙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DOI:10.6814/NCCU202100335

과 상황 의존 구문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문어자료라는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64] 제시 구문과 상황의존적 구문은 현장성 또는 상황적 맥락을 필요로 하는 구문이다. 의미 기능과 관련하여 통사적 차원보다 담화 화용적 차원에서 밝혀져야 할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담화 화용적 특성을 보여주는 특수부류의 구문이라 할 수 있다(남길임, 2004). 두 구문 모두 주로 구어에서 나타나는 구문이므로 문어 자료인 신문(사회) 코퍼스에서 사용 빈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구문을 제외한 7 가지 의미 기능이 실제 코퍼스 문장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예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79)의 예문들은 모두 확인 구문으로 볼 수 있는 용례이다.

(79) 확인 구문 예문

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정의)

나. '요크'는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멍에'란 뜻**이다**. (정의)

다. 선마포을에선 유명 디자이너 '오리지널리'(이선우 씨)의 남편**인** 박주천씨(민자)가 야당 거물 김현규 후보(민주)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동일)

라. 심규철·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등은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동일)

마. 특히, 실험실습 설비 제공은 산학연 활동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극한값 수식).

바. 예외가 적용되는 질환은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잘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 질환, 간질환(만성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열거)

확인 구문은 지시와 동일을 나타내는 구문 또는 정의나 환언문, 그리고 극한값을 나타내는 단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모두 이에 속할 수 있다. (79 가, 나)는

64 세종 21 말뭉치 현대 구어 자료에서는 "나는 강남구였고?", "너 공일육이잖아.", "나는 근육이야", "걔도 자궁암이라잖아."와 같은 상황의존적 구문의 사용이 나타났다. 문어 자료 중에서도 사건과 상황이 존재하는 '아동도서/상상적 산문' 자료에서는 "와아!, 첫눈이다!", "신문이오!", "산돼지다! 주인의 친구가 소리질렀다."와 같은 제시 구문의 사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현장성'이 없는 문어 자료라는 점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DOI:10.6814/NCCU202100335

각각 ‘기소유예’와 ‘요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구문이고 (79 다, 라)는 동일한 사람 또는 사물을 지시하는 동일 구문이다. ‘박주천 씨는 유명 디자이너 ‘오리지널리’(이선우 씨)의 남편이다’와 같이 그 순서를 바꿨을 경우도 문장이 성립하고 또 주어와 보어가 동일 인물을 지시하고 있다. 물론 ‘이선우 씨의 남편’을 박주천 씨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볼 경우 속성 구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중의성을 가진 구문이지만 본고에서 제시했듯이 앞, 뒤 명사구의 위치를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 또 고유명사와 ‘이선우 씨의 남편’이라는 지시적인 단어가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확인’으로 볼 수 있다.

(79 마)는 극한값을 나타내는 ‘가장 눈에 띄는’이라는 수식을 받은 명사구로서 지시성이 높은 구문이다. 두 명사구의 위치를 바꿔도 문장이 성립되어 역시 확인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79 바)의 ‘등’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거나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서 제시한 대상만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로써 주어와 같은 종류의 사물을 열거할 때 사용된다. 주어와 동일한 종류의 사물을 제시한다는 점과 주어와 보어의 위치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동일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동일, 지시를 나타내는 확인 구문은 총 46 토큰으로 4.6%의 사용 빈도율을 보였다.

속성 구문은 분류문, [속성적]NP 구문 1, [속성적] NP 구문 2, [속성적]N 구문, 비유문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분류와 속성의 의미 영역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지만 서강보(2019)는 정도 부사의 수식 여부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학생’과 같은 집합 부류(class membership)를 이루는 명사인 경우 [-정도성]자질을 갖기 때문에 ‘*그는 매우 학생이다’와 같이 정도 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하나 속성 구문은 ‘그 옷이 매우 빨간색이다’처럼 정도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고명이, 2016:16).

이에 본고에서도 정도 부사의 수식이 가능한 것은 속성 의미로 분류하고 정도 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한 것은 분류문으로 분류하였다. 정도 부사의 수식 중에서도 ‘제일, 가장, 유일한’과 같은 극한적 수식을 나타내는 경우는 확인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아래 예문(80)은 속성 구문 중 분류를 나타내는 예문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80) 속성 구문 중 분류문 예문

가. 2000 년 9 월 계열사**인** 포스데이타가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나. 인문계는 국어 영어가 필수 과목**이고** 국사 사회 지리 세계사 중 1 과목은 선택**이다.**

다. 마음 속으로는 미국전에서 진짜 한국이 이겼으면 하지만 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겉으로 드러내 말할 수는 없다.

(80 가)는 '포스데이타는 계열사이다' 라는 문장이 관계 관형화[65] 를 거친 문장으로 보아 분류문으로 분류하였다. (80 나)에서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역시 하나의 포함관계로 볼 수 있다. (80 나)의 '선택이다'는 구조적으로만 보면 '서술성 명사+이다'가 하나의 동사처럼 작용하는 '[속성적] N 구문'과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선택 과목'에서 '과목'이 생략된 것으로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분류 구문으로 봐야 한다. (80 다)는 주어 '나'가 보어인 '미국 사람'에 포함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분류문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문은 총 144 토큰으로 속성 구문 중에서 24.8%로 두 번째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다음은 [속성적] NP 구문 1 로 주어의 시·공간적 상태, 모양, 객관적 가치 등 객관적인 존재양식이나 속성을 서술하는 구문이다. 아래 (81)예문이 모두 [속성적] NP 구문 1 에 속한다.

(81) [속성적] NP 구문 1 예문

가. 여기서 백두대간까지는 8km. 강풍이 불면 몇 시간 안에 불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나. 이어 설기현은 기술있는 선수이며, 유상철과 홍명보 등은 경험이 풍부한 노장 선수**라고** 소개했다.

다. 최근 유괴·납치범들은 전과자나 '막가파식' 생활을 해 온 흉악범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라. 유제호 전북대 교수(불어불문학과)는 "민간정부 출범으로 민주화 운동의 이론적 구심으로서 연구소들의 위상에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새로운 재편의

65 남길임(2004)은 속성적 구문은 주어 명사를 표제 명사로 하는 관계 관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철수는 학생이다'를 관계 관형화 하면 '학생인 철수'가 되는 것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 또한, 직선제에 대한 최근의 '역풍'은 사회의 보수화 경향과 대학 경쟁 분위기에 편승해 능력 있는 인사 영입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법인의 학교 운영권 독식 기도라는 게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81 가)는 보어가 주어의 객관적인 공간적 거리를 나타내는 예문이다. (81 나)는 보어 '경험이 풍부한 노장선수'가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며 '아주', '매우'등의 정도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다. [속성적] NP 구문 1 이 다른 속성적 구문과 구분되는 통사적 특성은 중주어문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두 예문 모두 중주어문[66]이 가능하므로 [속성적] NP 구문 1 로 볼 수 있다. (81 다)는 속성을 나타내는 '평범한'이라는 단어의 수식을 받은 명사구가 보어로 쓰여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81 라)는 구조적으로 보면 분열문처럼 보이지만 분열문이 아닌 속성 구문이다. 남길임(2006b)은 분열문이 중립문의 어떤 성분을 강조하기 위해 그 성분을 이동시키는 통사적 조작의 결과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것은 ~이다' 형태를 가지면서도 이동을 전제할 수 없어 본래 중립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분열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81 라)의 중립문 구조를 상정할 경우 (81')와 같은 문장이 되는데 이는 비문으로 (81 라)는 본래 구조의 쌍을 전제할 수 없는 구문임을 알 수 있다.

(81')*가. 사실로 민간정부 출범으로 민주화 운동의 이론적 구심으로서 연구소들의 위상에 변화가 왔다.

또 이와 같이 비분열문의 구조의 쌍을 전제할 수 없는 구문에는 '다행이다, 물론이다, 보통이다…'와 같이 어휘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유형들도 포함되는데 이 구문에서 '~이다'는 주로 주어인 '~것'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81 라)의 '사실이다'는 '이다'에 선행하는 성분을 초점화하여 '사실'을 강조한다기보다 주어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81 마)와 같은 경우는 '이다' 앞의 성분이 본래 문장에서 이동된 성분으로 보기 힘들며 또 강조 성분이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앞에 있는 주어라

[66] (81 가,나)는 아래와 같이 중주어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거리가) 강풍이 불면 몇 시간 안에 불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나. 유상철과 홍명보 등은 (특징이/장점이) 경험이 풍부한 노장선수**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는 점에서 분열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남길임(2006b)은 이러한 구문은 분열문이 아니며 분열문 구성 이전의 문장도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남길임(2004)에 의하면 (81 마)는 중의적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중의적 구문은 보어명사항에 비지시적인 일반 명사구가 쓰여 문맥적으로 지시적인 해석을 받으면 지시적 구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속성적 구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의적 구문은 어떤 특정한 맥락이 전제되지 않는 한 속성적 해석이 우선적이라고 하였다. 중의적 구문은 어휘의 의미 특성상, 다른 대상과의 관계가 'NP'의 꼴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NP 의' 성분이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 또 지시적 구문처럼 주어와 보어의 자리 바꿈도 가능하다. 이 모든 특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81 마)는 중의적 구문에 속하는 속성 구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적]NP 구문 1'은 총 108 토큰으로 전체 속성 구문의 18.6%를 차지한다.

다음은 [속성적]NP 구문 2 에 속하는 예문들이다. [속성적]NP 구문 2 는 구문의 특성상 NP2 가 관형절 보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문으로 주로 보어가 주어의 심리 상태 또는 주어의 내적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외적 상태나 상황을 나타내는 구문이다.

(82) [속성적] NP 구문 2 예문

가. 이들의 한달 평균 일하는 날을 20 일로 잡아도 월 1 백만원은 간단히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외적)

나. 대출은 580 억원..99 년 2 월 부임 후 대출한 1200 여억원의 절반 가까운 규모**이다.** (외적)

다. 신씨는…이런 인터뷰가 행여 자식에게 해를 끼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심리)

라. 노동청은 조사 결과 회사쪽의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사법조처를 의뢰할 방침**이다**(외적)

마. 이번만은 내부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인** 듯 하다.(심리)

예문(82)는 모두 NP2 에 선행하는 관형절을 생략할 경우 비문이 된다. 이 구문을 형성하는 NP2 는 인칭 제약을 받기도 하는데 그 종류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DOI:10.6814/NCCU202100335

(83) [속성적] NP 구문 2 인칭 제약별(남길임, 2004:131)

가. 화자-주어 일치 인칭 제약 구문:

각오, 계획, 방침, 생각, 심산, 예정, 작정, 기분, 느낌, 마음 , 심정, 의견, 심사,..

나. 화자-주어 비일치 제약 구문:

경향, 기색, 기세, 눈치, 속셈, 시늉, 안색, 설명, 눈빛, 태세, 표정,…

다. 인칭 제약과 무관한 구문:

실정, 입장, 상황, 처지, 태세, 형국, 형편,…

이러한 [속성적]NP 구문 2 는 총 149 토큰으로 속성 구문 중에 제일 높은 비율(25.7%)로 나타났다.

다음은 [속성적] N 구문에 속하는 예문이다. [속성적]N 구문은 '이다'가 서술성 명사류와 함께 쓰여서 '하다'처럼 기능 동사의 역할을 하는 구문이나 단일 형용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구문, 또 '-와'와 같은 논항을 요구하는 관계 명사류 구문도 모두 포함한다. 먼저 예문(84)는 관계 명사류에 속하는 예문이다.

(84) [속성적] N 구문(관계 명사)

가. 1. 이처럼 신씨는 박씨와 불법대출의 공모 관계**이기도** 하지만 신씨가 박씨 몰래 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박씨를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나.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는 오씨와 진범인 임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촌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회원 조유진씨(26·여)는 "한국과 터키는 오랜 우방**인**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84)는 모두 관계를 나타내는 용례로 '명사+ 이다' 구성이 'NP 와'와 같은 명사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문이다. 이러한 구문은 총 9 토큰으로 전체 속성 구문 중에 1.6%만 나타났다.

다음은 '명사+ 이다' 구성이 형용사 또는 동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구문의 예이다.

(85) [속성적] N 구문(서술성 명사)

가. 많은 책을 그 비싼 돈을 주고 다 살 수 있을는지 걱정**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나. 현실 도피**인가**? 아니면 정치권 탄압 때문인가.
다. 자영 운송 운전사들이 부인이나 가족을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는 게 유행**이다.**
라. 그나마 태반이 제대로 키가 크지 않아 과연 얼마나 끝까지 살아남을지 미지수**인** 상태다.
마. 이라크군들이 안방에까지 들어와 TV 등 가전제품, 금, 은, 보석은 물론**이고** 상점의 물품을 쓸어갔다.
바. 병원에 옮겼으나 차씨는 숨지고 성균군은 중태**다**.

(85 가, 나, 다)는 모두 '하다' 기능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문으로 '걱정한다', '도피하는 건가?', '유행한다'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구문이다. 특히 (85 다)의 경우는 구조만 봤을 때는 '~것이(=게) ~이다'의 분열문 같으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 구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행이다'가 아닌 앞에 있는 주어의 내용이므로 분열문과 구분되는 문장이다. (85 라, 마, 바)는 각각 명사, 부사, 상태 명사가 '이다'에 선행하여 하나의 서술어로서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문이다. 이러한 구문은 총 52 토큰으로 전체 속성 구문 중에 9%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적명사+ 이다' 구문에 속하는 예들이다.

(86) [속성적] N 구문(-적 명사)
가. "남북한 정권은 기득권 보호에 급급하지 말고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향진씨 주검을 찾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도 두 사람이 나눠 낀 커플반지였다.
다. 폐업은 의사 개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공식적**인** 입장은 협회가 내릴 수 없다.

'-적' 파생어는 주로 한자어(漢字語)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상태로 된 (것)', '그런 성질을 띤 (것)', '그것에 관계된 (것)' 등의 뜻의 명사나 관형사를 만든다. (최형용, 2000:234) 그 중 명사로 파생된 '-적명사 + 이다' 구조는 문장에서 주어의 특성 및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진다. 이 구문은 총 108 토큰으로 전체 속성 구문 중에 18.6%를 차지하였다. '-적명사' 구문이 높은 빈도율을 보이는 이유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문어 자료라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길임(2009:283)에서도 학술 개론서와 자유 대화를 포함한 총 20 만어절의 전

DOI:10.6814/NCCU202100335

사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적'의 항목 빈도와 유형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술], [+문어]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비유에 속하는 예문이다.

(87) 비유 구문

가. 22세 때 결혼한 최씨 인생은 가시밭길**이었다**.

나. 대구 공무원들 대구은 위탁교육 "민원 공무원은 시의 얼굴**입니다**.

다. 특히 7당 연립의 호메이니격**인** 야마기시(산안장) 연합 회장이 "비자민 연립 정권 탄생시 후보는 꼭 하타(우전)만은 아니다"고 언급…

비유 구문은 어떤 사물에 대해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사물을 끌여들여 빗대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주어의 성격과 속성을 표현하는 구문이다. (87)은 모두 비유를 나타내는데 (87 가)는 최씨의 인생이 가시밭 길처럼 고되고 힘들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87 나)는 민원 공무원의 표정이 밝아지면 대구 시도 밝아진다는 의미로 민원 공무원의 얼굴을 시의 얼굴로 비유하였으며 (87 다)는 야마기시 회장을 이란의 최고 정치가인 호메이니에 비유한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은 총 10 토큰으로 전제 속성 구문 중에서 1.7%만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속성 구문의 유형별 빈도율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속성	속성 유형	토큰 수	빈도율
분류문	분류문	144	24.8%
NP 구문 1	객관적속성	108	18.6%
NP 구문 2	외적상태, 심리상태	149	25.7%
N 구문	관계 명사	9	1.6%
	서술 명사	34	6%
	상태 명사	18	3%
	'-적' 명사	108	18.6%
비유	비유	10	1.7%
소 계		580	100%

<표> 12 '이다' 구문의 속성 의미 기능 사용 양상

<표12>에서 보면 속성 구문은 총 580토큰으로 '이다'의 9가지 의미 기능 중에

DOI:10.6814/NCCU202100335

최고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속성 구문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속성은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계사의 공통적인 의미 기능이지만 언어마다 그 실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3 장에서 '이다' 와 중국어 계사 '是'의 속성 의미 기능을 대조했을 때 '속성적 NP 구문 2'와 '속성적 N 구문'(관계구문 제외)이 서로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아 이 두 유형의 구문은 '이다' 구문만의 독자적 기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속성을 나타내는 구문 중 문장에서 '이다' 구문이 형용사 및 동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다'의 독자적인 기능이 전체의 반을 넘는 54%의 높은 사용 빈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성적 NP 구문 2'와 '속성적 N 구문'(관계구문 제외)의 의미는 '是' 구문에서 나타나지 않는 기능이므로 중국어 모어 학습자들이 학습 시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존재 구문의 예이다.

(88) 존재 구문

가. 장씨의 논은 흙더미로 뒤덮여 이곳이 과연 논**이었**는지조차도 알아볼 수 없었고,
비닐하우스참외밭은 철근마저 크게 휜 채 펄밭이 되어 흉한 몰골을 드러냈다.

'이다' 구문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주어 자리에 반드시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고 보어 자리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야 한다. 위 예문에서 주어 자리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이 곳'이 위치하고 보어 자리에 '논'이라는 대상이 위치하므로 '이곳에 논이 있었다'와 같은 존재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존재 구문은 단 1 토큰만 나타났는데 이렇게 '이다' 구문에서 존재 의미의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한국어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 '있다'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수량 및 시간 구문에 속하는 예문이다.

(89) 수량 및 시간 구문

가. 이 국장은 현재 교외 이전을 추진중인 군 부대는 34 개**라고** 밝혔다. (수량)

나. 첫 생계비는 10 월 20 일**이고** 매월 20 일 해당 가구의 예금 계좌로 지급된다. (날짜)

다. 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경영손실을 당초 9009 억원**이라고** 하다가, 23 일에는 1 조 1600 억원**이라고** 밝혔다. (금액)

DOI:10.6814/NCCU202100335

라. 마무리를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때**다**.(시간 명사)

마. 19 일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측이 공개한 녹취록은 … A4 용지 6 장 분량**이다**.(수량 명사)

바. 안씨는 이날 지하철수사대에서 근무하는 남편 윤아무개(48) 경위를 만나러 동대문시장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시기)

수량 및 시간 구문은 '이다' 앞에 수량, 날짜, 금액 등을 나타내는 수량사 외에도 수량, 시간, 시기를 나타내는 명사가 선행하는 구문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89 가,나,다)는 각각 수량, 날짜, 금액을 나타내는 구문이다. (89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67] '때'가 선행하고 (89 마)는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분량'이 선행하고 (89 바)는 시기를 나타내는 명사 '참'이 선행하는 구문이다. 이 외에 시간, 시기를 나타내는 명사로 '기간, 날, 밤, 당일, 뒤, 직전, 직후, 마감일, 만기일, 신정, 영업일, 말기, 신정, 이전, 환갑일, 무렵' 등이 나타났으며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로는 '대부분, 둘째, 미만, 이상, 이하, 전부' 등이 나타났다. 이 유형의 구문은 총 116 토큰으로 11.6%의 사용 빈도율을 보였는데 그 중 수량사(구) 및 서수가 아닌 명사로 이루어진 구문이 55 토큰으로 전체 수량 및 시간 구문의 절반에 달하는 높은 사용 양상을 보였다.

다음은 분열문을 나타내는 예문들이다.

(90) 분열문

가. "의사는 환자들의 '신뢰'와 '존경'을 먹고 사는데 파업을 통해 우리가 국민들에게 받은 것은 '냉소'**였습니다**.(목적어)

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론, 대중 문화론이냐 하는 것이다(주어)

다. 파란만장한 한·중 현대사의 풍파를 겪으며 힘든 삶을 견디고 있는 것은, 조국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한 가지 열망 때문**이다**.(부사어)

라. 7 대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탄 것은 80 년 방화사상 처음**이다**.(부사어)

[67] 시간 구문의 NP2 는 보통 '가을, 봄, 국경절, 추석, 광복절, 개천절, 단오절, 식전, 식후, 아침, 저녁, 일요일, 주말, 아홉 살, 때, 전, 뒤' 등과 같은 어떤 계절, 명절, 시간이나 때 및 연령, 나이 등을 나타내는 명사로 실현된다. 이런 시간이나 연령을 나타내는 체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다' 구문은 '벌써, 이미, 겨우, 이제야, 아직' 등과 같은 시간관계를 한정하는 부사로 된 수의적 구성요소를 더 첨가하여 확대시킬 수 있다(진열, 2012:24).

DOI:10.6814/NCCU202100335

(90)은 모두 분열문으로 중립문에서 강조하려는 성분을 분리하여 이동시킨 구문이다. (90)의 예문을 모두 아래와 같은 중립문으로 상정할 수 있다.

(91) 중립문

가. "의사는 환자들의'신뢰'와 '존경'을 먹고 사는데 파업을 통해 우리가 국민들에게 **냉소를** 받았다. (목적어)

나. 하지만, **어떤 문화론, 대중 문화론이냐가** 여기서 중요하다. (주어)

다. **조국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한 가지 열망 때문에** 파란만장한 한·중 현대사의 풍파를 겪으며 힘든 삶을 견디고 있다. (부사어)

라. **80 년 방화사상 처음으로** 7 대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탔다. (부사어)

분열문의 초점 자리에 올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 남길임(2006b)은 “주어>부사어>목적어>보어”의 순으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띤다고 하였는데 본고의 코퍼스 분석 결과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000 토큰 중에 분열문은 총 20 토큰이며 그 중 초점 자리의 성분은 “주어(10)>부사어(8)>목적어(2)”순으로 나타났다. 부사어의 경우 주로 문장에서 시간,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초점 자리에 위치하였다.

다음은 양상적 구문에 속하는 예문이다.

(92) 양상적 구문

가. 어머니께서는 74 년 79 세로 눈을 감으면서 동생은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추측)

나. 그러나 이 일병은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어서** 그를 구속한 것은 보복성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제한, 한정)

다. “우리 당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고 화살을 던졌다.(의지)

라. 우리나라 대학들은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유)

마. 'KKK'논란이 개그맨 조사로까지 이어지는 '개그'가 벌어진 셈**이다** (결과/형편)

바. 운전사가 고장난 트럭을 바꾸려고 내리면서 핸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잊은 것**이다.** (단정)

사. 이 중장 일행은 해병 1 사단 작전 인수권을 협의키 위해 경기도 장호원에서 경북

DOI:10.6814/NCCU202100335

포항으로 가던 길**이었다.**

아. 이들 참전용사는 전쟁기념관에서 전시 **중인** 조선일보 주최 '아! 6·25 전'을 관람했다.

양상적 구문은 '이다'의 확장된 의미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양태 구문과 유형론적 계사의 기본 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상적 구문으로 이루어진다. (92)상위 예문들은 모두 '의존명사+이다'의 구조를 가지고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또는 상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92 가)는 동생이 살아있을 거라는 추측을 나타내고 (92 나)는 일병이 지시관의 명령에 따른 것 뿐이라는 한정성을, (92 다)는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고 (92 라)는 이유를, (92 마)는 결과와 형편을, (92 바)는 화자가 명제에 대해 단정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92 사, 아)는 모두 '진행'의 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정곤 • 김건희(2011: 95)에서 '의존명사+이다' 구문의 선후행 요소에 따른 양태의미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선행 요소	의존명사	후행 요소	의미
는, 던, 은, 을, 었을	것(비문법화)	이다	인식양태-단정
는, 다는, 라는, 은, 자는	격	이다	인식양태-단정
는, 은	꼴	이다	인식양태-단정
기	나름	이다	인식양태-단정
을, 었을	노릇(비문법화)	이다	인식양태-단정
을, 었을	따름	이다	인식양태-한정
것, 기, 음	때문	이다	인식양태-이유
는, 은	마당	이다	인식양태-정도
기, 게	마련	이다	증거양태-당위
을	맛	이다	인식양태-단정
기(에), 니, 니까	망정(비문법화)	이다	인식양태-단정
는, 은, 던, 었던, 을	모양(비문법화)	이다	인식양태-추측
는	바	이다	인식양태-단정
을, 었을	뿐	이다	인식양태-한정
을, 는, 은, 던, 었던	셈	이다	인식양태-단정

DOI:10.6814/NCCU202100335

는, 은	식	이다	인식양태-단정
기	십상	이다	증거양태-당위
기	일쑤	이다	증거양태-당위
을, 는, 은	지경(비문법화)	이다	인식양태-정도
을, 었을	참(비문법화)	이다	인식양태-의도
을, 기 는, 은, 던, 었던	탓(비문법화)	이다(나름 의미) 이다(때문 의미)	인식양태-단정 인식양태-이유
을, 었을, 는, 은, 던, 었던	터(비문법화)	이다(테다)	인식양태-의도
는, 은, 던, 을	판(비문법화)	이다	인식양태-정도
는, 은, 었던	편	이다	인식양태-정도
은, 는, 다는, 으란 을, 었을	법	이다 하다	증거양태-당위 인식양태-추측
을 은, 는	양	이다 하다	인식양태-의도 인식양태-추측(가식)

<표> 13 '의존명사+ 이다' 구문의 선・후행 요소와 양태 의미

<표 13>에서 제시한 양태 유형은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인데 인식 양태는 명제의 진리치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증거 양태는 명제의 진리치나 사실성에 대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의 출처와 연관되는 것을 나타낸다. 인식 양태는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한정, 단정, 이유, 정도, 의도, 추측으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증거 양태는 과거 경험이나 일상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토대로 명제에 대하여 당연한 귀결을 나타내는 '당위'라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시정곤・김건희, 2011).

이러한 양상적 구문은 총 228 토큰으로 전체 구문 중 22.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남길임(2015)에서 21 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2011 년 성과물, 문어자료 10,130,363)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남길임(2015)에서도 양상적 구문을 형성하는 '이다'가 전체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양상적 구문은 총 228 토큰 중 양태구문이 157 토큰으로 양상적 구문의 69%, 상적 구문이 71 토큰으로 31%의 빈도율을 보였다.

다음은 관용 구문의 예문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93) 관용 구문

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격**이라고** 할까요?(속담)

나. 유복자인 줄만 알고 자랐는데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다. 교수가 사용하던 악기를 특별히 불하받는 경우의 가격은 천정부지**다.**(고사성어)

라. 20 여만명이 거리 응원을 펼친 경기도에서도 열광의 도가니**였다.**

한국어에서 '이다' 관용 구문은 일반적으로 구성 요소의 의미와 상관없이 제 3 의 의미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93 가)는 공들인 일은 쉽게 헛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이다. (93 나)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 믿을 수 없을 때 쓰는 관용어이며 (93 다)는 물건값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는 고사성어 뒤에 '이다'를 쓴 경우이다. (93 라)는 여러 사람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을 나타내는 관용어로 이 모든 예문들이 관용 구문에 속한다.

남길임(2004)에서 관용 구문은 '명사+ 이다'가 하나의 의미단위로 기능하므로 '명사'가 본래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이다' 역시 '지정'이라는 본래의 어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내 마음은 호수요'와 같은 비유 구문과는 구분이 된다. 여기서 '호수'는 진짜 '호수'를 가르키면서 호수같이 잔잔하다는 것을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93 라)의 '열광의 도가니'에서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그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흥분으로 열광하는 상태를 뜻하는 제 3 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어이다. 이러한 관용 구문은 총 9 토큰으로 0.9%의 빈도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코퍼스에서 나타난 '이다'의 의미 기능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의미별 사용 빈도 결과를 표로 만들면 아래 <표 14>과 같다.

	1	2	3	4	5	6	7	8	9	
의미	확인	속성	존재 소유	수량 시간	분열문	양상 구문	관용문	제시문	상황의존 구문	소계
토큰수 (token)	46	580	1	116	20	228	9	-	-	1000
비율(%)	4.6	58	0.1	11.6	2	22.8	0.9	-	-	100

<표> 14 '이다' 구문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

DOI:10.6814/NCCU202100335

이러한 의미 기능 사용양상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세종 21 말뭉치 신문보도해설(사회) 코퍼스에서 '이다' 구문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은 '속성>양상>수량 및 시간>확인>분열문>관용 구문>존재 및 소유'순으로 높은 빈도율을 보였다. 제시 구문과 상황 의존 구문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고의 분석 대상이 문어자료라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어 '是' 구문과 대응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기능과 대응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의미 기능의 비율이 45.4% : 54.6%로[68] 비대응 관계를 보이는 의미 기능의 사용 빈도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속성 구문 중에 '명사+이다'의 구성으로 문장에서 형용사 또는 일반 동사의 의미 기능을 하는 '이다' 구문의 독자적인 의미 기능과 계사의 확장적 의미 기능인 양상적 구문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셋째, 보어 명사항에 비지시적 명사구가 쓰이는 '분류, 비유, 존재, 소유, 수량, 시간 구문' 까지 모두 속성 구문으로 볼 경우, 확인과 속성의 의미 기능 사용이 전체의 75%에 가까운 빈도율을 보인다. 이는 한국어에서 계사 '이다'의 주요 기능이 확인 구문과 속성 구문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다'의 결합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보어 자리에 위치한 단어, 즉 '이다'에 선행하는 요소의 분포가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

아래 <표 15>는 '이다'에 선행하는 요소의 분포율을 나타낸다.

[68]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이 서로 대응 관계를 보이는 의미 기능은 확인(4.6%), 분류(14.4%), 객관적 속성(10.8%), 관계명사(0.9%), 비유(0.1%), 존재(0.1%), 분열문(2%), 시간 및 수량(11.6%) 구문이다. 비대응 관계를 보이는 의미 기능은 속성 NP 구문 2(14.9%), 속성 N 구문(16%), 양상적 구문(22.8%), 그리고 관용 구문(0.9%)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선행요소	빈도(회)	빈도율	소계
자립 명사(구)	520	52.0%	
의존 명사	238	23.8%	
상태, 서술명사	47	4.7%	
적명사	108	10.8%	98.4%
어근 명사	0	0.0%	
관계명사	9	0.9%	
수량사	62	6.2%	
부사	5	0.5%	
조사	6	0.6%	
어미	1	0.1%	1.6%
성어	2	0.2%	
속담	2	0.2%	
총계	1000	100.0%	100.0%

<표> 15 '이다'의 선행 요소 분포율

<표 15>를 보면, '이다' 구문의 보어 명사항 자리에 의존 명사나 명사절을 포함한 명사 상당어구의 분포율이 98% 이상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명사 상당어구의 압도적인 분포율이 지금까지 '이다'의 기본 문형이 'NP1 이 NP2 이다'로 논의되어 온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1.6%는 '금세, 물론, 정말'과 같은 부사와 '만, 부터' 등의 조사, '~기 위해서'의 '연결어미'의 성분 그리고 성어, 속담 등 다양한 성분이 분포하였다. 비록 명사 외에 다양한 성분과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나 그 분포율이 높지 않고 명사 상당어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봐서 '이다' 구문은 Pustet(2003)에서 제시한 4 가지 계사의 결합 유형 중에서 명사와만 결합하는 계사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명사 상당어구 중에서 의존 명사의 분포가 2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존명사+ 이다' 구성의 양태 구문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의미 기능 분석에서 양태 의미 기능 사용도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이다'와 의존명사의 결합 구조가 양태 의미 기능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적'명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본고의 연

DOI:10.6814/NCCU202100335

구 대상이 문어라는 점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적'명사가 '이다'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길임(2009)에서도 '-적'의 사용 양상이 관형사로 쓰인 경우보다 명사로 쓰여 '이다', '으로'와 결합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 '세종 21 말뭉치' 신문보도해설 코퍼스 1,000 토큰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과 '이다'와 결합 가능한 선행요소를 알아보았다. '이다' 구문의 보어 자리에 어떠한 요소가 오느냐에 따라 문장의 유형이 달라지는 만큼 '이다' 구문의 의미 기능과 '이다'와 결합 가능한 요소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是' 구문의 사용 양상

'是' 구문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 확인을 위해서 총 10 가지의 의미 기능을 기준으로 코퍼스를 분류하였다. 10 가지 의미 기능은 '확인, 속성, 존재 및 소유, 수량 및 시간, 강조, 대비, 관용 구문, 분열문, 해석문, 기타 구문이다. '是' 구문에서도 '이다' 구문과 같이 제시 구문과 상황의존적 구문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다' 구문에 나타나지 않는 '해석, 대비, 강조, 기타' 등의 의미 기능 항목이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 기능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Sinica corpus 4.0'에서 용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94)는 확인 구문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94) 확인 구문

가. 第三名**是**菲律賓選手安多尼.(동일지시)
(3 위는 필리핀 선수 안도니이다.)

나. 台灣人只有七位，而周雲亮**是**唯一的新竹人，其他都是日本人.(극한계 수식)
(대만인은 7 명뿐인데 주운량은 유일한 신죽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일본인이다.)

다. 「世界最大的岩石」美譽的艾亞斯岩**是**最具代表性的奇岩.(극한계 수식)
(세계에서 가장 큰 암석으로 유명한 에어스록은 가장 대표적인 기암이다.)

라. 前六位理事長依次**是**于豪章, 馬安瀾, 郝柏村, 蔣仲苓, 黃幸強, 陳廷驊.(열거)
(6 명의 전 이사장은 순서대로 우호장, 마안란, 적백촌, 장종령, 황신강, 진정총이다.)

마. 「膨風」就**是**吹牛的意思啦！(정의)
("팽풍"은 허풍을 친다는 뜻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확인 구문은 보어 명사항이 주어 명사항과 동일한 대상임을 지시하는 구문으로 두 명사항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없는 구문이다. (94 가)는 주어인 '3 위'와 '필리핀 선수 안도니'가 동일 인물임을 나타내는 지시 구문이다. (94 나, 다)는 극한계를 나타내는 단어 '유일한, 가장' 등의 수식으로 지시성을 높인 구문으로 呂叔湘(2007)에서도 이 유형의 구문을 확인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94 라)는 주어와 같은 범위에 속하는 인물을 열거하는 구문으로 劉月華외(2001)에서 확인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94 마)는 주어 '팽풍'의 뜻을 풀이하는 정의 구문으로 역시 확인 구문으로 볼 수 있다(范曉, 1999). 확인 구문은 총 46 토큰로 4.6%의 사용 빈도율을 보였다.

다음은 속성 구문의 예이다.

(95) 속성 구문

가. 大家都應該有「我們都**是**一家人」的共識.(관계명사-분류)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나. 只認定小朋友出生時爸爸**是**中國人, 才可取得中國籍.(분류)
(다만 아이 출생 시 아빠가 중국인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 你**是**一塊未琢磨的玉，好好努力！(비유)
(너는 아직 다듬지 않은 옥이니 열심히 잘 해봐.)

라. 小朋友馬上發現碗**是**保麗龍碗.(재료)
(어린이들이 그릇이 스티로폼 그릇임을 바로 알았다.)

마. 阿亨城都**是**日耳曼皇帝的加冕地區.(특성)
(아헨성은 모두 게르만 황제의 대관 지역이다.)

바. 她**是**一個嬌小的淑女.(묘사)
(그녀는 작고 아담한 숙녀이다.)

사. 使用再生紙印製校刊, **是**很好的環保做法.(평가)
(재생 종이로 교보를 인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환경보호 방법이다.)

속성 구문은 보어 명사항이 어떤 방면에서 주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중국어 특유의 구문이다(劉月華외, 2001). 속성 구문에서 보어 명사항은 주로 주어의 성격, 특징을 설명하고(劉月華외, 2001), 주어의 재료와 옷차림, 역할, 수단 등은 물론 주어에 대한 평가와 묘사도 나타낸다(呂叔湘, 2007). '이다' 구문과 마찬가지

DOI:10.6814/NCCU202100335

로 분류문과 비유문 역시 속성 구문에 포함하였다.

(95 가)는 관계 명사가 있는 구문으로 呂叔湘(2007)에서는 이와 같은 구문을 분류 구문[69]으로 간주하였다. 본고에서도 그의 견해에 따라 분류문으로 분류하였다. (95 나)는 주어인 '아빠'가 '중국인'에 속하는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분류문이다. (95 다)는 주어를 '다듬지 않은 옥'에 비유하며 주어의 속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비유 구문이다. (95 라)는 보어가 주어의 재질을 나타내는 구문인데 石毓智(2005)에서는 이러한 구문을 분류문으로 분석하였으나 呂叔湘(2007)에서는 이러한 구문을 분류문이 아닌 속성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재료나 재질은 주어의 속성 중 하나로 보이며 주어를 이루는 재료 자체가 주어의 종류를 나타낸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도 이러한 구문을 속성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95 마)는 주어 아헨성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구문이며 (95 바)는 주어에 대한 묘사를 나타낸 구문이다. 마지막으로 (95 사)는 주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구문인데 평가 역시 주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모두 속성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95)의 속성 구문은 모두 '주어+是+명사(구)'의 형식을 가지며 '이다' 구문과 대응 관계를 보이는 구문이다. 분류 및 비유 구문을 포함한 속성 구문은 총 359 토큰으로 전체 의미 기능 중 제일 높은 사용 빈도율을 보였다.

다음은 존재 및 소유 구문의 예문이다.

(96) 존재 및 소유 구문

가. 左邊的房間是正房，右邊則**是**二房

(왼쪽 방은 본채이고, 오른쪽은 별채이다)

나. 前方正**是**坪林溪河谷，水流清澈

(앞쪽이 바로 평림계 계곡인데, 물살이 맑고 깨끗하다.)

다. 島中央的火山斜坡上盡**是**丁香的綠色森林。

(섬 중앙의 화산 비탈에는 정향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존재 구문은 어떤 장소에 어떤 사물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주어 자리에 반드시 방위사(方位詞語)가 오고 보어 명사항에 사물명사가 와야 한다.(石毓智, 2005) (96 가~다)는 모두 주어 명사항 위치에 장소와 방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자리한 존재 구문이다. 존재 구문은 총 8 토큰으로 의미 사용 빈도율이 매우 낮게

[69] 表示歸類(분류 표시) : 他們倆是好朋友.(그들은 좋은 친구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나왔는데 이는 중국어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별도의 '有' 구문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수량 및 시간 구문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97) 수량 및 시간 구문

가. 大約有五萬八千兩百八十九人，做健康檢查的費用大約(是)三百萬元. (금액)
(약 5 만 8 천 2 백 8 십 9 명이 있는데, 건강 검진을 하는 비용은 대략 3 백만 위안이다.

나. 尤其鈣質方面，衛生署對於十三到十五歲男生的建議量(是)每日八百毫克.(수량)
(특히 칼슘의 경우, 보건소에서 13 세~ 15 세 남학생에 대한 권장량은 매일 800 밀리그램이다.

다. 昨天是農曆七月十五中元節.(날짜)
(어제는 음력 7 월 15 일 중원절이었다.)

라. 活動焦點(是)從下午六時起的迎水燈繞境遊行及深夜十二時.(시간)
(행사의 절정은 오후 6 시부터의 수등 퍼레이드와 심야 12 시이다.)

수량 및 시간 구문은 총 22 토큰으로 매우 낮은 사용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이슬기 (2019)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국어에서 수량사(구)는 원래 자체 술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是'의 출현이 수의적이기 때문이다. (97)예문에서 '是'는 대부분 생략이 가능하다.

다음은 분열문의 예문이다.

(98) 분열문

가. 在光復之前, 學校都(是)用日語教學, (도구 초점화)
(광복 이전까지 학교가 수업할 때 사용한 것은 일어였다.)

나. 公司(是)去年開始和大陸方面接洽 (시간 초점화)
(회사가 대륙측과 교섭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이었다.)

다. 第三位(是)在開刀房做淋巴腺切除檢查而感染.(장소 초점화)
(세 번째 사람이 림프선 절제검사를 하고 감염된 것은 수술방에서였다)

라. 有的是用噴漆噴上去的.(是…的 분열문/도구 초점화)
(어떤 것은 뿌린 것이 스프레이 페인트였다.)

마. 這不是國民黨創造的, 又是誰創造的. (是…的 분열문/주어 초점화)
(이게 국민당이 만든 것이 아니면 누가 만든 것인가.)

DOI:10.6814/NCCU202100335

바. 他選的**是**繪畫. (목적어 초점)
(그가 선택한 것은 그림**이다**.)

분열문은 문장 내에서 어떤 특정 요소를 강조하고자 그 특정 성분을 초점화 시키는 문장을 말한다. 이 때 '是'는 바로 뒤에 후행하는 요소를 초점화하는데 '동사, 형용사'는 분열문의 초점이 될 수 없으며 술어 동사 앞에 오는 동작의 주체, 시간, 장소, 도구 등은 분리성을 가지고 있어 그 앞에 '是'를 추가하여 초점화가 가능하다(石毓智, 2005).

중국어에서 분열문은 '是' 구문과 '是…的' 구문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예문(98 가~다)는 '是' 분열문이고 (98라, 마)는 '是…的' 분열문이다. (98바)는 의사분열문으로서 목적어를 초점화할 수 없는 두 분열문과는 달리 보어 자리에 항상 목적어(대상) 성분만 초점화 될 수 있는 구문이다. 상위 구문은 모두 '是'뒤의 성분을 초점화하여 강조하고 있는 분열문이지만 (98 마)는 구조적으로 '不是…是'의 형식의 대비 구문과 같아 보인다. 石毓智(2005)은 이러한 구문에 대해서 '不是你嫌, 是我嫌.(네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처럼 '不是'와 '是'에 인접한 변항이 양립하고 다른 변항은 모두 일치할 때 초점이 '不是'와 '是' 뒤에 오는 성분에 맞춰진다면 대비 구문이 아니라 분열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98 마)는 주어인 '國民黨'과 '誰'만 다르고 다른 변항이 모두 일치하고 주어가 초점화되었으므로 분열문으로 봐야한다.

(98 바)는 본래 'NP1+V+NP2'의 문장이 '(VP+的)+是+NP2'의 형식으로 초점화 된 의사분열문이며 초점화 형식에서 NP2 는 항상 동사의 목적어(대상)가 되어야 한다(石毓智, 2005). (98 바)의 중립문은 '他選了繪畫'로 상정할 수 있다.

탄나나(2015)는 중국어의 경우, 발생한 사건의 시간을 질문할 때 반드시 '是...的' 분열문을 사용해야 하고 과거 사건의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 방식을 나타낼 때도 '是...的' 분열문을 이용해야 하므로 중국어의 분열문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국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분열문 32 토큰 중 '是…的' 분열문은 3 토큰으로 매우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다음은 '是' 관용 구문의 예문이다.

(99) 관용 구문

가, 雖然**孰是孰非**仍難斷定..
(비록 누가 옳고 그른지 여전히 단정하기 어렵지만..)

DOI:10.6814/NCCU202100335

나. 對中國人**是好是壞**, 有見仁見智的不同說法,

(중국인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견인견지(見仁見知)의 다른 설이 있다.)

다. 他們疑惑著而今的自由黨竟**是真是假.**

(그들은 지금의 자유당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의심했다.)

(99 가)에서 관용어는 '孰是孰非'로 여기서 '是'는 '옳다'의 뜻을 나타낸다. (99 나, 다)는 모두 '是 A 是 B'의 형식으로 A 와 B 자리에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임으로써 '여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용 구문은 총 3 토큰으로 제일 낮은 사용율을 보였다.

다음은 강조 구문의 예문이다.

(100) 강조 구문

가. 我覺得像電杆上的廣告板, 隨時都有掉下來的可能, 實在**是**太危險了！(형용사)

(전봇대 광고판 같은 것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돼요.)

나. 不法業者盜採砂石都**是**利用三更半夜或週末.(동사)

(불법 업자들의 불법모래 채취는 모두 한밤중이나 주말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 尤其**是**大型公有停車場, 成為仲介業者促銷的主要場所.(명사)

(특히 대형 공유 주차장은 알선업체의 주요 판촉 장소가 되고 있다.)

라. 鄉民們更**是**「寧可席上無肉，不可門前無竹」(속담)

(향민들은 더욱더 상위에 고기가 없을지언정 문앞에 대나무가 없으면 안된다.)

마. 鄉民已**是**忍無可忍.(성어)

(마을 사람들은 이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바. 反倒**是**大夥只在意新鮮 .(절)

(오히려 모두들 신선함에만 신경을 쓴다.)

사. 其實房間內有些東西的確**是**可以帶走**的**.(是…的/동사)

(사실 방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은 확실히 가지고 갈 수 있다.)

아. 我們都知道人**是**不完美**的**.(是…的/형용사)

(우리는 모두 사람이 불완전한 것을 안다.)

강조 구문은 '이다' 구문에 없는 의미 기능 항목이지만 양태 구문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강조 구문에서 '是'는 필수 성분이 아니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石毓智(2005)는 '是'가 동사, 형용사와 같은 연속성[70] 성분 앞에 나타날 경우

[70] 분리성(discrete)은 개체가 뚜렷하거나 그 구성원이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자연수의 수식을 받

DOI:10.6814/NCCU202100335

강조의 작용을 하며 강조되는 것은 그 뒤에 오는 모든 서술어이며 이 서술어는 한개의 단어 또는 더 복잡한 구성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의미적으로 '是'뒤에 후행하는 성분이 형용사(구)일 경우 성질의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며 뒤에 오는 성분이 동사(구)일 경우는 사실 발생의 진실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강조 구문의 형식은 'X[+d]+是(강조)+Y[-d]'로 표기할 수 있다.

(100 가)는 형용사 앞에 '是'가 위치하여 뒤에 오는 '위험하다'의 정도성을 강조한 구문이며 (100 나)는 동사 앞에 '是'가 위치하여 '이용한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강조한 구문이다. (100 다)는 '是'가 부사 '尤其'와 결합한 '尤其是'의 구조로 쓰여 뒤에 오는 명사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尤其是'는 사람, 일, 사물 등 명사성을 나타내는 단어나 어구 앞에서 주로 같은 사물 중에서 강조해야 할 하나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므로(劉潔, 2013) 강조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100 라, 마)는 보어 자리에 속담이나 성어가 온 경우인데 중국어에서 속담과 성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성질과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그 앞에 오는 '是'는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石毓智, 2005). (100 라)는 '고기가 없으면 살이 빠지고,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속물이 된다'는 문인 사대부의 탈속의 고결하고 고상한 정취를 표현한 속담이다. (100 바)는 '是+소절' 형식의 무주어구문으로 어떤 일에 대한 진실성을 강조하는 구문이다(呂叔湘, 2007). (100 사, 아)는 '是…的'강조 구문으로 화자가 주어에 대해 평가, 서술 또는 묘사함으로써 전체 문장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치를 논하여 청자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믿을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어기를 나타낸다(劉月華외, 2001). 여기서 '是'와 '的'는 모두 어기 조사이며 '是…的'사이에 동사, 형용사, '능원동사+동사', '동사+가능보어'의 성분이 올 수 있다. '是'와 '的'는 동시에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구문은 총 121 토큰으로 세 번째로 높은 사용 빈도율을 보였다.

다음은 대비를 나타내는 구문의 예문이다.

(101) 대비 구문

가. 環保<u>是</u>生活中的實際行動, 而<u>不是</u>嘴巴說說的口號！(긍・부정 대비)

(환경 보호는 생활 속의 실제 행동이지, 입으로 말하는 구호가 아니다!)

을 수 있는 대상, 즉 명사와 같은 성분을 뜻하며 [+d]로 표기할 수 있다. 반대로 연속성(continuous)은 명확한 개체 없이 그 구성 부분 사이에 경계가 교차해 모호하여 정도사에 의해 수식되는 것, 즉 형용사와 같은 성분을 말하며 [-d] 표기할 수 있다. 동사는 종종 시작점이 명확하고, 동량사와 결합한 자연수로 칭할 수 있어 시・공간적으로 분리성을 가지기도 하므로 [±d]로 표기할 수 있다(石毓智, 2005).

DOI:10.6814/NCCU202100335

나. 相信每個人的未來都可能實現, 而不只**是**夢. (다른 성질 대비)
(모든 사람의 미래가 꿈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다. **不是**安樂死，就**是**一槍斃命.(선택)
(안락사가 아니면, 총 한 방으로 죽는다.)

라. 再判定究竟**是**對手進步，**還是**我們自己退步.(선택)
(과연 상대가 진보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퇴보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판가름한다)

마. 如果**是**, 則可給予一個適當的空間並加以妥善運用.(가설)
(만약 그렇다면 적절한 공간을 주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바. 經過的行人，**不是**踢我一腳，**就是**罵我：「臭狗, 走開.」(긍・부정 대비)
(지나가는 행인이 나를 발로 찬 게 아니라 욕했다.)

대비 구문은 두 개 이상의 상반된 것 또는 다른 성상(性狀)이나 사건을 연관시키는 구문으로 여러 가지 대비되는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石毓智(2005)은 이러한 대비 구문을 긍정과 부정의 대비, 다른 성질의 대비, 선택 형식, 가설, 양보, 조건문의 대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101 가)는 긍정과 부정의 대비를 나타내는 구문이다. 이러한 대비 구문을 판단사 구문과 구별하는 기준은 '是'앞에 시간 부사 수식의 가능여부이다. 판단사에서 '是'는 동사의 기능을 하므로 그 앞에 '已經, 早就, 曾經'과 같은 시간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비 구문에서 '是'는 이러한 동사의 특성을 많이 상실하였기 때문에 시간 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하다. (101 가) 예문의 '是'와 '不是' 앞에 각각 시간 부사 '已經'을 붙여보면 문장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은 판단사 구문의 속성 구문이 아닌 대비 구문으로 봐야한다. (101 나)는 두 가지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대비 구문으로 한 문장에만 '是'를 쓰고 다른 한 문장은 일반 평서문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101 다, 라)는 모두 선택 형식의 대비문으로 '是'와 '還是'로 두 개의 단문을 연결하여 하나의 선택을 제공하는 구문이다.
(101 라) 구문의 경우 분열문과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분류문과 대비 구문의 차이에 대해서도 石毓智(2005)가 설명한 바 있다. 만약 대비 관계의 두 개의 문장 사이에 두 개 이상의 다른 변항이 존재한다면 '是'의 후행 성분을 초점화하는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101 라)구문은 주어와 동사 두 개의 변항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열문이 아닌 대비 구문으로 봐야 한다. (101 마)는 가설을 나타내는 단문을 도입하여 뒤에 관련된 상황과 대조를 이루는 구문이다. (101 바)도 긍정과 부정의 대비를 나타내는 구문인데 '是'와 '不是'에 후행하는 성분이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 강조 구문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DOI:10.6814/NCCU202100335

형식이다. 이에 石毓智(2005)는 조동사, 동사, 형용사(구)와 같은 연속성 성분이 대비 형식 안에 있을 경우 연속 성분 앞의 '是'는 강조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른다면 (101 바)구문은 강조가 아닌 대비 구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01)예문과 같은 '是' 대비 구문은 총 26 토큰으로 2.6%의 사용 빈도율을 보였다.

다음은 해석 구문의 예문이다.

(102) 해석 구문

가. 這座塔**是**為了紀念集體自殺於此的縣立第一女子高等學校.(목적)

(이 탑은 이곳에서 집단 자살한 현립 제일여자고등학교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나. 這純粹**是**市場人士刻意造謠,.(주어에 대한 설명)

(이것은 순전히 시장 사람들이 일부러 날조한 것**이다**.)

다. 這些女執政當初投身政壇的動機幾乎無一例外**是**為了替丈夫或父親報仇.(이유)

(그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든 동기는 거의 예외 없이 남편이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였다**.)

라. 主要中毒原因**是**肉類、雞蛋、乳品或豆類製品等蛋白質含量較高的食品受污染而引起.

(주요 중독 원인은 육류나 달걀, 유제품, 콩 제품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의 오염으로 인한 것**이다**.) (주어에 내포된 설명)

마. 陳士麟教練**是**於今年四月份，應中華賽艇協會之邀來台執教至九月止.(상황 설명)

(진사린 감독은 올4월 중화조정협회 초청으로 부임해 9월까지 지휘봉을 잡았다.)

바. …絕大多數**是**凌晨或夜間進行盜採….(상황 설명)

(절대 다수는 새벽이나 밤에 도굴을 한다.)

해석 구문은 보어가 주어에 내포된 설명을 나타내며 주어와 보어 사이에 반드시 '是'를 필요로 하는 구문이다. 이 때 주어와 보어의 외연은 일치하며 보어가 가르키는 것은 실현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주어에 대한 상황 설명이나 묘사를 나타낸다. 'NP+是+VP' 또는 'VP+是+V'의 구조를 가지며 여기서 '是'는 판단사로서 문장의 핵심 성분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石毓智, 2005).

(102 가~라) 해석 구문의 한국어 표현을 보면 대부분 한국어 '이다' 구문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是'에 후행하는 성분이 상당 어구가 아닌 동사(구), 형용사(구)라는 구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102 마, 바)는 주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구문으로서 주어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해석구문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어로 표현할 때 '이다' 구문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

DOI:10.6814/NCCU202100335

구문은 총 304 토큰으로 높은 빈도율을 보였는데 그 중 주어에 관한 설명으로 '이다' 구문과 대응되는 구문이 271 토큰,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는 상황 설명 구문이 33 토큰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타 구문의 예문이다.

(103) 기타 구문

가. 孩子有如空白帶般, 給什麼, 就**是**什麼.(확실)

(아이들은 공테이프와 같아서 주는대로 받는다.)

나. 謝蕾絲看著這種無能為力的己消彼長，心裡自然**不是**滋味.(적합)

(셰레즈는 어쩔수 없는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보니 마음이 자연히 언짢아졌다.)

다. 當你發燒的時候，媽媽**是不是**會幫你冷敷額頭呢？(정반의문문)

(네가 열이 날 때 엄마가 이마에 얼음찜질을 해주지 않니?)

라. 看看你的眼光**是不是**和評審一樣.(여부)

(심사위원 같은 눈인지 아닌지 봐봐요.)

기타 구문은 '이다' 구문에 나타나지 않은 의미 기능 항목과 사용 빈도가 낮은 구문을 모두 포함하였다.(103 가)는 'A 是 A'형식으로 A 앞에 동사가 올 경우 A 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며 '是' 앞에 '就'를 붙일 수 있다. 따라서 'V+ A+ 就是+ A'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뜻을 나타낸다(呂叔湘, 2007). (103 나)는 '是'가 '마침, 적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음이 적합하지 않다. 내키지 않는다' 등의 의미로 볼 수 있다.[71] (103 다)는 '是不是'의 구조로 정반의문문을 구성하고 (103 라)는 '是不是'의 평서문으로서 '여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타 구문은 총 22 토큰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코퍼스에서 나타난 '是'의 의미 기능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의미별 사용 빈도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6>와 같다.

[71] 石毓智(2005)에서 제시한 '마침, 적합'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가. 这场雨下得是时候.(이번 비는 마침 때 맞춰 왔다) -시간-

나. 这本书搁得不是地方.(이 책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다) -장소-

다. 作为主编, 我心里很不是滋味.(편집자으로서 나는 기분이 매우 언짢다)

DOI:10.6814/NCCU202100335

	1	2	3	4	5	6	7	8	9	10	소계
의미	확인	속성	존재 소유	수량 시간	분열문	관용어	강조	대비	해석	기타	
토큰수 (Token)	105	359	8	22	32	3	121	26	302	22	1,000
비율(%)	10.5	35.9	0.8	2.2	3.2	0.3	12.1	2.6	30.2	2.2	100

<표> 16 '是' 구문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

이러한 의미 기능 사용양상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만 중앙연구원의 Sinica corpus 4.0 에서 '是' 구문의 의미 기능 사용은 '속성>해석>강조>확인>분열문>대비>수량 및 시간>기타>존재 및 소유>관용어' 순으로 높은 빈도율을 보였다. '是' 구문에서도 제시 구문과 상황의존적 구문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다' 구문과 마찬가지로 본고의 연구 대상이 문어자료라는 점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어 '이다' 구문과 대응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기능과 비대응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기능의 비율이 79.5%:20.5%로[72] '是' 구문에서는 대응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기능의 사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탄나나(2015)에서 계사의 기본 유형과 멀어질수록 두 구문이 대응관계를 이루기 어려워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대응 관계의 의미 기능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是' 구문에서 '강조, 대비, 관용 구문'과 같은 계사의 확장적 의미 기능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보어 명사항에 비지시적 명사구가 쓰여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을 하는 '분류, 비유, 존재, 소유, 수량, 시간 구문과 해석 구문까지 모두 속성 의미에 포함한다면 '是' 구문의 확인과 속성의 의미기능이 전체의 79.9%에 달한다. 해석 구문의 경우, 보어 자리에 명사 상당 어구가 아닌 '주어+是+동사(구)/형용사(구)/절'의 다양한 구조를 가지지만 이 구조 안에서 '是'는 주어와 보어를 연결하는 계사로서의 기능을 하며 의미적으로 주어에 내포된 영역의 설명과 주어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므로 속성 의미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是' 구문 역시 중국어

[72] '是' 구문이 '이다' 구문과 서로 대응 관계를 보이는 의미 기능은 확인(10.5%), 속성(28.4%), 분류(5.9%), 비유(1.6%), 존재(0.8%), 분열문(3.2%), 시간 및 수량(2.2%), 해석-주어설명(26.9%) 구문이다. 비대응 관계를 보이는 의미 기능은 강조(12.1%), 해석-상황설명(3.3%), 대비(2.6%), 관용 구문(0.3%) 그리고 기타 구문(2.2%)이다.

DOI:10.6814/NCCU202100335

에서의 주요 기능이 확인 구문과 속성 구문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是'의 결합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보어 자리에 위치한 단어, 즉 '是'에 후행하는 요소의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17>과 같다.

후행요소	빈도(회)	빈도율	소계
명사(구)	503	50.3%	56.6%
수량사(구)	12	1.2%	
的자(구)	52	5.2%	
동사(구)[73]	199	19.9%	43.4%
소절(주술구)	173	17.3%	
접속사	22	2.2%	
형용사(구)	15	1.5%	
관용어	12	1.2%	
성어 및 속담	9	0.9%	
개사구	3	0.3%	
총계	1000	100.0%	100.0%

<표> 17 '是'의 후행요소 분포율

<표 17>을 보면, '是' 구문의 보어 자리에 '的'자구를 포함한 명사 상당어구의 분표율이 56.6%로 제일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중국어에서 '的'는 결합하는 구문에 명사성을 부여하는 성분이므로 명사 상당어구에 포함할 수 있다. 보어 명사항의 자리에 명사 상당어구가 절반 이상의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是' 구문의 기본 문형이 'NP1 是 NP2'로 논의되어 온 것에 대해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동사(구), 소절, 접속사, 형용사(구), 관용어, 성어 및 속담, 개사(구) 등 명사 성분이 아닌 요소가 43.4%의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데 이는 Pustet (2003)이 제시한 4 가지 종류의 계사 결합 유형 중에서 '是'가 '명사,

[73] 비명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사용율을 보인 것은 동사(구)인데 이는 '是'의 의미 기능 중 강조와 해석의 사용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조 구문에서 '是'는 상태의 정도를 강조하는 것보다 사건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기능의 사용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또 해석 구문은 '주어에 대한 상황 설명이나 묘사를 나타내는데 'NP+是+VP' 또는 'VP+是+V'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동사(구)의 사용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DOI:10.6814/NCCU202100335

형용사, 동사'와 모두 결합 가능한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명사 상당 어구 중에서 수량사(구)의 분포율이 '이다' 구문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수량 및 시간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是'의 출현이 수의적이기 때문이다.

3. 소결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코퍼스에 나타난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의 주요 의미 기능이 대부분 확인 구문과 속성 구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확인과 속성의 의미 기능은 계사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으로 '이다' 구문에서는 75%, '是' 구문에서는 79.9%의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이는 한•중 언어에서 두 구문의 주된 기능이 바로 계사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의 대응 관계와 비대응관계의 의미 기능의 사용 빈도를 알아본 결과 '이다' 구문은 서로 대응되지 않는 구문의 사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是' 구문은 '이다' 구문과 대응관계에 있는 구문의 사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다' 구문에서 양태 구문 및 관용 구문과 같은 계사의 확장적 의미 기능의 사용률이 높고 'NP+ 이다'의 구성으로 문장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이다' 구문의 독자적인 의미 기능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是' 구문은 '강조, 대비, 관용 구문과 같은 계사의 확장적 의미 기능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다' 와 '是'의 결합 가능한 선•후행 요소를 살펴본 결과 두 구문 모두 명사 상당 어구의 결합 분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두 구문의 기본 문형이 'NP1 이 NP2 이다'와 'NP1+ 是+ NP2'로 논의되어 온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다' 구문의 경우 명사 상당 어구의 결합 분포율이 98%로 압도적인 분포율을 보였는데 이는 '이다' 구문이 Pustet(2003)에서 제시한 4 가지 종류의 계사 결합 유형 중 '명사'만 결합하는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사 성분 외에 부사, 어미 등 더 다양한 결합 구조를 보이지만 그 분포율이 2%채 되지 않는다. '是' 구문은 명사 성분 외에 명사, 형용사, 동사, 접속사, 개사 등 다양한 성분과의 결합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포로 나타났는데 이는 '是' 구문이 '명사, 형용사, 동사'와 모두 결합 가능한 계사 유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DOI:10.6814/NCCU202100335

Ⅴ. 결론

‘이다’와 ‘是’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각각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계사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형론적 관점에서 각각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하는 만큼 그 의미 기능 및 통사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는 상이한 두 언어를 대조하기 위해서 ‘계사’라는 비교적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두 구문이 한•중 언어의 계사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조하고 실제 기능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코퍼스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계사 ‘이다’와 ‘是’를 대조함으로써 두 계사의 품사 범주, 계사 구문의 의미 기능 및 보어 결합의 유형 그리고 두 구문의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범언어적으로 계사가 가지는 기본 기능은 의미적으로 ‘확인’과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통사적으로는 주어와 보어를 연결하는 것이다. 한•중 언어에서 ‘이다’와 ‘是’는 문장 안에서 주어와 보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미적으로도 확인과 속성은 물론 존재, 소유, 목적, 시간 등 더 확장된 의미 기능을 보인다는 점에서 두 구문이 문장 안에서 전형적인 계사로 쓰여 술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어 계사 ‘이다’는 활용을 하면서도 체언에 붙어 의존적으로 쓰이는 복잡한 특성 때문에 품사 범주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 중국어 계사 ‘是’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사로 보고 있으며 특히 판단 동사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하다. 본고에서는 계사로서의 대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다’와 ‘是’를 용언의 범주로 간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계사 구문의 의미 기능 유형 대조에서 두 구문 모두 확인 서술과 속성 서술의 기본적 의미는 물론 확장된 의미 기능의 유형도 보였다. ‘이다’ 구문의 의미 기능은 확인과 속성 외에도 존재 및 소유, 수량 및 시간, 양상적 구문, 관용문, 분열문, 제시 구문, 상황의존적 구문 등 다양한 확장 양상을 보이는데 그 중 확인, 존재 및 소유, 수량 및 시간, 분열문, 상황의존적 구문, 비유문, 분류문, ‘속성 NP1’ 구문은 ‘是’ 구문과 대응 관계를 이루지만 속성 구문 중에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인 ‘속성적 NP 구문 2, 속성 N 구문, 존재 구문 중에 처소를 나타내는 구문, 양상적 구문, 관용 구문’은 ‘是’ 구문과 대응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속성 구문은 두 구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기능이지만 그 중 ‘이다’의 ‘속성적 NP 구문

DOI:10.6814/NCCU202100335

2', '속성 N 구문'은 중국어에서 '是' 구문이 아닌 동사(구), 형용사(구)로 실현되어 대응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속성 구문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이다'와 '是' 구문이 계사의 기본 유형인 확인과 속성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서로 대응 관계를 보이고 기본 유형과 거리가 있는 양태 의미, 관용 의미와 같은 경우 서로 대응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였다. 계사의 확장적 의미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양태 구문과 관용 구문 역시 중국어에서 대부분 부사(구), 동사(구), 형용사(구)로 실현되어 '是' 구문과 대응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넷째, 계사의 통사적 분포에 있어서도 '이다'와 '是' 구문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공통적인 것은 두 구문 모두 주어와 보어 자리에 명사(구)가 위치한다는 것인데 이는 계사 구문의 전형적인 기본 구조이다. 그러나 실제 주어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성분은 일반적인 형식보다 더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이다' 구문의 경우 주어 자리에 명사 또는 명사 상당 어구뿐이지만 '是' 구문의 주어는 동사, 형용사, 소절 등 비명사성 성분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다' 구문의 보어 자리에도 명사성 성분 외에 더 다양한 성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是' 구문의 경우 '이다' 구문 보다 더 다양한 성분이 보어 자리에 분포한다. '이다' 구문의 보어 자리에는 부사, 조사, 어미, 성어 등이 자리할 수 있으며 '是' 구문의 보어 자리에는 동사(구), 형용사(구), 소절, 접속사, 개사구, 성어, 的자구' 등이 분포할 수 있다.

다섯째, '이다'와 '是' 구문의 의미 기능 사용 및 결합 구조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한·중 코퍼스 1,000 토큰을 분석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다' 구문의 경우 '속성>양상>수량 및 시간>확인>분열문>관용 구문>존재 및 소유'순으로 높은 빈도율을 보였으며 '是' 구문은 '속성>해석>강조>확인>분열문>대비>수량 및 시간>기타>존재 및 소유>관용어' 순으로 높은 빈도율을 보였다. 두 구문 모두 제시 구문과 상황의존적 구문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문어자료라는 점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상위 의미 기능 중에 계사의 기본 의미 기능인 확인과 속성의 의미 기능 분포율을 보았을 때 '이다' 구문은 75%, '是' 구문은 79.9%의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이는 한·중 언어에서 두 구문의 주된 기능이 바로 계사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 '이다' 구문과 '是' 구문의 대응 관계와 비대응관계의 의미 기능의 사용 빈도를 알아본 결과 '이다' 구문은 '是' 구문과 대응되지 않는 구문의 사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다' 구문에서 양태 구문 및 관용 구문과 같은 계사의 확장적 의미 기능의 사용률이 높고 'NP+ 이다'의 구성으로 문장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이다' 구문의 독자적인 의미 기능이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해석할

DOI:10.6814/NCCU202100335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다’ 와 ‘是’의 결합 가능한 선•후행 요소를 살펴본 결과 두 구문 모두 명사 상당 어구의 결합 분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금까지 두 구문의 기본 문형이 ‘NP1 이 NP2 이다’와 ‘NP1 是 NP2’로 논의되어 온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이다’ 구문의 경우 명사성 성분 외에 부사, 어미 등 더 다양한 결합 구조를 보이지만 그 분포율이 2%채 되지 않고 명사 상당 어구의 결합이 98%로 압도적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다’ 구문은 Pustet(2003)에서 제시한 4 가지 종류의 계사 결합 유형 중 ‘명사’만 결합하는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是’ 구문 역시 명사성 성분 외에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접속사, 소절 등 ‘이다’ 구문보다 더 다양한 성분과 결합이 가능한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43.4%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사용분포를 보였다. 이는 ‘是’ 구문이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비명사성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로써 ‘是’ 구문은 Pustet(2003)의 계사 결합 유형 중 ‘명사, 형용사, 동사’와 모두 결합 가능한 계사 유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인의 언어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만 중앙 연구원의 말뭉치를 활용하여 한•중 계사 기능의 사용 양상을 대조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이다’와 ‘是’ 구문의 대조 연구는 주로 의미적•통사적 대조로 이론적 대조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인과 대만인이 실제 사용하는 문장을 분석하여 두 구문의 실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 실제 문장에서 규범적인 문형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말뭉치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규범과 실제 사용 간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신서인, 2006). 본고에서도 두 구문의 의미적 기능이 실제로 어떠한 분포로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이론적 연구와 실제 사용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의미를 확인하여 어떤 기능을 먼저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문어 말뭉치 1,000 토큰에 한정되어 다양한 텍스트 및 구어 말뭉치의 사용 양상까지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양상 분석의 결과가 두 구문의 교육학적 관점까지 연계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이다’와 ‘是’ 구문의 사용 양상에 대해 지속적이고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석 결과가 교육학적 효과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DOI:10.6814/NCCU202100335

참고 문헌

한국어 문헌

강범모(2011), 「언어, 컴퓨터, 말뭉치 언어학」, 고려대학교출판부.

고영근・남기심(2014), 「표준국어문법론」, 도서출판 박이정.

고명이(2016),「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명사 서술어' 실현 대조연구 : 계사(繫辭)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논문

고창수(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국어학회, pp259-269.

김광해(1983), 「계사론」, 『난대 이응백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보진재, pp1-12.

김건희(2017),「이의 형용사설에 대한 재고찰 파생명사(N+적)+이다의 부정형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 42(1), 한국언어학회, pp 1-23.

김기혁(2006), 「국어 지정문과 존재문의 상관성」, 『한글』 271, 한글학회, pp51-76.

_____(2007), 「국어 형용사 서술문과 명사 서술문의 상관성」, 『이중언어학』 35 권, 이중언어학회, pp27-47.

김승곤(1986), 「풀이자리토씨 "이다"에 대한 한 고찰」, 『한글』 191, 한글학회, pp39-52.

김영희(2000), 「쪼갠문의 기능과 통사」, 『어문학』 2000.2, 한국어문학회, pp 65-90.

김의수(2002), 「형식동사 '이다'의 문법」, 『어학연구』 38(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pp879-905.

김창섭(1984), 「形容詞 派生 接尾辭들의 機能과 意味-'-답-, -스럽-, -롭-, 하-' 와 '-的'의 경우」, 『진단학보』(58), 진단학회, pp145-161.

남기심(1986), 「'이다' 구문의 통사적 분석」, 『한불연구』 191, 연세대학교 한불문화연구소, pp1-15.

남길임(2003a), 「'이다'의 용법과 사전 기술」, 『한국사전학)』(2), 한국사전학회, pp247-273.

_____(2004), 『현대 국어 '이다'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_____(2006a), 「지정사 '이다'」,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pp269-300.

_____(2006b), 「말뭉치 기반 국어 분열문 연구」, 『형태론』 8 권 2 호, pp 339-360, 형태론.

_____(2009), 「텍스트 장르와 접미사의 사용 양상 —'-적'과 '-적' 파생어를 중심으로—」,

DOI:10.6814/NCCU202100335

『한글』(283), pp 63-91, 한글학회.

_____(2015), 「기술문법의 관점에서 본 "이다"의 결합 양상」, 『한말연구』 (38), pp 77-103, 한말연구학회.

동 뢰(2005),「‘이다’의 범주적 성격-중국어 '시'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목정수(1998), 「기능동사 '이다' 구성의 쟁점」, 『언어학』 22, 사단법인한국언어학회, pp245-290.

_____(2006), 「韓國語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正體性 - 기능동사 擁護論 -」, 『어문연구』 34 권 4 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55-82.

_____(2010), 「계사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시적)이다/(유명)하다’의 정체」, 『시학과 언어학』 19, 시학과 언어학회, pp99-125.

박병선(2009), 「韓國語樣態表現體系에 따른 中國語表現의 特徵」, 『Journal of Korean Culture』 1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pp99-122.

박정섭(2014),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계사 구문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 45 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pp63-190

박진호(2012),「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국어학』 63 권, 국어학회, pp459-519.

박철우(2008), 「국어 분열문의 통사 구조」, 『한말연구』 22 권, 한말연구학회, pp77-96.

백봉자(1999),『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강보(2019),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이다'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석사논문.

서상규(1998), 「말뭉치 분석에 기반을 둔 낱말 빈도의 조사와 그 응용-`연세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글』 242, 한글학회, pp225-270.

서정목(2009), 「대조분석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언어과학연구』 50, 언어과학회, pp69-90.

서정수(2005),『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石綿敏雄 • 高田誠 저, 오미영 역(1990) 『대조언어학』, 제이앤씨.

성지철(1985), 「國語의 話階와 格式性」, 『언어』 10(1), 한국언어학회, pp143-170.

송창선(2007), 「현대국어 ‘이다’의 문법적 처리 ‘아니다’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어문학』 98, 한국어문학회, pp121-157.

시정곤(2002), 「최기용(2001)에 나타난 몇 가지 의문들」, 『형태론』 4 권 2 호, 형태론,

DOI:10.6814/NCCU202100335

pp339-348.

_____(2005),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을 다시 논의함」, 『한국어학』28, 한국어학회, pp55-80.

시정곤 • 김건희(2011), 「'의존명사+ 이다' 구문에 대한 양태적 고찰」,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pp79-102.

신서인(2006), 「구문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논문

신자영(2009), 「제 2 언어 교육을 위한 대조 분석 방법론 연구」, 『국제문화연구』2,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pp57-83.

안명철(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25, 국어학회, pp29-49.

안주호(2004), 「N+ 이다 구성의 양태의미 연구」, 『담화와인지』11(1), 담화인지언어학회, pp149-172.

양세욱(2006), 「중국어 계사(繫辭) `시(是)`의 기원(起源)과 재분석(再分析)」, 『중국문학』47 권, 한국중국어문학회, pp131-153.

양정석, 시정곤(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권, 국어학회, pp 337-366.

양정호(2003),「'이다'의 문법범주에 대한 고찰」,『형태론』5권 2호, 형태론, pp255-271.

엄정호(1989), 「소위 指定詞 構文의 統辭構造」, 『국어학』18, 국어학회, pp110-130.

_____(1993), 「'이다'의 범주 규정」, 『국어국문학』110, 국어국문학회, pp317-332.

_____(2000), 「'이다'의 '이'는 조사인가?」, 『형태론』2 권 2 호, 형태론, pp333-343.

우순조(2001), 「'이다'의 '이'가 조사인 새로운 증거들」, 『형태론』3 권 2 호, 형태론, pp345-358.

_____(2006),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들 표지이론적 관점에서」, 『언어학』(44),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pp79-121.

육준철(2005), 「대조분석과 성인언어 교육」, 『현대영미어문학』23(4), 현대영미 어문학회, pp119-134.

이기용(2001), 「대조언어학: 그 위상과 새로운 응용」, 『언어과학연구』 19, 언어과학회, pp69-86.

이석린(1960), 「잡음씨 "이다"에 대하여」, 『한글』(127), 한글학회, pp42-49.

이석재, 김정아, 장재웅(2007),「영어, 중국어, 일본어권 화자의 한국어 음운 규칙 적용과정에서의 음소 산출 오류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18 1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359-393.

DOI:10.6814/NCCU202100335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이슬기(2019), 「중국어 명사술어문과 계사 생략의 인가조건」, 『중어중문학』78, 동국대 한국중어중문학회, pp165-202
이호승(2006), 「격조사 없는 명사구의 격 문제에 대하여」, 『어문학』93, 한국어문학회, pp139-159.
이희승(1959), 「체언(體言)의 활용(活用)에 대하여」, 『국어국문학』20, 국어국문학회, pp137-139.
일 언(1996), 「[고찰과 연구] 지정사구문과 존재 구문의 화용론적 비교고찰」,『중국조선어문』(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pp12-15.
임규홍(1986), 「국어 분열문에 관한 연구」,『어문학』 11, 한국어문학회, pp155-175.
임근석(2009), 「국어(國語) 형용사(形容詞) {이-}의 어휘소(語彙素) 분류(分類) 시고(試稿) -‘확인(確認), 속성(屬性), 소재(所在), 제시(提示) 등(等)’의 의미(意味)를 중심으로-」,『어문연구』37 권 1 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33-159.
_____(2012), 「국어 {이다}의 어휘소 분할에 대하여」,『한국어학』57, 한국어학회, pp299-329.
임동훈(2005), 「‘이다’ 구문의 제시문적 성격」, 『국어학』45, 국어학회, pp119-144.
장 욱(2015), 「한국어와 중국어의 계사 구문 대조 연구-‘이다’ 구문과 ‘是'자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전공 석사논문.
장하일(1956), 「임자 자리 말끝(Nominative Case Ending) "-이"」, 『한글』120, 한글학회, pp248-263.
정인승(1959), 「우리말의 씨가름에 대하여」, 『한글』125, 한글학회, pp316-327.
주 유(2019), 「한국어 ‘이다’ 구문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진 열(2012), 「‘이다’ 구문에 대한 연구-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Jin Huihui • 이선웅(2015), 「한국어 ‘이-’와 중국어 ‘是’의 대조 연구」, 『우리말글』 66, 우리말글학회, pp33-62
최기용(2001), 「’이다’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형태론』3 권 1 호, 형태론, pp101-112.
최정도 • 김선혜(2009), 「‘부사+이다’ 구문에 대한 연구-‘그만이다’류를 중심으로-」,『국제어문』46 권, 국제어문학회, pp133-164.
최현배(1956), 「잡음씨의 세움」, 『한글』120, 한글학회, pp213-247.

DOI:10.6814/NCCU202100335

_____(1963), 「잡음씨에 대하여」, 『연세논총』 2 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pp1-66.
최형용(2000), 「'-적(的)' 파생어의 의미와 '-적(的)'의 생산성」, 『형태론』 2 권 2 호, 형태론, pp215-237.
최흥수(1991), 「《是》 자의 번역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 5 호, 중국조선어문, pp49-52.
탄나나 • 남길임(2013), 「한국어와 중국어 계사 구문의 대조 연구-통사적 분포와 의미 기능 확장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탄나나(2015), 「'이다' 구문에 대한 연구-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한정한(2009), 「'이다'의 형태, 통사, 의미 범주」, 『국어국문학』(151), 국어국문학회. pp 117-149.
홍재성(2010), 「프랑스어와 한국어 계사 구문의 유형론적 대조 연구」, 『학술원 논문집』 49 집, 학술원. pp29-89.

중국어 문헌

丁廣華，2008，〈淺析漢語分裂句中的“是”〉，《蕪湖職業技術學院學報》第 2 期，蕪湖職業技術學院學，頁 31-33。
丁聲樹，1979，《現代漢語語法講話》，北京，商務印書館。
王　力，1947，《中國現代語法(上冊)》，上海，商務印書館。
王　力，1937，〈中國文法中的繁詞〉，《中國語文》第 1 期，清華大學，頁 1-67。
王　力，2013，《漢語史稿》，北京，中華書局出版。
石毓智，2005，〈論判斷、焦點、強調與對比之關系—是”的語法功能和使用條件〉，《語言研究》第 24 期，新加坡國立大學中文系，頁 43-53。
朱德熙，2007，《語法講義》，香港，商務印書館(香港)有限公司。
呂叔湘，1979，《漢語語法分析問題》，北京，商務印書館。
呂叔湘，2007，《現代漢語八百詞》，北京，商務印書館。
邵靄吉，2000，〈《馬氏文通》“斷詞”新解〉，《鹽城師范學院學報》第 4 期，鹽城師范學院學報編輯部，頁 40-45。
何思成，1984，〈談“是”的語法功能〉，《成都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 2 期，頁 78-80。
周洪波，1992, 〈表判斷“是”字句的語義類型〉, 《安徽教育學院學報》第 4 期，頁 51-55。

DOI:10.6814/NCCU202100335

金家恒，2004，〈"是"字句句法語義研究〉，《黃山學院學報》第 5 期，黃山學院中文系，頁 84-86。
金海英，2009，《"是"字句和"이다"句的對比研究》，碩士論文，延邊大學。
范　曉，1999，《三個平面的語法觀》，北京，北京語言學院出版。
馬文熙・張歸璧，1996，《古汉语知识解辞典》，北京，中華書局。
馬建忠，2007，《馬氏文通》，北京，商務印書館。
胡裕樹，1995，《现代汉语》，上海市，上海教育。
姚亞平，1981，〈也說"是"字句〉，《南昌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 4 期，江西大學中文系七七級，頁 82-91。
陳天福，1995，〈論"是"字句〉，《河南大學學報》，第 35 卷， 第一期，全國漢語教學研究會，頁 70-73。
高名凱，1992，《漢語語法論》，上海， 上海書店。
徐泰明，1989，〈"是"的多種詞性和多種功能〉，《曲靖師專學報》第 2 期，北京印刷學院出版系，頁 80-88。
徐開妍，2014，《韓國留學生漢語中介語句型、句式系統實證研究》，博士論文，南京師范大學。
袁從潤，2007， 现代汉语強調方式初探，安徽师范大学硕士论文。
張寶林，2002，〈關係動詞的鑑定標準〉，《語言教學與研究》第 4 期，北京語言文化大學漢語學院，頁 48-54。
湯廷池・鄭良偉・李英哲，1983，《漢語句法・語意學論集 ： 言談宇宙與語意領域 ； 漢語中的預設與量化》，臺北市，臺灣學生書局。
黃伯荣・廖序東，1991，《現代漢語》，北京，高等教育出版社。
趙元任，2010，《漢語口語語法》，北京，商務印書館。
鄭蔓威，2001， 现代汉语"是"字句，黑龙江大学硕士论文。
劉月華・潘文娛・故韡，2001，《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北京，商務印書館。
劉相臣，2004，〈"是……的"的是"格式中"是""的"的性質和用法探討〉，《語文學刊》第 3 期，南京師范大學文學院 江蘇南京，頁 101-104。
劉　潔，2013，〈"特別"和"尤其"的用法比較〉，《現代語文(學術綜合版)》第 10 期，天津職業技術師范大學，頁 153-154。
黎錦熙，1925，《新著國語文法》，上海，商務印書館。
謝永玲，1999，〈也說"是"字句〉，《漢語學習》第 3 期，北京印刷學院出版系，頁 26-29。

DOI:10.6814/NCCU202100335

영어 문헌

Bhatia, V. K.(1993), *Analysing genre : language use in professional settings* , London ; New Y ork : Longman.

Croft, W.(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as*. Chic ago, London: Universi ty of Chicago Press.

Crystal, D.(2008), A First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entics, BLACKWELL PUBLISHIN G

Curme, George O.(1931), *Syntax*, Boston:D.C. Heath & Company.

Declerck, Renaat.(1988), *Studies on Copular Sentences,* Clefts and Pse udoclefts. Dordrecht: F oris

Den Dikken, M.(2006), *Specificational Copular Sentences and Pseudocl efts,* In Everaert, M. a nd van Riemsdijk, H, eds., The Blackwel l Companion to Syntax, vol. IV, Malden, MA/Oxford: Blackwell Publishing.

Dixon(2002), *Copula Clause in Australian Language*: A Typological Per spective, Anthropologi cal 44:1

Heggie, Lorie H. (1988). *The syntax of copular structur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m Califomia, Los Angeles.

Hengeveld, K.(1992), *Non-verbal Predication. Berlin,* New York: Mouto n de Gruyter.

Higgins, F. Roger.(1979) *The Pseudo-cleft Construction in English.* Ph D. thesis, Cambridge, MA: MIT. Published by Garland Press, New York.

John Lyons(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 Cambridge U.P.

John Lyons(1977). *Semantics*. Cambridge etc.: Cambridge University Pres s.

Li and Thompson (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etc.: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ynne Flowerdew (2012), *Corpora and Language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Matthew S. Dryer(2007), *Clause types, In Timothy Shopen (ed.),* Langu age Tyoplogy and Syn tactic Dsecription(Second edition), Volum e 1

Moro, Andrea (2006). *Copular Sentences.* In M. Everaert & H. van Riemsdijk (eds.), The Bla ckwell companion to syntax, vol. 2. Malden, MA: Blackwell.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6814/NCCU202100335

Regina Pustet(2003), *Copulas: Universals in the Categorization of the Lexicon*. Oxford University Press.

Stassen, L.(1997), *Intransitive Predication*, Oxford; Clarendon Press.

Verheugd, Els (1990). *Subject Arguments and Predicate Nominals: A Study of French Copular Sentences With Two NPs*. Amsterdam: Rodopi.

인터넷 사이트

국립국어원 언어정보 나눔터(세종 21 말뭉치): https://ithub.korean.go.kr
대만중앙연구원코퍼스(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 asbc.iis.sinica.edu.tw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國立政治大學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DOI:10.6814/NCCU202100335